



[해설] 중소기업들이 매긴 중기부 수장의 성적표 53점 '낙제점' 03



Economy

코스피	2101.31 (-13.04)	코스닥	701.12 (-7.51)
금리 (미국 3년)	1.90 (-0.01)	환율 (원/달러)	1114.10 (+8.80) (5일)

### 反시장 정책 붓물

반기업·반시장 정책이 쏟아지고 있다. 시장 자율에 맡겨야 할 것을 정부가 나서 규제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해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이 정부 주도로 이뤄지면서 기업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돈을 빌려 쓴 사람에게 최대 45% 감면도 추진돼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우려도 나온다. 민간임대 월세 인상폭도 정부 주도로 제한될 예정이어서 공급 축소가 예상된다.

### 정부, 취약차주 대출원금 45% 감면 추진

## ‘돈 값으면 손해’ 도덕적 해이

선제 대응으로 신불자 예방 기한이익상실 시점 연장 내년 상반기 중 도입 계획

‘모럴헤저드’ 초래 우려도

정부와 은행권이 취약차주의 대출 원금을 많게는 45%까지 감면해주는 개인 채무조정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대상은 사회 취약계층 중에서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과도한 사람이다.

취약차주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지만 장기소액연체자에 대한 빚탕감에 이어 사전 대출원금 감면으로 성실히 원리금 내기보다 버티면 된다는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우려도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감독당국과 은행권은 이 같은 내용의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 방안은 취약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의 채무 조정제에 들어가기 전에 은행 차원에서 미리 채무를 조정해 주자는 취지다.



/유투이미지

기초수급자나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과 실업이나 폐업, 질병 등에 따라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빠진 차주가 빚을 갚지 못해 3개월 이상 연체에 들어서면 원금 감면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는 연체할 것으로 예상되는 취약차주라 하더라도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것도 실직·폐업·질병 등 재무적 곤란사항이 발생하고, 대출규모가 일정수준 이하인 차주로 제한했다.

반면 이번 취약차주 지원 방안은 은행 신용대출 원금이 월 소득의 35배를 넘을 정도로 많이 사실상 대출 상환이 어려워지면 대출 원금을 최대 45%까지 감면해주는 것을 논의 중이다.

연체에 빠지지 않은 정상 차

주들이라도 이런 요건에 해당해 빚을 갚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선제적으로 이자감면 등 프리워크아웃을 통해 채무 조정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취약차주는 한 번 연체에 빠지면 채무상환 가능성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신용불량 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시적 유동성 위함에 처한 차주를 돕는 차원에서 기한이익상실 시점도 연장할 방침이다.

주택담보대출은 기한이익상실 시점을 연체 후 2개월에서 3개월로, 새희망홀씨대출도 1개월에서 2개월로 각각 연장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 별도로 금융사와 독립적인 입장에서 취약차주 대상 사적 채무 조정을 중재할 수 있는 제3의 중재·상담기관을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금감원과 은행권은 연내 ‘은행권 취약차주 부담 완화 방안’을 확정하고 전산개발과 대출약관 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도입할 계획이다.

/산성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월세 5% 인상제한도 부족해 2~3%로 낮추기로

## 공급부족 초래, 서민에 피해

100가구 이상 민간임대 대상 내년 2월 중순부터 시행예정

매년 주거비 물가지수 공표 변동률 고려 증액기준 제시

내년부터 100가구가 이상 민간임대 아파트의 임대료 인상 한도가 기존 5%에서 2~3%대로 낮아진다.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가 규제 대상이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주택에서는 지금처럼 인근 지역의 변동률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5일 민간임대주택의 임대료 상한 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내년 1월 7일까지다.

민간임대는 연 5% 이내의 범위에서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해 임대료를 인상하게 돼 있었지만 기준이 모호해 일부 임대사업자가 무조건 상한인 5%까지 올렸다.

이에 따라 작년에 일정 규모



/유투이미지

이상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선 물가상승률이나 주변 시세 등을 고려하는 구체적인 기준에 따라 임대료 인상률을 정하도록 민간임대특별법이 개정돼 내년 2월 중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서 그 세부 기준이 제시됐다.

시행령은 100가구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은 해당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 내에서 임대료를 올리도록 했다. 현재 주거비 물가지수라는 명칭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없다.

국토부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중 주택임차료, 주거시설유지보수비, 기타 주거 관련 서비스 지수의 가중평균값을 주거비 물가지수로 정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매년 이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할 예정이다.

임대사업자는 해당 임대주택이 있는 시·도의 주거비 물가지수 변동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올릴 수 없다.

단, 시도내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조례로 해당 지역에 적합한 증액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가 산정한 전국의 주거비 물가지수는 2015년 2.9%, 2016년 2.1%, 작년 2.0%로 2~3% 선이다.

법 개정으로 100가구 이상 임대하는 사업자는 내년 2월 중순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임대차 계약내용을 사전신고해야 하고 지자체는 신고수리를 거부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자체가 임대료 증액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 미만 민간임대주택 단지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해 5% 범위에서 증액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마다 주거비 물가지수를 공표해 임대료 증액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신화 기자 csh9101@

## ‘美경기침체’ 신호에 증시 일제하락

한국 증시가 전날 밤 미국 뉴욕 증시 급락 소식에 동반 하락했다. 미국의 중장기국채금리가 단기국채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경기가 침체 국면에 진입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다.

5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지수는 전일 대비 13.04포인트(0.62%) 내린 2101.31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개인과 기관은 각각 814억원, 931억원어치 주식을 사들였지만 외국인 홀로 1970억원을 순매도하면서 주가 하락을 부추겼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SK텔레콤(1.44%)과 NAVER(1.21%)를 제외하곤 모두 하락 혹은 보합세를 유지했다.

코스닥 역시 전일 대비 7.51포인트(1.06%) 내린 701.12로 하락 마감했다. 개인은 1160억원을 순매수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이 각



코스피가 13.04포인트 하락한 2,101.31로 장을 마감한 5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KEB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각 438억원, 531억원 순매도세를 기록했다.

전날 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3% 이상 급락했다. 다우지수는 3.10% 하락세로 무려 800포인트 가까이 떨어졌고, 스탠더드앤드푸어스500(S&P500)지수는 3.

24%, 나스닥지수는 2.33% 내렸다. 장단기 금리차이가 역전되면서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진 탓이다.

미 10년 만기 국채와 2년 만기 국채간 금리차(스프레드)는 11bp(1bp=0.01%포인트)로 11년내 최저수준으로 좁혀졌다. 전날에는 3년 만기 미국 국채수익률이 5년 만기 국채수익률을 역전했다. 만기가 짧은 국채의 수익률이 뛰면서 수익률 차이가 마이너스(-)가 된 것. 이는 지난 2007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시장에서는 장단기 채권금리 역전은 경기침체를 예고하는 신호로 통한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장기금리가 더 낮다는 것은 시장에서 앞으로 금리가 더 낮아질 것으로 본다는 의미”라며 “경기를 나쁘게 보는 시장의 심리가 매우 강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5일 오전 5시 37분(현지시간 4일 오후 5시 37분)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의 기아나 우주센터에서 기상관측 위성 ‘천리안 2A호’(GEO-KOMPSAT-2A)를 탑재한 유럽연합 아리안스페이스의 로켓 ‘아리안-5ECA’가 발사되고 있다. /연합뉴스

## ‘천리안 2A호’ 목표궤도 안착

내년 7월부터 기상서비스 국지성호우 등 조기 예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새벽 5시 37분 남아메리카 프랑스령 기아나에서 정지궤도복합위성 2A호(천리안위성 2A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천리안위성은 발사 후 약 34분후인 6시 11분경 고도 약 2340km 지점에서 아리안-5 발사체로부터 정상적으로 분리됐다. 6시 16분에는 호주 동가라 지상국과 첫 교신에도 성공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지상국에서 천리안위성 2A호와 교신했다. 양호한 상태로 발사체를 통해 도달해야 하는 최종 타원궤도에 안착했음을 확인했다. <2면에 계속>

/김재용 기자 juk@



인도어 서핑샵·스크린 골프룸·펫파크 다 갖췄다

# “쇼핑가서 추억 쌓아요”... 아울렛의 변신은 무죄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 오픈

부지 15만㎡에 연면적 18만㎡ ‘자연친화형’으로 차별화 설계

명품·리빙 등 브랜드 300여개 인근에 AK플라자 등 입점 예정 1년 이내 매출목표 4000억원

“고객들이 설레임을 안고 매장에 와서 만족감을 얻고, 좋은 추억을 남기고 돌아가게 하는 게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의 장점입니다. 온라인에서 체험할 수 없는 것들을 즐기고, 감성에 다가가는 점이 아울렛의 매력 아닐까요? 워라벨 문화가 확산하면서 프리미엄 아울렛의 전망은 더 밝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노윤철 롯데 아울렛 영업본부장)

‘자연을 담은 놀이터’가 용인 기흥에 들어선다.

기흥에 없던 새로운 콘셉트의 아울렛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이 6일 그랜드 오픈한다. 이곳은 상업형 아울렛에서 벗어나 가족과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쇼핑공간이란 의미를 담고 있다.

개점에 앞서 5일 경기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에 위치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에서는 노윤철 롯데아울렛 영업본부장, 정후식 점장, 이정혜 디자인 실장이 참석한 가운데 오픈 기자회견이 진행됐다.

정 점장은 이날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은 기존과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갖춘 자연친화형 아울렛으로 설계했다”며 “피렌체 컨셉의 고품스러운 인테리어로 꾸몄고, 하이브리드형(인도어+아웃도어) 매장으로 조성해 교외형아울렛의 최대 약점인 기상악화를 극복했다”고 말문을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피노키오 광장(위 왼쪽부터 시계방향)과 피크닉가든, 서핑샵 ‘플로우하우스’, 골프 매장, 나이키매장. /롯데쇼핑

했다. 주변에 상업시설이 없고 자연 경관이 뛰어나다는 이점을 살려 그 콘셉트를 ‘자연을 담은 쇼핑 놀이터’로 정했다.

기흥점은 동탄 신도시, 수원, 분당까지 30분내 접근이 가능하며 서울, 경기권에서 6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해 많은 고객 수요가 예상된다. 규모는 부지면적 15만㎡(4만5000평), 연면적 18만㎡(5만3000평), 영업면적 5만㎡(1만5000평)에 달하며 명품부터 리빙까지 약 300여개 브랜드가 들어섰다.

정 점장은 “구매력이 높은 배후상권을 갖고 있는 것은 장점이다. 향후 13만평 규모의 국내 최대 관광단지 조성되면 더욱 시너지를 낼 전망”이라고 말했다. 인근에는 이케아(IKEA)와 AK플라자, 레지던스 호텔이 들어설 예정이다.

기흥점이 위치한 곳은 원래 용인시가 도시개발계획지역으로 지정한 곳이다. 용인시가 상업 시설 입점 수요자를 모집

할 때 참여해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이 들어서게 됐다.

평일에는 약 8000명, 주말에는 4만 5000명 정도가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매출 목표는 1년 이내에 4000억 달성이다.

노 영업본부장은 “1년차에 흑자 전환에 성공해 3년차에 롯데그룹에서 투자한 비용을 회수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기흥점은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 총 4개층으로 이뤄졌다. 지하 2층에는 ‘코치’ ‘마이클코어스’ 등 해외 명품과 ‘타임’ ‘마인’ ‘미주’ 등 주요 컨템포러리의류 매장이 들어서며, 지하 1층은 ‘보브’ ‘시스템’ ‘듀얼’ 등 영캐주얼 상품군과 구두, 피혁 매장이 들어섰다. 1층은 아웃도어, 아동, 스포츠 전문관으로 구성됐다. 데상트, 언더아머 등 스포츠 브랜드 11개 매장과 ‘디스커버리’ ‘노스페이스’ 등 12개의 아웃도어 매장, 8개의 골프 브랜드가 입점했다. 최상층부인 2층은 13개의

식당과 매장 및 라이프스타일 서점, 토이저러스, 키즈카페 등으로 꾸며졌다.

해외 브랜드 유치에 대한 포부도 드러냈다. 노 영업본부장은 “해외 명품 브랜드들이 국내 매장 입점에 제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롯데 뿐만 아니라 모든 유통사들이 해외명품 유치에 어려움을 안고 있다”며 “해외 명품 브랜드는 지속적으로 유치할 생각이다. 현재 기흥점에 입점한 300개 브랜드는 내일부터 정상영업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기흥점은 기존 아울렛과 콘텐츠 측면에서 차별화를 뒀다.

아울렛 지하 2층에는 롯데에서 20억을 투자해 국내 유통업체 최초로 463.4㎡(140평) 규모의 인도어 서핑샵 ‘플로우하우스(Flow house)’가 들어섰다. 고객들은 서프 시뮬레이터에서 바다 서핑, 스케이트 보딩, 스노우 보딩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익스트림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

며, 인공 파도 위에서 1분 동안 쏟아지는 11만3000톤의 물을 시속 27Km 속도로 즐길 수 있다.

용인 지역 ‘코리아 CC 골프장’ 옆에 위치한 기흥점의 특징을 살려 골프 상품군을 대거 확충했다. 668㎡(202평) 규모의 골프 용품 전문 매장 ‘골프존 마켓’에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300인치 커브드 와이드 스크린이 설치된 ‘스크린골프룸’이 있어 골프 시타와 함께 전문가에게 원포인트 레슨을 받을 수 있다.

1층 실외에는 660㎡(200평) 규모의 대형반려동물 놀이터인 ‘펫파크’가 들어선다. 반려견과 함께 쉴 수 있는 시설 및 휴게공간을 마련해, 반려동물과 함께 방문한 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밖에 아시아 최대 나이키 매장, 유통사 최초 해외 캠핑용품 직수입 전문샵과 중고서적 전문브랜드 예스24 운영한다. 아이가 있는 3040대 패밀리 고객이 많은 것에 착안해 유/아동 콘텐츠도 차별화했다. 아울렛 최대 37개 유아동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롯데가 약 8억을 투자해 직접 만든 ‘숲 모험 놀이터’가 있다. 바닥 전체에 우레탄을 깔아 안전성을 더하고 대형 인공트리/그물 놀이시설을 설치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다.

기흥점은 기존 아울렛보다 50% 가량 휴식 공간을 늘려 쇼핑과 함께 가족들과 일상의 소중한 가치를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정문에 들어서면 유럽 정원 양식의 돔 조형물인 ‘로툰다’를 설치한 광장이 넓게 펼쳐져 동화 속에 온 듯한 감성을 느낄 수 있다. 지하 2층 외부에는 동화 속 피노키오 조형물을 설치했고, 1층 외부에는 분수쇼를 즐길 수 있는 ‘샤롯데가든’이 있다. 고객에게 다양한 시각적 즐거움을 주기 위함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 신탁재산 임의운용 등 위반 무더기 적발

은행·보험·증권사 합동검사

금감원, 과태료 부과 등 제재키로

신탁업을 영위하는 은행·보험·증권회사 등에 대한 합동검사 결과 같은 신탁 상품에 가입했음에도 수수료를 30배 가까이 차별 부과하거나 고객과 계약한 방법과 다르게 신탁재산을 임의로 운용하는 등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당국은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검토하고 신분제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 조치를 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은행 4곳(신한·IBK 기업·KB국민·NH농협은행)과 증권사 3곳(삼성·교보·IBK투자증권), 보험사 1곳(미래에셋생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22일부터 9월 18일까지 합동검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올해 초 조직개편에 따른 기능별 영업행위 감독의 일환으로 금융권역 간 신탁 상품의 판매, 운용에 대한 검사 사각지대와 규제차익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검사 결과 신탁상품 판매, 신탁재산 운용, 신탁 보수 등 세 개 부분에서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메트로신문

신탁상품 판매 부문에서는 금융회사들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신탁상품을 홍보하고, 별도의 판매자격을 갖추지 않은 직원들이 신탁 상품을 권유 또는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험 등급의 주가연계형 특정금전신탁(ELT) 등 고객의 투자 성향에 맞지 않는 상품을 판매할 때 고객에게 확인을 받아야 함에도 투자 부적정 사실을 고지하지 않거나 확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또 신탁계약 체결 시 운용대상 상품의 종류와 비중 등에 대해 고객으로부터 자필 기재를 받지 않거나 신탁상품을 투자 권유하면서 상품의 위험요인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한편 합동검사 대상 중 유일한 보험사인 미래에셋생명은 위반사례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희주 기자 hj89@

## ‘삼성전자의 상생’ 2차 협력사에도 인센티브

DS부문 89개사 대상 43.2억 지급 1차 업체에 654억 등 최대 897억

삼성전자가 동반성장을 위해 지금까지 1차 우수 협력사에 지급해온 인센티브를 처음으로 2차 우수 협력사까지 확대했다고 5일 밝혔다.

삼성전자는 DS부문 상주 2차 협력업체 89개사를 대상으로 43억200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1차 우수 협력업체 140여개사에 654억원을 지급했다. 여기

에 1, 2차 우수 업체 추가선정과 지급기준 확대를 통한 100억~200억원 증액을 감안하면, 협력사 인센티브는 최대 897억원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협력사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된 2010년 이후 삼성전자가 협력사에 지급한 인센티브 누적 총액은 총 3124억원에 이른다.

한편 삼성전자는 임직원들에게 사업부별 성과에 따라 기본급의 100~500%를 특별 상여로 지급하고, 특히 사내 상주 협력사 임직원에게도 특별 상여를 지급하기로 했다.

/구서운 기자 yuni2514@

## 고화질 컬러영상 10분마다 지상 전달

>> 1면 ‘천리안 2A호...’서 계속

천리안위성 2A호는 앞으로 약 2주간 자체 추력기를 이용해 목표치인 고도 3만6000km로 접근을 시도한다. 정지궤도에 자리를 잡은 후에는 6개월여 시험을 거친다.

본격적인 기상 관측 서비스는 내년 7월 개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천리안위성 1호

보다 해상도가 4배 높은 고화질 컬러 영상을 10분마다 지상에 전달하게 된다.

기상청은 천리안2A호가 보낸 컬러영상을 통해 기상분석 정확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름과 산불연기 및 황사를 구분할 수 있고, 태풍 중심위 추적도 가능해지면서다. 국지성 집중호우도 최소 2시간 전에는 탐지해낼 수 있게 된다.

국내 최초 우주기상 관측 서비스는 국내 우주기상 감시와 관련 연구에 기여할 전망이다.

천리안2A호는 국내에서 개발한 우주 기상탐재체로 태양 흑점 폭발과 지자기 폭풍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원호 과기정통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은 “국민에게 더욱 정확한 기상서비스뿐 아니라 산불 황사, 오존 등 국민 생활과 안전 제고에 필수적인 정보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



중소기업 대표 141명이 직접 매긴 첫 중기부 수장의 성적표는?

# “노동현안 대응 미흡, 수호천사 역할 못해” 53점 낙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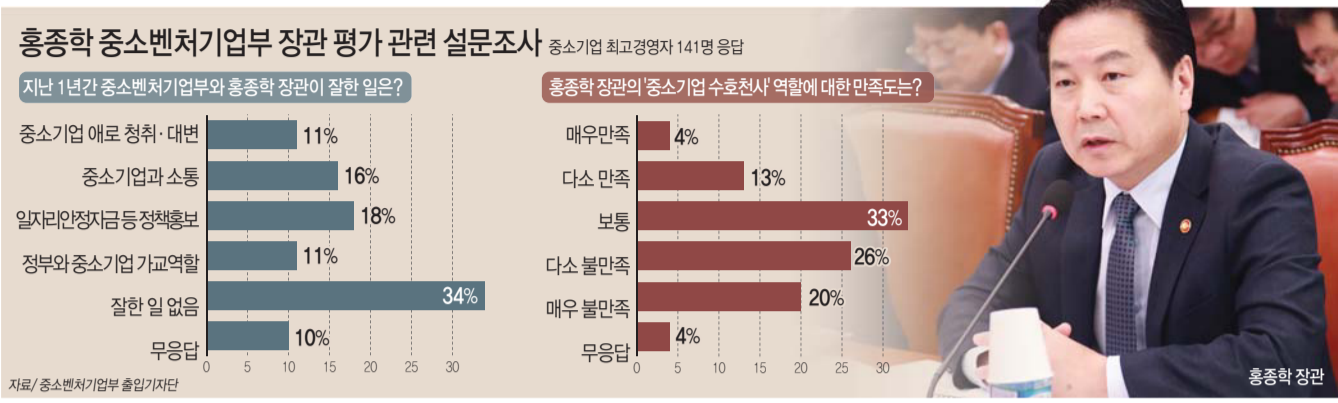
중기부 정책 관련 설문조사 실시  
응답자 46%가 ‘불만족’ 나타내

중소기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이 홍중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53점을 줬다. 사실상 낙제점이다. 현 정부의 첫 중기부 수장인 홍 장관은 지난해 11월 말 취임했다.

또 10명중 5명 가량은 홍 장관이 취임하면서 약속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 역할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 출입기자단이 중소기업업계 CEO 141명을 대상으로 취임 1년을 맞은 홍 장관과 현 정부 들어 장관급으로 격상된 중기부의 정책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 5일 내놓은 결과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141명 가운데 112명이 업무수행 만족도에 대한 점수를 부여했고, 점수는 최저 0점부터 최고 95점까지 다양했다. 이 중 50점과 70점이 21명,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60점(15명), 30점(13명), 40점(11명)도 10명



이상이었다. 평균은 53점으로 집계됐다. 홍 장관은 취임하면서 중소기업의 수호천사가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설문조사에선 26%가 ‘다소 불만족’, 20%가 ‘매우 불만족’하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46%가 ‘불만족’을 나타낸 것이다. 33%는 ‘보통’이라고 답했다. ‘다소 만족’과 ‘매우 만족’은 각각 13%, 4%였다.

지난 1년간 중기부와 초대 수장인 홍 장관이 ‘가장 잘한 일’을 묻는 질문에는 가장 많은 34%가 ‘잘한 일 없음’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일자리안정자금 등 정책 홍보’(18%), ‘중소기업과 소통’(16%), ‘중소기업 애로 청취 및 대변’·‘정부정책과 중소기업의 가교역할’(11%)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홍 장관 취임 후 추진된 정책들이 중소기업 경제활동에 얼마나 기여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기여하지 않았다’(거의 미기여·전혀 미기여)가 46%로 가장 많았다. ‘보통’이라는 답변도 34%였다. 반면 ‘기여했다’(매우 기여·다소 기여)는 20%에 그쳤다.

중기부 출범이 중소기업 발전과 육성에 기여했다고 보는 항목으로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정책 추진’과 ‘중소기업계와 소통 원활’이 각각 10%로 가장 많이 꼽았다. 하지만 141명 응답자 중 64%가 관련 항목에 응답하지 않아 사실상 기여한 것이 많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 모습이다.

반면 ‘미흡하다고 보는 이유’에는 무응답률이 28%로 대조를 보였다. 미흡이유로는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노동현안 대응 미흡’이 39%로 가장 많았

다. 이외에 ‘중소기업을 위한 권익 대변 부족’과 ‘추진 정책들이 중소기업 지원책으로 보기 곤란’도 각각 13%, 12%였다.

‘중기부 출범 후 중소기업의 위상이 나아졌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엔 44%가 ‘보통’이라고 답했다. 이외에 ‘다소 악화’(18%), ‘매우 악화’(17%), ‘약간 개선’(16%), ‘매우 개선’(5%)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141명 가운데 44명이 주관적인 ‘중기부와 홍 장관에게 바라는 점’을 표기한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의 31%가 답한 것은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방증이다.

건의 내용에는 ▲중소기업과의 적극적인 소통 ▲현장의 목소리 청취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정책 실천 ▲중소기업 권익 대변 ▲소신있는 정책 집행 ▲소득주도성장 속도조절 ▲중소기업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대기업과의 격차 해소 ▲현장 중심정책 실천 ▲획기적인 규제 완화 등이 두루 포함됐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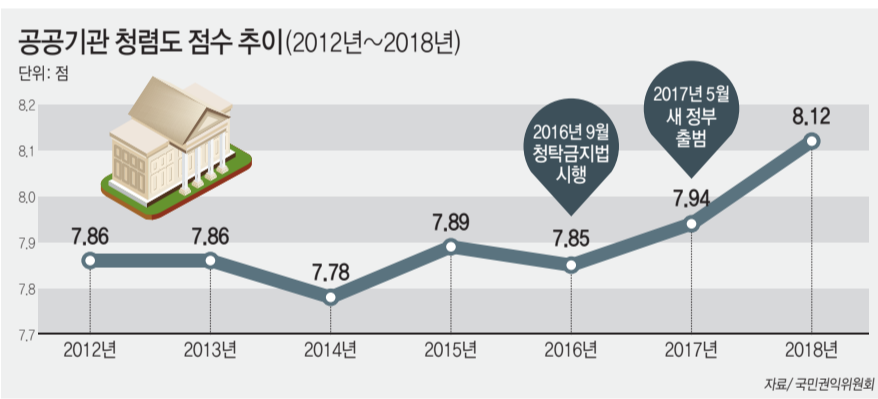
## 중기부, 강원랜드 급 청렴도... ‘5등급’ 최하위

국민권익위 ‘청렴도 측정결과’ 발표  
통계청·국민건강공단 등 1등급 받아

중소벤처기업부와 국세청, 강원랜드,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에서 최하위인 5등급을 받아 체면을 구겼다.

특히 중기부와 국세청은 지난해 3등급과 4등급에서 올해 5등급으로 추락했다. 선수선발 의혹 등이 끊이지 않는 대한체육회와 채용비리 문제가 컸던 강원랜드는 작년에도 5등급을 받았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오후 서울 KT 스퀘어에서 반부패 주간 기념식 열고 612개 공공기관에 대한 ‘2018년 청렴도



측정결과’를 발표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는 10점 만점에 평균 8.12점으로, 지난해 7.94점보다 0.18점 올랐고, 2016년(7.85점)부터 2년 연속 상승했다.

권익위는 기관 정원 등을 고려해 14개 유형을 나눈 뒤 각각의 유형에서 종합청렴도 점수에 따라 1~5등급을 부여했다.

기관유형별로 5등급을 받은 기관은 ▲

중소벤처기업부 ▲국세청 ▲강원랜드·중소기업은행 ▲한국가스기술공사·한국수출입은행·한국환경공단 ▲산림조합중앙회·부산공인시장진흥공단 ▲대한체육회·부산항만공사·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한국장학재단 등이다.

또 ▲한국과학창의재단·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해양수산연수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식품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한국해양과학기술원 ▲경기도시공사·경남개발공사·경상북도개발공사·서울디자인재단·서울특별시 농수산물공사도 5등급을 받았다.

기초단체 중에서는 ▲강릉시·원주시·양주시·경주시·구미시·문경시·영천시 ▲

고성군·횡성군·함양군·봉화군·울릉군·고흥군·완도군·장흥군 ▲광주광산구·대구 북구·부산 강서구·서울 광진구·서울 동작구가 5등급을 받았고, 광역지자체는 5등급이 없다.

서울시교육청·대전시교육청·광주시교육청도 5등급을 받았다.

올해 종합청렴도 1등급을 받은 기관은 통계청, 법제처,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부산광역시, 경남 사천시와 창원시, 전남 광양시, 충남 예산군과 충북 음성군,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감정원, 군인공제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다.

권익위는 “작년보다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 점수가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패 경험률이 줄고, 공공기관에 대한 부패인식이 전반적으로 개선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승호 기자

## 금감원, 무자본 M&A 기업 회계 점검

점검 때 위반혐의 발견시 감리 실시

감독당국이 무자본 인수합병(M&A) 추정기업에 대해 일제 점검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2018년 결산 전 무자본 M&A 추정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 규모 및 사용내역 등을 파악하고, 회계처리 반영내역 등을 일제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무자본 M&A 세력들은 사채업자 등에 상장사의 주식 및 경영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해 인수대금을 지급한다. 이후 사채업자는 추가 하락으로 담보가액이 하락하면 반대매매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 과정에서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 손실은 커질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무자본 M&A 세력들은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이후 회사 명의로 거액의 자금을 조달하고,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법으로 회사 자금을 유용하기도 했다.

실제 상장회사 A를 무자본으로 인수한 ‘갑’ 등(무자본 M&A 세력)은 전환사채

를 발행해 조달한 자금을 중속회사 B에 대여하고, 이를 다시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유용했다.

이번 점검은 상장사 공시정보 등을 활용해 무자본 M&A로 추정되는 기업을 선정해 집중 모니터링한다. ▲최대주주 등의 지분공시 등을 통해 외부차입으로 조달한 기업 ▲최대주주 변경 이후 유상증자,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을 통해 거액의 자금을 조달한 기업 ▲담보권자 등을 통해 대규모 반대매매가 발생한 기업 등이다.

이들에 대해 비상장주식 취득의 경우 고가취득 여부, 손상평가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한다. 대여, 선급금 지급의 경우 대여 및 지급 경위, 회사와의 특수관계 여부, 대손회계처리 적정성, 회수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과정에서 회계처리 위반 혐의가 발견됐거나 위반 가능성이 높은 회사에 대해서는 감리를 실시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

매일 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왕국

2018. 12. 14. ~ 2019. 1. 13.  
18:00 ~ 22:00 한국차문화공원 일원



# 보험사 일감몰기 규제... 소비자에 손해사정 선임권

**금융위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실손보험, 보험사 동의기준 완화  
일감몰아주기·불공정 관행 개선  
보험금산정 소비자불신 해소 도모



내년 상반기부터 보험계약자는 보험금 산정을 도와줄 손해사정사를 직접 선임할 수 있다. 특히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의 동의기준을 완화해 소비자의 손해사정사 선임권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보험금 산정과 관련한 소비자들의 불신감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 등을 담은 '보험권 손해사정 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손해사정은 손해와 손해액을 정확하게 확인·산정해 적절한 보험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현재 보험사는 서류 심사만으로 보험금

을 지급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손해사정을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보험사가 위탁업체 선정과 수수료 지급 시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하지 않아 보험사와 위탁업체 간 종속적인 관계가 형성됐고, 위탁업체가 보험사와의 이해관계를 우선시하면서 손해액을 과소 산정하거나 보험금 청구계획을 유

도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야기돼 왔다. 지난해 보험민원 중 보험금 산정지급 민원 건수는 1만733건(35.7%)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위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 계약자의 손해사정사 직접선임권을 강화한다.

이미 보험업법과 감독규정은 보험사가

동의하면 소비자가 손해사정을 선임할 수 있다는 규정이 마련돼 있지만 정작 보험사 내부규정이 없어 현실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사가 명확한 기준(내규)을 만들어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대한 동의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보험사는 자체 민원 소송 유발 사례와 외부 손해사정업체 평가기준 등을 분석해 동의기준을 마련하고, 보험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만약 보험사가 소비자의 손해사정 선임의사에 동의할 수 없다면 소비자가 해당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설명해줘야 한다.

특히 단독 실손보험의 경우 소비자가 선임권을 행사하면 보험사는 원칙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은 실제발생한 의료비를 보장하고, 병원

에서 진단서 등의 자료가 함께 청구되기 때문에 손해사정의 객관성이 담보돼 동의기준을 우선 확대적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금융위는 소비자가 손해사정업체를 직접비교 조회해 선임할 수 있도록 손해사정업체의 주요 경영정보에 대해 공시할 계획이다. 내년 1월부터 손해사정사회에 소속된 주요 손해사정업체의 경우 전문인력 보유현황, 경영실적, 징계현황 등의 정보를 통합해 시범 제공한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체계적으로 손해사정 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표준화된 손해사정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필요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보험사 중심의 손해사정 관행을 개선해 공정한 손해사정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손해사정 관련 권익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115@metroseoul.co.kr



'외국인근로자 전용 센터' 명동센터 개설을 기념해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왼쪽 여섯번째),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왼쪽 여덟번째), 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사진 왼쪽 일곱 번째), 우뚜라 땃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사진 왼쪽 다섯번째), 이영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왼쪽 두번째), 박지환 KEB하나은행 기업영업그룹 전무(왼쪽 첫번째)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KEB하나銀, 명동에 '외국인근로자 전용센터'

환전·외환송금·관광정보 '원스톱'

KEB하나은행은 서울 명동사옥 별관 1층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외국인근로자 전용센터'를 열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했다고 5일 밝혔다.

은행은 같은 건물에 위치한 '명동관광정보센터'와 협업을 통해 명동을 관광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이 손쉽게 방문해 관광정보와 더불어 환전 및 외환송금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KEB하나은행은 이번 '외국인근로자 전용센터'를 주로 지방 소도시와 공단지역에 근무하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대한 민국 서울 관광에 대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하고 전문 금융 서비스를 경험하는 복합 공간으로서 금융·문화의 랜드마크로 활성화할 계획이다.

센터 오픈식에는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을 비롯해 이재성 서울관광재단 대표, 라울 헤르난데즈 주한 필리핀 대사, 우뚜라 땃 우 마웅 주한 미얀마 대사 및 이영

의정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센터 개설을 축하했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서울의 중심인 명동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전용센터를 개설하게 돼 의미가 크다"며 "KEB하나은행은 외국인근로자가 가장 많이 거래하는 대한민국 대표 은행으로서 앞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새롭고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계속해 선보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KEB하나은행은 시중은행 최다인 19개 일요 영업점 운영을 비롯해 ▲외국인근로자 문화행사 지원 ▲한국어교실 지원 ▲각 국가 기념행사 및 커뮤니티 지원 ▲고국방문 및 가족초청 행사 ▲글로벌 나눔 콘서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금융업무에 최적화 된 양방향 번영 단말기를 내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영업점에 배치해 외국인근로자들의 수월한 금융업무를 돕는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김문호 기자 kmh@

## KB국민銀, '대한민국 최우수 PB은행' 수상

아시아뱅크 선정

KB국민은행은 지난 4일 글로벌 금융전문지인 아시아뱅크(The Asian Banker)지가 주관한 '아시아뱅크 프라이빗 웰스 어워드(The Asian Banker Private Wealth Awards) 2018'에서 '대한민국 최우수 프라이빗뱅크(PB)은행'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KB국민은행은 PB 브랜드인 골드앤와이즈(GOLD&WISE)를 내세워 '지혜로운 자산관리'라는 브랜드 철학 아래 전국적으로 21개 PB센터와 65개의 GOLD&WISE 라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 중 47개는 은행·증권 복합점포로 운영 중이며, 고객의 투자성향과 수요에 맞는 최적의 종합자산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안상미 기자

## '이자장사' 잘한 저축銀, 예대마진만 3조

(1~9월)

전년동기 대비 13.3% 증가  
가계대출 연체율 0.3%p ↑

올해 저축은행들의 이자이익이 3조원을 넘어섰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9월까지 79개 저축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51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6% 증가했다.

대출 확대에 이자이익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3% 늘어난 3조984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자산은 6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1.0% 증가했다. 대출금과 현금·예치금 및 보유 유가증권이 모두 늘었다.

자기자본은 7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10.8% 증가했다. 실적개선에 이익잉여금이 늘었고, 유상증자도 영향을 미쳤다.

지난 9월 말 기준 총여신 연체율은 4.6%로 지난해 말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4.5%로 지난해 말 대비 0.2%포인트 하락했다. 프로젝트과 이닝(PF)대출의 연체율이 크게 하락했다.

반면 가계대출 연체율은 4.7%로 지난해 말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가계신용대출과 주택담보대출이 모두 각각 0.5%포인트씩 높아졌다.

고정이여신비율은 5.2%로 지난해 말 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요적립액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률은

110.8%로 지난해 말 대비 5.8%포인트 하락했지만 모든 저축은행이 요적립액 100% 이상을 충족했다.

9월 말 기준 국제결제은행(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4.54%로 지난해 말 대비 0.24%포인트 상승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저축은행의 경영상황이 양호하지만 대내외 불안요인이 잠재하고 있어 저축은행의 선제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며 "잠재부실 증가에 대비한 내부유보 확대 등 건전성 제고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무분별한 고금리대출 취급 억제 및 금리산정체계 합리화 등을 위해 대출금리 산정체계 모범규준을 개정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 은행+편의점...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일산에 개점

NH농협은행 365일 연중무휴 운영

NH농협은행은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중앙로에 은행지점과 편의점을 결합한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특화점포인 주점지점을 개점했다고 밝혔다.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는 은행 365코너 공간과 편의점을 연결해 단순 금융서비스 뿐만 아니라 편의점 매장을 통해 주요 농산물 및 농가공식품을 구입할 수 있는 특화점포다. 은행과 편의점이 결합한 국내 첫 사례다.

하나로미니는 기존 편의점 판매품목에 더해 우리농산물을 판매하며, 스마트축산자판기를 운영하는 등 기존 편의점과



이대훈 NH농협은행장(왼쪽 네번째)과 농협 관계자들이 5일 경기도 일산에서 열린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 개점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차별화를 두고 있다. 은행지점 운영시간과는 관계없이 365일 연중무휴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된다.

이날 개점식에 참석한 이대훈 농협은

행장은 "하나로미니 인 브랜치는 농협 고유의 정체성이 반영된 점포로 향후 지역의 대표적인 명소로서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 '車·조선 상생 대출' 출시

신한은행은 오는 14일 '신한 두드림(Do Dream) 자동차·조선 상생 대출'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상품은 자동차·조선 부품업체를 대

상으로 신속한 유동성 자금을 지원한다.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우대보증 발급을 통해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총 2200억원이다.

최근 중소자동차 부품업체는 완성차업체의 수출부진, 내수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선 부품업체도 오랜 불황에 따른 신용도 하락, 대출한도 초과로 금

융조달이 쉽지 않아 일자리 창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신한은행은 보증료 출연을 통해 보증료 연 0.5%포인트를 3년간 지원한다. 보증기관 보증료 우대 0.3%포인트를 추가할 경우 관련 업체들에게 최대 연 0.8%포인트의 보증료 우대 혜택이 적용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 LS산전, 북미 최대 에너지저장사 인수... '글로벌 No.1'

(파커하니핀)

(산업용ESS)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시장 공략  
양사 공급실적 700MW 규모 보유  
신제품 개발 등 북미 시장 확대



LS산전과 LS Energy Solutions 양사 관계자들이 새로 설립된 LS Energy Solutions CI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LS산전

LS산전이 ESS(에너지저장장치) 분야 북미 최대 기업인 파커 하니핀(Parker Hannifin)의 EGT(에너지그리드타이) 사업부를 품고 글로벌 스마트에너지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LS산전은 최근 글로벌 ESS 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파커 하니핀 EGT 사업부의 생산 설비·인력 등 유무형 자산 일체를 인수하는 영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 LS산전의 북미 법인 산하 자회사인 LS Energy Solutions(에너지솔루션스)가 출범했다고 5일 밝혔다.

파커 하니핀의 EGT 사업부는 지난 2007년 ESS 사업을 시작했다. 글로벌 수준의 ESS 시스템 및 PCS 설계, 제조, 구축, 서비스 등 핵심 기술력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북미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 중남미, 호주,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에 빠르게 진출해 누적 공급실적이 400MW(PCS 기준)를 넘어서는 등 북미 최대 ESS 공급업체로 자리매김 했다.

LS산전은 이번 인수로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샬럿에 LS에너지솔루션스를

북미 법인산하 자회사 형태로 출범시켰다. 이에 따라 기존에 양사가 보유한 글로벌 최고 수준의 제품, 기술역량이 결합된 ESS를 비롯한 스마트에너지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하고 글로벌 시장 확대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LS산전은 이번 손자회사 설립을 통해 양사 누적 공급실적 700MW 수준으로 산업용(유틸리티, C&I) ESS 시장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레퍼런스를 보유하게 됐다.

한국과 미국, 아시아, 중남미, 유럽, 호주 등 글로벌 영업 네트워크와 생산, R&D 시설 및 인력도 공유할 수 있게 돼 전략 신제품 개발, 생산 역량 강화를 통해 북미를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

구자균 LS산전 CEO 회장은 "이번 인수로 LS산전의 혁신적 스마트에너지 기술 역량이 LS에너지솔루션스의 고객 기반과 기술 노하우에 더해져 세계 시장 공략의 전초기지를 확보하게 됐다"며 "우선적으로 글로벌 전략 지역인 북미 시장에서 가시적 사업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2030년까지 설치될 ESS 누적 용량은 약 125GW로 2016년 대비 약 66배 이상 증가하고 한국과 미국, 중국 등 8개국이 전체 설치 용량의 약 7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선제적 투자를 통해

해 시장 선점은 물론 향후 산업 트렌드를 주도하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되는 것이 장기적인 목표"라고 덧붙였다.

신재생에너지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생산과 공급 변동성이 크다는 약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 전력 생산량이 많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이를 꺼내 쓸 수 있는 ESS 연계가 필수다.

한편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ESS 시장 역사가 빠른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는 지난해 '글로벌 에너지저장 전망'을 통해 2016년부터 2030년까지 ESS 시장에 103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2019년 세계 ESS 시장 규모는 올해보다 40% 성장한 17GWh(배터리 기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ESS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시장은 2016년 16억달러에서 2025년 184억 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SKT T맵 운전습관으로 68만명 보험료 할인

운전자 과속·급가속·급감속 수치화

SK텔레콤은 운전자의 주행 습관을 보여주는 'T맵 운전습관'으로 운전자 보험 할인 혜택을 받은 고객이 약 68만 명에 달한다고 5일 밝혔다.

'T맵 운전습관'은 운전자의 ▲과속 ▲급가속 ▲급감속 등 운행 데이터를 기반으로 100점 기준으로 수치화한 것이다. 기준 점수를 넘기면 운전자 보험료를 최대 1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T맵과 연계해 운전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UBI(운전습관연계보험) 상품'을 2016년 5월 국내 최초로 선보였고, 현재까지 약 68만 명의 T맵 고객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았다.

UBI 상품에 가입한 T맵 고객은 연간 평균 6만원 저렴하게 운전자 보험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가입 고객 전체로 추산하면 총 408억원에 달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SK텔레콤은 DB손해보험을 시작으로 지난해 12월 KB손해보험, 2018년 11월 삼성화재와 UBI 상품을 출시했다. 3개 보험사의 운전자 보험 시장 점유율은 60% 이상이다.



모델이 SK텔레콤의 'T맵 운전습관'을 이용하고 있다. /SK텔레콤

향후 SK텔레콤은 'T맵 운전습관 점수'를 활용해 안전운전 캠페인을 실시하면서, 보험 외 은행, 렌터카, 중고차 업체 등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T맵 운전습관'을 이용하는 가입자는 매달 증가하고 있다. 올 1월에 'T맵 운전습관' 이용자는 약 726만명이었으나, 이달 중 1000만 이용자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11월 말 기준 이용자는 972만명이다.

'T맵 운전습관' 사용자들의 '운전 점수'도 높아졌다. 'T맵 운전습관'을 이용하는 고객은 최근 3000km 주행거리를 기준으로 과속, 급감속, 급가속 등 주행 행태와 도로유형, 주행 시간대를 반영해 100점 만점으로 '운전 점수'를 확인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 시각장애인 위한 'AI가 읽어주는 도서관'

LGU+ '상남도서관' 서비스 출시

시각·지체·지적장애인 무료 제공

LG유플러스는 LG상남도서관과 함께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도서를 제공하는 인공지능(AI) 서비스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6일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은 네이버 인공지능 플랫폼 클로바가 적용된 스마트홈 서비스 'U+우리집AI'에서 LG상남도서관이 보유한 1만권 이상의 음성도서를 말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고객들은 클로바 플랫폼이 탑재된 AI 스피커에 "클로바, LG상남도서관 시작해줘"라고 말하면 소설, 인문, 수필, 예술 등 도서 콘텐츠를 바로 들을 수 있다.

음성명령으로 제목, 저자, 출판사, 부제목 등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고, 사용자가 들었던 5개의 콘텐츠에 대해 재생목록을 관리해 이어 들기도 할 수 있다.

책 읽어주는 도서관 서비스에는 매달 30여권, 연간 총 400여권 이상의 신간도



모델들이 시각장애인 전용 음성도서를 제공하는 AI서비스인 '책 읽어주는 도서관'을 소개하고 있다. /LG유플러스

서가 추가된다. 이 서비스는 모든 시각장애인(1~6급)에게 무료로 제공된다. 또 책을 직접 넘기기 어려운 지체·지적·뇌병변 장애인(1급~3급)도 편의 제공을 위해 무료 이용이 가능토록 했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책 읽어주는 도서관 사이트에서 회원 가입 후 '네이버 클로바' 앱의 '스킬 스토어' 메뉴에서 로그인을 하면 된다.

향후 LG유플러스와 LG상남도서관은 음성도서 콘텐츠를 추가 확보하고, AI 스

피커 외에 다른 플랫폼으로도 서비스를 확장하는 등 시각장애인들의 정보격차 문제 해소에 양사의 협력을 지속해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음성 AI뿐만 아니라 영상 AI를 활용한 시각장애인 전용 서비스를 선보인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지난 9월 시각장애인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서비스인 '소리세상'을 출시하고, 2월과 5월에는 시각장애 가정 1000가구에 AI스피커를 보급했다. /김나인 기자 silkini@

## 포스코강판, 고급 컬러강판 전용공장 증설

포스코강판이 고급 컬러강판 전용 공장을 증설하고 수익성 개선에 드라이브를 건다. 컬러강판은 고부가가치 철강재로 철강업계가 주목하고 있다.

포스코강판은 5일 포항시 괴동동에 위치한 컬러공장에서 하대용 포스코강판 사장, 이강덕 포항시장, 오형수 포스코포항제철소장, 고객사, 공급사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산 6만톤 규모의 4컬러강판공장 준공식을 가졌다.

이번에 준공한 4컬러강판공장에서는 용융아연도금강판과 스테인리스제품 등에 다양한 컬러를 입혀서 가전용, 전자제품용 제품을 생산한다.

이 공장은 4번의 코팅과 건조, 6번의 인

쇄를 거쳐 자연에 가까운 색상과 사실적인 질감을 보여준다. 특히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발생하지 않는 도료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이고 물체의 윤곽이 뚜렷하게 비치는 선명성과 광택이 뛰어난 UV(자외선) 경화제품을 생산하여 프리미엄 가전제품과 실내 장식용 건축자재로까지 사용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1600mm의 넓은 폭과 3mm의 두꺼운 두께를 가진 컬러강판 제품도 생산 가능해 고객사에서 원하는 규격 조건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게 돼 대형 오피스건물 패널, 가드레일, 토목용 파형강판 등의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운 기자

## 쌍용차, 호주에 첫 직영 판매법인 출범

쌍용자동차가 호주에서 사상 첫 직영 해외판매법인을 출범하며 글로벌 판매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5일 쌍용차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과 30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크라운 메트로폴 호텔에서 쌍용차 예비대 부사장, 김성호 주멜버른 총영사, 팀 스미스 호주법인장, 현지대리점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쌍용차 브랜드 론칭행사를 가졌다.

행사를 통해 쌍용차는 티볼리, 티볼리에어(현지명 XLV), G4렉스턴(현지명 렉스턴), 렉스턴 스포츠(현지명 무쏘)를 소개하고 호주시장 사업 비전을 공유했

며, 참석자들은 쌍용차 사상 첫 직영 해외 판매법인인 호주법인의 출범을 축하하고 SUV 전문브랜드 쌍용차의 성공적인 호주시장 안착을 기원했다.

쌍용차는 공식적인 법인 출범에 앞서 지난 7월 호주 현지 기자단이 평택공장을 방문해 쌍용자동차의 호주시장 진출에 큰 기대감을 나타낸 만큼, 조만간 현지 언론을 별도로 초청해 미디어 브랜드 론칭 행사 및 대규모 시승 행사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법인이 위치한 멜버른 메트로 지역, 시드니, 중소도시 등 3단계에 걸쳐 판매 네트워크를 확충하고 브랜드 인지도 확



쌍용자동차 예비대 부사장이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호주 멜버른 크라운 메트로폴 호텔에서 쌍용자동차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열린 브랜드 론칭 행사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보 및 신뢰 구축을 위해 스포츠행사 스폰서십, 사회공헌 프로그램 등 적극적인 현지 마케팅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 이보다 더 싸순 없다! K5 150만, 임팔라 630만원 할인

## 12월은 차량 구매 최적기

초저금리 할부, 조기구매 할인 등 완성차 업체, 연말 프로모션 풍성

현대자동차의 팰리세이드와 G90, 한국지엠의 말리부(페이스리프트) 등 신형 모델이 출시되면서 올 하반기 자동차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이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은 신형 모델과 경쟁과 구형 재고분을 처리하기 위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내놓고 고객잡기에 나선다. 특히 정부의 개별소비세 인하(5%→3.5%) 효과와 통큰 할인으로 막판 판매량을 끌어 올린다는 전략이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를 비롯해 국내 5개 완성차 업체는 저금리 할부 프로그램과 일부 모델들에 한해 구매 가격을 대폭 낮춰주는 프로그램 진행한다.

현대차는 자사 승용차와 RV(레저용 차량) 전차종에 1.5% 할인, 1.5% 저금리,

기아차 '2019년형 K7'.



1.5% 개별소비세(개소세) 인하분을 묶은 '트리플 기프트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프로모션 적용 대상은 9월 이전 생산된 차량으로 제한한다. 제네시스 브랜드와 EV, 넥소, 투싼은 포함되지 않는다

조기출고 우대조건도 있다. 이번달 11일까지 출고되는 차량은 10만원 할인된다. 12일부터 24일까지 출고되는 차는 5만원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 수입차나 제네시스 차량을 보유한 고객이 차량을 팔고 제네시스 브랜드를 구매할 경우 100만원 할인과 100만원 캐시백을 합쳐 총 200만원을 지원하는 '트레이드인 프로그

램'도 운영한다.

현대차는 연말 공식 출시를 앞둔 대형 SUV 팰리세이드 판촉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0일까지 사전계약을 이용하면 내년 인도받아도 개별소비세 인상 전 가격을 보장한다.

기아차는 모닝과 K5, K7의 12월 출고 고객을 대상으로 조기구매 할인, 초저금리 특별혜택, 사은품 증정 등 3개 혜택 중 하나를 제공한다. 조기구매 할인을 이용하면 모닝은 50만~70만원, K5는 130만~150만원, K7은 70만원을 각각 할인받을 수 있다.

초저금리 할부를 선택하면 모닝은 0.1% 초저금리와 40만원 할인이 제공된다. K5·K7 구매 고객에게는 0.1% 초저금리, 120만원 할인 조건이 적용된다.

한국지엠은 주력 판매 모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의 연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메리 쉐비 페스타'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스파크 최대 270만원, 트랙스 최대 340만원, 말리부 최대 560만원, 임팔라 최대 630만원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쌍용차는 코란도 투리스모를 최대 390만원 할인해 주는 12월 구매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달에 쌍용차를 구매하면 일부 모델에 한해 최대 티볼리 브랜드 200만원, G4 렉스턴 360만원, 코란도 C 390만원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오는 14일까지 구매 고객은 전 모델 10만원(렉스턴 스포츠 제외) 할인해 주는 얼리버드 혜택을 추가로 누릴 수 있다.

쌍용차는 G4 렉스턴 고객들의 구매 부담을 최소화하는 스페셜 유예할부 프로그램 G4 부담제로할부를 운영한다. 6~48

개월, 유예율 0~80% 범위에서 할부기간 및 유예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선수율 10% 이상)

르노삼성은 신차 구매 고객들을 대상으로 개별소비세 추가 지원, 저금리 금융상품을 포함한 특별 할인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르노삼성은 '굿바이 프로모션'을 통해 SM6를 비롯한 전 차종(마스터, 전기차 제외) 구매 시 개별소비세 0% 추가 지원, V7 내비게이션, S-Link 패키지 등 추가 옵션 중 한 가지를 선택 제공한다.

'개별소비세 0%'는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인하한 개별소비세 3.5%에 해당하는 금액(차종·트립별 차량 기본가격 기준)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이다.

차종별로 SM6 70만~100만원, QM6 75만~110만원, QM3 70만~80만원, SM7 80만~115만원(19년형 선택 시 35만원 추가 중복 할인), SM5 60만~70만원, SM3 45만~60만원, 르노 클리오 60만~70만원의 할인이 제공된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현대차 그랜저택시 100만km 무고장 기록

성능·엔진 내구성 입증

현대자동차의 그랜저 택시가 100만km 무고장 주행 기록을 세우며 성능과 내구성을 인정받았다.

현대차는 현대차 영동대로 사옥에서 그랜저 택시 100만km 무고장 주행을 달성한 김은수 고객을 초청해 '그랜저 택시 100만km 달성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1998년부터 택시 운행을 시작한 김은수 씨는 10년 전인 2008년 그랜저(TG) 택시를 구매했으며, 10년간 운행일 하루 평균 400km씩 주행한 결과 지난 11월 16일 주행 거리 100만km를 달성했다.

10년간 하루 평균 15시간의 장시간 운행에도 김은수 고객의 그랜저 택시는 잔고장 없이 100만km를 주행했다.

특히 차량 핵심 부품인 엔진과 변속기가 교체 흔적 없이 신차 출고 당시의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랜저 택시는 이번 '100만km 무고장 주행 달성'을



허병길 현대차 판매사업부장(왼쪽)이 김은수 씨에게 감사패와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다.

통해 우수한 성능과 엔진 내구성을 입증 받았다.

현대차는 김은수 씨에게 '100만km 무고장 주행 달성' 감사패와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김은수 씨는 신형 그랜저 택시 모델로 차량 교체를 결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

## 폴크스바겐 '아테온' 본격 판매 돌입

개소세 적용 가격 5200만원부터

폴크스바겐 코리아는 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디 아테온(The Art:eon)'에서 프리미엄 세단 아테온을 선보이고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

'아트(Art)'와 영겁의 시간을 뜻하는 '이온(eon)'을 합성해 만든 '아테온'은 브랜드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세단으로 꼽힌다. 아테온은 스포츠카와 같은 외관으로 우아하면서 역동적인 느낌을 강조했다. 수평 라인 라디에이터 그릴은 차체를 감싸는 캐릭터라인과 조화를 이뤄 강렬한 인상이 구현됐다.

아테온의 휠베이스는 2840mm, 뒷좌석 레그룸 1016mm, 헤드룸 940mm 수준으로 성인남성 3명이 타기에 충분하다. 63L의 트렁크 공간은 뒷좌석을 접을 경우 1557L로 넓어진다.

파워트레인은 2.0리터 TDI 디젤 엔진



폴크스바겐이 5일 출시한 '아테온' /폴크스바겐 코리아

과 7단 듀얼클러치변속기(DSG)가 조합됐다. 국내 판매 트림은 전륜구동 기반 '엘레강스프리미엄'과 '엘레강스프레스티지' 등 2가지로 구성됐다. 가격(개별소비세 인하분 적용)은 각각 5216만8000원, 5711만1000원으로 책정됐다.

연비는 복합 기준 리터당 15.0km(도심 13.6km/l, 고속도로 17.2km/l)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25g/km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

www.pdna.co.kr

*It's Magic!*

**P+DNA**

**"다시 어린 피부"**  
크리스마스엔 DNA 마법을 선물하세요

바다 송어의 DNA에너지를 담은 피디엔에이 크림&세럼  
바다 송어의 물산 보습, 원초적 탄력으로 메마르고 지친 피부를 지켜주세요. 바다 송어에서 추출한 소동 DNA, 주름개선 기능성 성분인 아데노신 등 풍부한 피부보호 성분이 안티에이징을 동시에 관리해줍니다.

겨울에도 눈부신 봄 피부, 사랑하는 이에게 선물하세요  
사랑하는 부모님, 아내, 남편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 본 적 없었나요? 가장 사랑하고 사랑받던 시간, 아름답게 빛나던 그때의 얼굴을 다시 한 번 선물해보세요. 아름다운 변화, P+DNA 크림과 세럼이 함께 합니다.



**P+DNA** MFDS 식약처 기능성 보고 완료  
주름개선 기능성 화장품

구입문의 고객상담센터 **070-4870-0708**



**One  
Shinhan**  
고객을 위한 하나의 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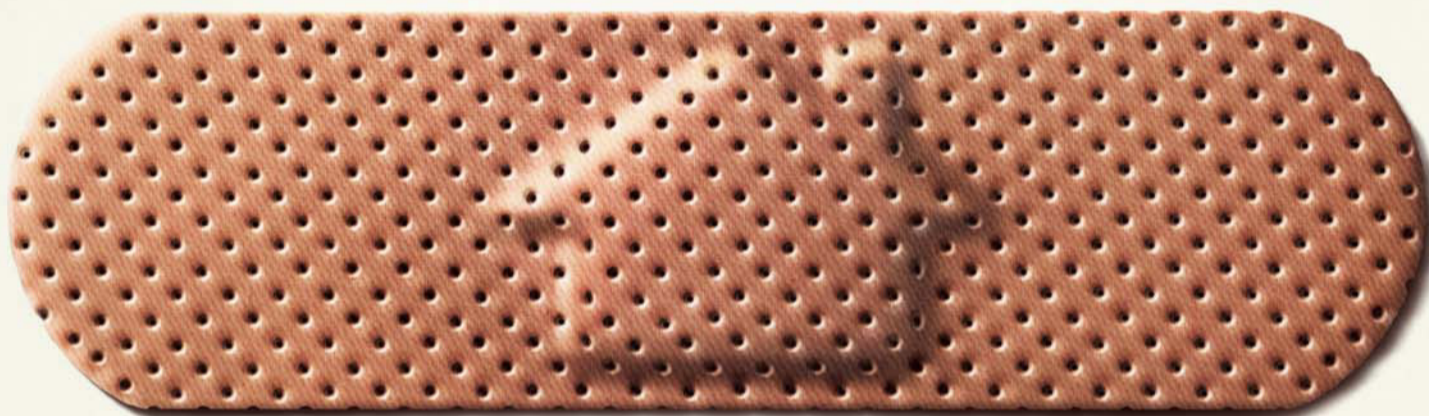


# 희망이 돌아옵니다

이웃의 상처가 아물고  
용기의 새살이 돋도록  
신한이 희망을 전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희망이 되는 일이라면

# Hope. Together.



**[위기가정 재기지원 사업]**

신한금융그룹은 굿네이버스와 협력하며  
어려운 가정에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 신한카드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신한캐피탈 제주은행  
신한저축은행 신한DS 신한아이타스 신한신용정보 신한대체투자운용 신한리츠운용

미래를 함께 하는 따뜻한 금융  **신한금융그룹**



증권 다이제스트



한화투자증권

STEPS 모의투자 성과공유

한화투자증권은 지난 4일 경희대 국제학과 학생들과 함께 'STEPS 모의투자 성과 및 전략 발표회'와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희대 국제학과 학생 100여 명이 참여했으며, 지난 6주간 STEPS로 진행된 모의투자 대회를 마무리하며 그 성과를 공유하고, STEPS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한화투자증권 권희백 대표이사는 행사에 직접 참석해 모의투자 대회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학생 2명에게 동계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경희대 국제학과 이젠마 교수는 "주식을 잘 모르는 학생들도 STEPS를 이용해 투자를 쉽게 경험해 볼 수 있었다. 모의투자를 계기로 학생들이 경제 및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문호 기자



키움증권

예상수익률 9.35% DLS

키움증권은 글로벌 주가와 유가가 연계된 기타과생결합증권(DLS)을 출시한다고 5일 밝혔다. 키움증권 제83회 DLS는 유로스톡스 50(EUROSTOXX50)지수, 홍콩恒生중국기업(HSCEI)지수, 서부텍사스산원유(WTI)선물가격을 기초자산으로 하며, 예상수익률은 세전 연 9.35%이다. 만기는 3년이며,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 기준가격의 90%(6·12개월), 85%(18·24개월), 80%(30개월), 70%(36개월) 이상이면 세전 연 9.35%의 수익률로 조기 또는 만기상환된다. 조기상환이 되지 않더라도, 투자기간 동안 모든 기초자산이 최초기준가격의 50% 미만으로 하락한 적이 없다면 세전 28.05%(연 9.35%) 수익률로 만기 상환된다. 청약마감일은 오는 7일 오후 1시까지다. /손영기 기자

신한금융투자

연말 해외선물 이벤트

신한금융투자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연말 해외선물 이벤트를 실시한다. 오는 3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해외선물 이벤트는 싱가포르 거래소에 상장된 해외선물 종목을 30계약 이상 거래한 고객 선착순 50명에게 영화티켓 2매 + 팝콘 패키지를 제공하는 이벤트다. 이벤트 대상 종목에는 최근 들어 국내투자자들이 관심이 높아진 FTSE China A50 선물지수, 닛케이(Nikkei) 225, MSCI 차이나(China), 타이완, 싱가포르, 원·달러, 인도 루피·달러, 중국 위안·달러 등이다. /김문호 기자

# 증시 찬바람에도... 공모주 13% 짹짹한 수익

시초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 에스엔케이 등 연내 14곳 상장 공모주투자자 옥석 가리기 나서

(12월 IPO 주요기업 공모개요)

종목명	확정/희망공모가(원)	공모금액(백만원)	예상시가총액(십억원)	총공모주식수	공모후주식수	보호예수비율
에스엔케이	34,300~46,800	192,080	770.8~1051.7	5,600,000	22,472,800	71.00%
에이비엘바이오	13,000~17,000	78,000	579.6~758.0	6,000,000	44,587,000	48.98%
위지웍스튜디오	9,000~13,000	19,796	79.2~114.4	2,199,515	8,798,060	52.29%
에어부산	3,600~4,000	18,745	187.5~208.3	5,207,000	52,070,000	46.38%

[자료=유진투자증권]

11월 증시 부진 속에서도 공모주는 13%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 12월에도 14개 기업이 상장을 기다리고 있는 만큼 공모주 투자자들의 관심이 뜨겁다. 다만 시초가 대비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일찍이 '옥석'을 골라 공모에 참여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 12월 상장사 중에서는 에이비엘바이오, 에어부산 등이 기대주로 꼽힌다. 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신규 상장한 18개(스펙, 코넥스 제외) 기업의 11월 수익률은 13.1%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가 대비 11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출했다. 11월 코스닥 수익률(7.3%)을 웃도는 수준이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평균 20.3% 높은 수준에서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초가는 상장 기업의 첫 거래 개시일 한 시간 전부터 시가 단입가 방식으로 신청을 받은 뒤 체결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격으로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공모가보다 높은 가격이라도 주식을 매입하고 싶은 수

요가 많으면 시초가가 높게 형성된다. 다만 시초가 대비 11월 30일 종가 기준 수익률은 마이너스(-) 6.1%를 기록했다. 시초가가 과열된 종목을 중심으로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공모가보다 2배 높은 가격에 시초가를 형성한 디자인은 시초가 대비 11월 수익률이 -39.1%를 기록했다. 엘엔씨바이오 시초가는 공모가보다 24.2% 높은 2만9800원이었지만 11월 30일 종가는 1만8850원으로 36.7% 하락했다. 노바렉스 역시 공모가 대비 시초가 수익률은 34%였지만 11월 수익률은 -32.8%를 기록했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11월은 시초가 매입보다 공모 후 매도 전략이 유효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2월 공모주에 참여하려는 수요가 커지고 있다. 12월 기업공개(IPO)를 준비하고 있는 기업은 총 14개(스펙제외)다.

먼저 시장의 주목을 받는 기업은 에이비엘바이오다. 회사는 설립 2년여 만에 5개의 기술이전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빠른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 오는 6, 7일 수요예측을 통해 공모가(1만3000원~1만7000원)를 확정하고 12, 13일 공모청약을 진행한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오는 11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진행하는 비피도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 높다. 비피도는 인체유래 비피도박테리움(Bifidobacterium) 연구 및 제조, 세컨드 계층으로 불리는 마이크로바이옴 관련 미생물·유전체 분석과 제품 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다. 오는 17, 18일 공모청약을 실시한다. 상장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일본 게임업체 에스엔케이(SNK)는 올해 상장사 중 공모규모가 가장 크다. 공모가 최상단(만6800원)기준 2621억원

의 자금을 조달할 계획이다. 에스엔케이는 '더 킹 오브 파이터즈(The King of Fighters·KOF)', '메탈 슬러그(Metal Slug)', '사무라이 스피리츠(Samurai Sprits)' 등 1990년대 오락실에서 크게 흥행한 아케이드 게임 지적재산권(IP)을 보유하고 있어 안정적인 라이선스 수익구조가 장점이다. 청약일은 10일부터 이틀간 진행되고,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공동으로 상장을 주관한다. 올해 마지막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앞두고 있는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은 이달 13일부터 이틀간 수요예측을 진행한다. 에어부산의 최대주주는 아시아나항공(지분 46%)이다. 수요예측에서 공모가(3600원~4000원)를 확정하고 이달 18일부터 청약은 받는다. NH투자증권과 미래에셋대우가 공동 대표주관사를 맡았고, 공동 주관사는 BNK투자증권이다. /손영기 기자 sonumji301@metroseoul.co.kr

## 차세대 항체 신약 플랫폼 기업 "암 치료 초석될 것"

IPO간담회

에이비엘바이오

내일까지 수요예측, 공모가 확정 11일·12일 청약 실시... 19일 상장 글로벌 기업과 '라이선스아웃' 5건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

바이오 의약품 연구개발 전문기업 에이비엘바이오가 이달 중순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다. 에이비엘바이오는 5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6, 7일 수요예측을 거쳐 공모가(1만3000원~1만7000원)를 확정하고 11, 12일 청약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장은 이달 19일로 예정돼 있다. 지난 2016년 설립된 에이비엘바이오는 차세대 항체 신약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중항체 기술 기반의 치료제를 연구 개발하고 있다. 설립 당시 한화케미칼이 사업을 점하면서 나온 14명의 연구원을 중심으로 회사가 시작됐고, 이 중 7

이상훈 에이비엘바이오 대표는 "내부 조직과 외부 연구기관의 협업으로 단계별 임상 등을 진행하며 전 임상 단계부터 임상 2상 시험 사이에 신약 후보물질을 조기 기술 이전시켜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을 기본 비즈니스 모델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에이비엘바이오는 이중항체의 다양한 구조적 결합 특성을 활용해 최초 3개에 불과했던 파이프라인을 현재 총 23개로 확대했다. 이중항체는 하나의 단백질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는 항체로 단일항체보다 결합력과 인체 내 안정성이 높아 부작용이 적고 치료 효능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또 단일항체는 하나의 항원만 타깃할 수 있지만 이중항체는 구조적 조합을 통해 다양한 항원을 타깃으로 삼을 수 있다. 대표 파이프라인인 면역항암 파이프라인은 암세포 특이 발현과 T세포 표면에 있는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 조절 물질에 동시에 결합하는 'T세포 관여 이중항체', 서로 다른 면역관문 조절 물질들에 결합하는 항체를 이중항체 형태로 구

축해 암세포나 그 주변의 면역세포를 활성화와 극대화를 유도하는 '면역항암제 이중항체' 등이 있다. 또 다른 물질인 'ABL001'은 혈관내피 세포성장인자(VEGF)와 신생혈관 형성 과정에서의 신호전달물질(DLL4)에 동일 항원을 결합하는 이중항체로, 신생혈관의 생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이 대표는 "해당 물질은 암 치료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ABL001이 이중항체 분야에서 차세대 업계 최고 기술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또 다른 주요 파이프라인인 'ABL301'은 업계 최초로 퇴행성 신경질환 치료에 필수적인 혈액뇌관문(Blood Brain Barrier·BBB) 침투 플랫폼 기술이 적용됐다. 에이비엘바이오의 총 공모주식수는 600만주로 공모가 밴드 최상단 확정시 1020억원의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대표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다. 이 대표는 "공모를 통해 모은 자금은 연구원 스카우트와 신약 후보물질의 연구 개발비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손영기 기자

## 공공기관 추가 이전부지 부동산값 '들쭉'

정부, 수도권 116곳 분류·이전 추진 공공기관 추가 이전 예상 지역 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달 20일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고 지역 자족 기능을 강화해 국토균형발전을 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임기내 수도권 소재 116개 공공기관을 분류, 이전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공기관이 추가로 이전할 경

우 예상 대상지 인근 부동산시장에 관심이 쏠린다. 우선 기존 혁신도시 인근이 이전 대상지로 꼽힌다. 이에 따라 추가적인 가격 상승도 예상된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5일 "공공기관 이전은 아파트, 상가 및 오피스텔에 이르기까지 부동산 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각 건설사들도 공공기관 인근 지역에 상가 및 오피스텔을 활발히 분양 중이다. 특히 상가와 오피스텔은 9·13대책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이런 사례로 한신공영(株)은 세종시 1-

5 생활권 H5블록에서 주상복합 '세종한신더휴 리저브 II' 84 ~ 154㎡, 596가구와 지상 1~2층 스트리트형 상가를 이달 분양한다. 사업지 주변으로는 BRT정류장이 있으며, 방축천 음악분수와 세종호수공원이 가깝다. 정부청사가 밀집한 1-5 생활권 내에 위치하며, 내년 중 행안부(2월예정)와 과기부(8월예정)가 추가로 이전한다. 대우건설은 부산 영도구 동삼동 1180번지 일원에서 '부산오션시티 푸르지오' 84 ~ 115㎡ 아파트 846가구와 21 ~ 23㎡, 오피스텔형 레지던스 160실을 분양 중이다. 해양수산 관련 공공기관이

자리한 동삼혁신도시 인근에 들어선다. 대방건설은 전북 전주시 덕진구 장동 1111번지에서 '전북혁신도시 대방디엠 시티 M-STREET' 아파트 494구, 오피스텔 1144실, 주거복합단지 내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농업생명 및 식품연구 관련 기관이 위치한 전주완주혁신도시 인근에 위치하며, 내년에는 인근에 전주지방검찰청이 들어선다. 중흥건설은 경남 진주혁신도시 C2·3·4 블록에서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 에비뉴' 상업시설을 분양 중이다. 400여 실 규모 스트리트형 상가로 조성되며 한국토지주택공사·한국세라믹기술원 등 이 자리한 진주혁신도시에 들어선다. /이규성 기자 peace@



# 가뜩이나 투자 부진한데... “금리 올려 더 위축될 듯”

## 저금리 파티는 끝났다

### 〈4〉 금리상승은 설비 투자의 적

한미 금리역전·자산시장 거품 우려  
자금조달 어려워지고 투자침체 지속

금리를 내려야할 시기에 오히려 올려야 하는 어려움. 한국경제가 처한 상황이다. 각종 경기지표는 돈을 풀어 경기를 부양하라고 가리키고 있지만 한국과 미국의 금리 역전과 자산시장 거품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는 결국 인상으로 방향을 틀고 말았다.

이미 반년째 설비투자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자본조달 비용까지 높아졌다. 국내 기업들의 투자수요가 빠르게 위축되면서 국내경기 향방도 시계제로 상태가 됐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국내총

〈국내총생산에 대한 지출〉(2010년 연쇄가격 기준) (계절조정계열 전기대비, %)

	2016				2017p				2018p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국내총생산(GDP)	0.6	0.8	0.4	0.7	1.0	0.6	1.4	-0.2	1.0	0.6	0.6
민간소비	-0.2	0.8	0.5	0.3	0.5	1.0	0.8	1.0	0.7	0.3	0.5
정부소비	1.7	0.6	0.7	0.5	0.6	1.2	1.9	0.5	2.2	0.3	1.5
건설투자	5.6	3.2	2.2	1.0	4.2	0.9	1.1	-2.3	1.8	-2.1	-6.7
설비투자	-7.1	2.7	1.6	6.5	4.5	4.3	0.2	-0.7	3.4	-5.7	-4.4
지식재산 생산물투자	0.9	1.5	0.7	0.7	0.3	0.5	1.5	1.1	0.3	-0.7	0.9
재고증감 <sup>1)</sup>	-0.4	0.0	-0.1	0.1	0.3	0.2	-0.7	0.8	-0.1	0.0	-0.3
수출	-0.2	0.8	1.4	-0.6	2.1	-2.7	5.6	-5.3	4.4	0.4	3.9
수입	-1.3	2.3	2.4	0.1	4.9	-1.0	3.2	-2.9	4.9	-3.0	-0.7

주: 1) 재고증감은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 기준(%). 2) ( ) 내는 원계열 전년동기대비 증감률. /자료=한국은행

생산(GDP) 증가율은 전기 대비 0.6%로 나타났다. 2009년 3분기 0.9%를 기록한 뒤 9년 만의 최저치다.

가장 눈에 띄어야 할 부분은 투자 침체다.

3분기 건설투자 증가율은 전기 대비 -6.7%를 기록했다. 속보치 -6.4%보다 0.3%포인트 더 낮아졌다. 국제통화기금(I

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분기 -9.7% 이후 20년여 만의 최저 수준이다.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었다. 경제활동별로 보면 건설업의 GDP가 전기 대비 5.7% 감소했다.

3분기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전기 대비 -4.4%를 기록했다. 전분기 -5.7%에

이어 반년째 마이너스 성장률이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한 설비투자 부문 증가율은 -7.4%였다. 2013년 1분기 -12.3% 이후 5년2분기 만에 가장 낮았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설비투자는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글로벌 경기 회복세 등에 힘입어 국내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다. 반면 올해 들어서는 특히 중반 이후에 빠르게 위축됐다.

산업연구원 민성환 연구원은 “우리 경제성장률이 지난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까지 떨어진 것도 사실상 설비투자가 지난 분기보다도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된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의 약세와 제조업 내수 부진, 그리고 제조업 내 업종간 불균형 구조 심화 등으로 국내 설비투자가 여타 선진국들과 다르게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문제는 금리인상으로 향후 전망은 더 어둡다는 점이다. 특히 이번 기준금리 인상은 경기판단이 아닌 부동산 가격 상승

과 대외 금리 차이에 따른 외국인 자본 이탈의 우려가 밑바탕이 됐다.

교보증권 김형철 연구원은 “금리상승은 설비투자의 적”이라며 “자산시장의 통제 목적으로 정책금리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투자활동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직까지는 일본과 유로권을 비롯한 대다수 국가들이 본격적인 금리인상에 나서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금리인상 기조를 유지하는 한 미국과의 금리격차 확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전세계적인 금리인상 기조의 확산은 불가피하다.

김 연구원은 “선진국 중앙은행의 긴축 기조가 확대되면서 한국은행도 정책금리를 본격적으로 인상시킬 것으로 보인다”며 “당초 기업들의 투자확대가 올해 연말부터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금리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자본조달비용 증가는 설비투자 증가를 제한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 금리인상 이후, 외국인의 선택은

# 외자 급격 유출 없을 듯... 문제는 ‘저성장’

내수경제 정체로 금리인상 어려워  
자본유출 대비 외환건전성 유지 필요

“기준금리는 역사적 기준에 비해 보면 여전히 낮다”면서도 “경제를 과열시키지도 둔화시키지도 않는 중립적인 수준으로 추정되는 폭넓은 범위의 바로 밑(just below)에 있다.”(지난달 28일 뉴욕에서 열린 ‘이코노믹 클럽’,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가속페달을 밟던 파월(미국)의 의지(금리 인상)가 약해졌다. 하지만 2019년에도 외국인이 한국 시장을 장바구니(투자 포트폴리오)에 담을 지 여부는 판단하기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당장 한은이 내년 한 두 차례 정도 금리를 올리더라도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줄이기는 어렵다. 한미 금리역전 폭이 커지거나 장기화되면 언제든 해외 자금이 빠져나갈 위험에 놓인 것.

그렇다고 연준과 동조해 계속 금리를 올리기에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이 녹록지 않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두달째 2%대를 유지했지만, 유가 상승 등에 기인한 것이다. 금리인상을 할 만큼 내수 경기가 충분히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한국GM 등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산업 현안도 돌발 변수다. 우리 경제의 뇌관이라는 가계부채(1514조원 규모)의 70%가 변동금리 대출이라는 점도 걱정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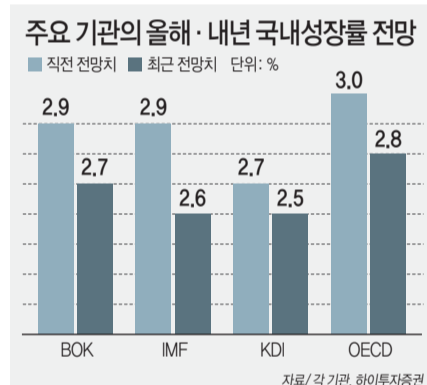
기초체력이 튼튼한 한국 시장은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글로벌 마니무브 과정에서 취약한 신흥국 경제가 흔들릴 경우 도미노 충격이 불가피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 ◆과거와 같은 급격한 이탈은 없을까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에서 “한미 간 두 차례 금리 역전 현상 때 전체 자본 유출입에서는 순유입 추세가 유지됐다”고 밝혔다.

하이투자증권 김상훈 연구원은 “한미 간 금리가 역전돼 있지만 내년 1분기 원화강세(달러 약세) 추세를 유지한다면 외국인 투자자 유출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1990년 이후 한미 금리역전은 두 번 일



어났다. 1차는 1999년 6월 말에서 2001년 3월 말까지로 금리 차이는 최대 1.5%포인트였다. 두 번째 역전은 2005년 8월에서 2007년 9월 사이에 일어났고, 격차는 1.0%포인트였다. 당시 미국은 1년에 4번 이상 금리를 올렸다.

한국은행 금융계정을 보면 1차시기때 금리역전 직후 단기적으로 국내 주식과 채권시장에서 순유출이 발생했지만 유입세로 전환(주식 200억4500만 달러, 채권 18억4400만 달러)됐고, 2차 때도 주식시장을 중심으로 754억2800만 달러의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시장에는 216억92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지난 3월 금리가 역전된 후 9월까지의 주식시장에서 211억9800만달러의 자금이 빠져나갔다. 반면 채권시장에는 93억 6800만 달러의 자금이 유입됐다.

직접투자는 1차시기에 123억2000만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한국시장에 들어왔다. 반면 2차 시기에는 56억5300만달러 규모의 자금이 한국시장을 등졌다. 올해 들어서도 184억7600만달러의 자금이 유출됐다.

정민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원은 “외국인 투자 자본 유출에 대비해 정부가 충분한 외환보유액을 유지하고 통화스와프도 확충하는 등 외환건전성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 ◆환율은 우호적, 문제는 경제

한국의 대표적 안전자산인 국제 시장은 굳건해 보인다. 그러나 미래를 예단하기는 어렵다. 과거에 잠깐 상황이 뒤바뀐 적은 있지만, 최근처럼 장단기 금리 모두 역전된 것은 전례가 없다.

또 국제시장에서 자본 유출이 미국 연준의 통화정책에 달린 문제만은 아니다. 차이나 리스크는 또 다른 해외 요인이다. 우리 경제는 중국과 무역과 투자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으며 이 연결고리는 차이나 리스크가 국내로 파급되는 발미를 제공한다. 특히 미국의 잇따른 금리 인상으로 취약한 신흥국을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빠져나가고 통화가치와 증시가 동반 급락하는 ‘긴축 발작’이 재연될 수도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내외금리차 확대는 부담스럽다”며 “(외국인) 자본유출은 내외금리차뿐 아니라 다른 요인들과 함께 봐야 하는데 최근까지 한국의 자본유출입이 큰 문제 없이 안정적이었던 것은 한국경제의 펀더멘털(기초체력)이 양호하다는 투자자들의 인식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은 보통 환헤지와 국가의 경제 전망을 보고 원화채를 사들인다.

원화 전망만 놓고 보면 외국이 급격히 이탈할 가능성은 낮다. 모건스탠리 전략가들은 ‘2019 글로벌 전략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 달러는 정점을 찍어 유럽과 신흥국, 일본 통화보다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이들은 전망했다. 원화는 내년 2분기 달러당 1105원, 내년 말 1095원으로 내다봤다. 달러 강세, 원화약세 전망이다.

문제는 경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내년 경제성장률을 2.6%로 낮춘 데 이어 산업연구원도 같은 의견을 내놨다. 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점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다만 최악을 가정해도 충격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미국의 금리가 2020년 3.5% 수준까지 올라도 한국의 자본유출 규모는 분기 국내총생산(GDP)의 0.1%에 그칠 것이라 분석이 있다. 강태수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국제금융팀 선임연구원은 “미국 금리 인상이 자본유출입에 미칠 영향”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겠지만 자본유출입 측면에서는 내국인 해외투자자 금 국내환류가 외국인 투자자금 이탈을 상쇄할 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민호 기자 kmh@



KRX 사회공헌주간 맞이 임직원 봉사활동

한국거래소(KRX)와 KRX국민행복재단은 지난 달 26일부터 5일까지 10일간 '2018년 KRX 사회공헌주간 임직원 봉사활동 '행복한 나눔'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5일 한국거래소(KRX) 홍동호 감사와 직원들이 부산 '새빛기독교보육원'을 방문해 봉사활동을 전개하고 후원금을 전달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 증권업계, 초대형IB 외화 발행어음 허용 환영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업계는 “기획재정부의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초대형 IB 증권회사)의 외화 발행어음 허용에 대한 유권해석’에 대해 환영한다”며 공식입장을 밝혔다.

외화 발행어음은 초대형 IB 증권회사가 외화로 투자자에게 자금을 조달하여 조달자금의 50% 이상을 외화 기업금융관련자산으로 운용하고 투자자에게는 사전 약정된 금리를 제공하는 외화 금융상품이다.

외화 발행어음이 허용되면 개인 및 기업은 외화 보유자금을 비교적 높은 수준의 금리를 지급하는 외화 발행어음에 투

자할 수 있고, 초대형 IB 증권회사는 외화 발행어음 조달자금을 외화자금이 필요한 기업대출 등으로 운용해 생산적 금융활동이 가능할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또 외화 발행어음 조달자금으로 해외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도 유리하게 됐다.

현재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은 초대형 IB 증권회사는 총 2개사(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이며, 빠르면 12월 중순부터 투자자에게 외화 발행어음을 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다.

/손영지 기자 sonumji301@

## 증권사도 전자지급 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앞으로 증권사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겸영이 허용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증권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 허용 등을 골자로 한 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의결에 따라 대기성자금인 종합자산관리계좌(CMA)는 매매명세 통보대상에서 제외된다. 환매조건부채권(RP)과 미니마켓펀드(MMF) 등에 자동 재투자되는 CMA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매매내역 등을 통보되면서 대기 성 자금이 별도 상품에 투자된 것으로 오인되는 등 투자자 혼란을 초래해사다. 거래내역 통지수단에 문자메시지와에

플리케이션 알림 등도 추가된다. 정보통신기술(IT)환경변화를 반영한 조치다.

또한 증권사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다. 증권사가 간접결제업체와 업무제휴를 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겸영할 수 있어야 했지만 현행 법령상 허용되지 않아 업무제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을 신청한 고객에 대해서는 RP 대상채권에 외국 국채를 포함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금융투자분야 규제 상시 개선체계’ 마련의 후속조치로 금융위 홈페이지에 고시한 6일부터 시행된다. /나유리 기자 yul115@



# 게임에 주목하는 반도체... “고사양大作 쏟아져 수요 ↑”

올해 대작 흥행으로 실적 만회  
고사양 대작 게임세트 출시면  
반도체도 덩달아 수요 증가  
업계 내년 대작 출시에 기대감

게임 산업이 반도체 산업 ‘고점 논란’의 극복 해답으로 주목받고 있다. 게임 인기가 고사양 세트 제품 판매 증가로 이어지고, 반도체 수요도 자연스럽게 늘리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는 게임업계가 고사양 기대작을 잇따라 내놓을 예정이다. 반도체 시장 하락 곡선을 받쳐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5일 업계에 따르면 반도체 중 30% 이상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 공급된다. PC에도 20%, GPU까지 합치면 절반을 훌쩍 넘는다. 반도체 업계가 세트 시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반도체 업황 부진 전망도 세트 시장과 관련이 깊다. 업계에서는 올해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보다 1.3% 줄어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세계 PC 출하량도 3분기까지 0.1%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저가 스마트폰 비중이 늘어나고, 비트코인 열풍이 끝나는 등으로 내년 역시 세트 시장은 침체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반도체 업계가 게임에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고사양 게임이 인기를 끌면



중국 산시성 시안시에 있는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공장 라인.

/뉴스

더 많은 반도체를 탑재한 플래그십 스마트폰과 고성능 PC 시장이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마침 인텔 CPU 공급 부족 현상도 내년 1분기에는 해소될 예정이다.

실제로 올해 PC 시장이 비트코인 폭락으로 위기를 겪었지만, 배틀그라운드 등 대작들의 흥행 성공으로 충격을 완화했다는 분석이 나올 정도다.

엔비디아 관계자는 “하이엔드 그래픽이 연구목적 등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 영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엔비디아는 지속적으로 게임 개발사와 협업을 이어오고 있다. 고사양 게임이 신규 그래픽 카드 수요에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스마트폰 시장도 게임을 중심으로한 마케팅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삼성전자는 최근 갤럭시 노트9을 출시하면서 펍지와 손을 잡고 공동마케팅을 펼친 바 있다. 미국 레이저와 중국 샤오미도 각각 게임 전용폰인 ‘레이저폰2’와 ‘포코F1’을 출시했다. LG전자는 게이머들의 축제인 2018 지스타에 V40 씽큐 게임 체험존을 열고 우수성을 입증하기도 했다.

LG전자 관계자는 “중저가폰 인기가 높아지고 있지만, 게이머들은 여전히 고사양 프리미엄 폰을 필요로 한다”며 “V40는 스냅드래곤 845를 채용해 고성능을 발휘하면서도, 작고 가볍다는 점으로 게이머들에게 어필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유안타증권에 따르면 2019년 게임 시



삼성전자 최신 모바일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9820. 갤럭시 S10에 탑재될 예정이다. /삼성전자

장은 2017년 흥행을 재현할 가능성이 높다. 올해 연기됐던 대작들이 잇따라 출시되는 까닭이다. 국내에서만 모바일 MMORPG 잠재이용자를 최소 600만명으로 보고, PC 게임 시장도 인기를 이어갈 전망이다.

12월은 대작 릴레이 전초전 양상을 보인다. 국내에서는 넷마블이 블레이드앤소울 모바일버전인 레볼루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글로벌에서는 EA가 커맨드&컨커(C&C) 라이벌을 내놓고 게이머 공략에 나선다.

블레이드&소울 최소사양은 안드로이드 기준 쿼드코어 2.45GHz 이상이다. 스냅드래곤 835나 엑시노스8895급 수준으로, 갤럭시 노트8에서 겨우 구동할 수 있는 수준이다. 아이폰에서는 6s 이상부터 플레이할 수 있다.

내년 출시될 대작들은 더욱 높은 사양을 요구할 예정이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2M을 현존하는 최고 퀄리티로 개발중

이라고 밝혔다. 최소사양으로는 엑시노스 9810이나 스냅드래곤 845 등 2.8~2.90GHz로 예상된다. 갤럭시S9이나 V40 씽큐 등 현존 플래그십 수준이다.

그밖에도 넥슨 ‘트라하’와 넷마블 ‘A3 스틸얼라이브’, 블리자드 ‘디아블로 리모탈’과 베데스다 ‘엘더스크롤 블레이드’도 고사양 스마트폰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기대작들이다.

모바일 업계 관계자는 “게임 시장이 활발해지면 고사양 세트 제품 판매량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게임을 활용한 마케팅도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출시된 스마일게이트 로스트아크는 정체됐던 PC 시장에 오랜만에 자극을 주고 있다. 론칭 첫날 접속자만 25만명, 일주일만에 동시접속자 35만명을 달성했다. 중국 접속자들이 몰려들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일찌감치 중국 텐센트와 공급계약을 맺은 상태로, 조만간 중국에 정식 서비스될 예정이다.

로스트 아크는 권장사양이 인텔 CPU i5 이상에 엔비디아 GTX 660, 라데온 HD 7850 이상으로 고사양 게임이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게이머들이 고사양 스마트폰과 PC 시장 주요 고객으로 자리잡은지 오래”라며 “고사양 제품 판매량이 반도체 수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만큼, 반도체 업계도 게임 산업을 주목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이커머스, ‘카테고리 킬러’ 通했다

인테리어·신선식품 등

이커머스 스타트업들이 한 분야에 특화된 상품으로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여러 분야의 제품을 종합적으로 파는 대신 인테리어, 패션, 신선식품 등 특정 카테고리(분야)의 제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른바 ‘카테고리 킬러’ 전략이다.

리빙·인테리어카테고리에서는 집꾸미기, 오늘의집 등이 소비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최근 인테리어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인테리어 관련 앱도 함께 성장하는 모습이다. 집꾸미기 앱은 스토어 오픈 2년 반 만에 누적 거래액 500억원을 달성했고 최근 최고 월간 매출액을 돌파하는 등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신선식품 카테고리에서는 마켓컬리가 인기다. 마켓컬리는 신선식품 분야에 새로운 혁명을 가져왔다고 평가받는다. 업

선된 제품만 판매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다음날 새벽배송이라는 장점과 식재료 카테고리에서 까다로워지는 소비자들의 기준에 맞춘 제품 품질 등이 장점으로 작용해 거래액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패션 카테고리에서는 무신사, 스타일쉐어 등이 선전하고 있다. 무신사는 온라인 패션 동호회에서 출발해 현재는 국내 최대 패션 온라인 쇼핑몰로 자리 잡았다. 기존의 종합 인터넷 쇼핑몰과 비교하면 카테고리 킬러의 약진은 더욱 두드러진다.

전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의 매출은 상승하고 있다. 통계청의 2018년 3분기 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8조727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 늘었다. 또한 온라인쇼핑 거래액 중 모바일 쇼핑 거래액은 17조3489억원으로 29.8% 증가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 카카오모빌리티 내년 ‘전기자전거 공유’ 서비스

삼천리자전거·알톤스포츠와 MOU

카카오모빌리티가 자전거 기업과 손잡고 내년 1분기 중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선보이며 새로운 교통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전거 기업 삼천리자전거, 알톤스포츠와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제휴 3사는 복잡한 도심의 새로운 교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함으로써 자동차 사용으로 인한 대중교통의 혼잡도를 줄이고, 원하는 거리만큼 자유

롭게 이동할 수 있는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삼천리자전거와 알톤스포츠의 전기 자전거를 활용해 내년 1분기 중 시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서비스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범운영 지역 선정을 위해 지자체와 협의 중에 있다.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가 출시되면 단거리 이동 수요가 다수 해소될 전망이다. 전기 자전거 공유 서비스도 도입되면 목적지에 상관없이 중·단거리 이용이 매우 용이해진다.

/구서윤 기자

모바일·PC 온라인 총망라

## 연말연시 신작 게임大戰 ‘후끈’

스마일게이트 PC ‘로스트아크’  
넷마블 ‘블레이드&소울레볼루션’  
넥슨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

잠잠하던 게임 업계가 연말을 맞아 대형 신작이 가세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신작 가뭄’에서 ‘신작 풍년’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특히 그간 시장을 주도하던 모바일뿐 아니라 PC 게임도 흥행작이 탄생하며 다양한 장르의 게임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추세다. 대형 게임사뿐 아니라 중견 게임사도 신작 개발에 힘을 쏟으며 침체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5일 게임 업계에 따르면 PC 게임에서는 1000억원의 제작비를 투여한 스마일게이트의 PC 게임 ‘로스트아크’가 PC 온라인 게임의 부활 신호탄을 쏘았다.

PC방 순위도 3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동시접속자 수는 35만명을 기록했다. 2위인 ‘배틀그라운드’를 턱밑까지 쫓아온 셈이다. 한꺼번에 몰린 이용자에 기존 서버에서 대기열이 발생해 10, 11번째 신규 서버도 추가했다. 특히 PC방 순위 10위권 내에서 다중접속속행게임(MMORPG) 장르로는 유일하다.

지난달 7일 서비스를 시작한 로스트아크는 2011년부터 스마일게이트RPG가 개발비 1000억원을 투입해 개발한 것이 특징이다. 혼자서 다수의 적을 쓸어버리는 액션슬래시방식의 전투 콘텐츠, 동서양을 아우르는 방대한 세계관, 항해를 통해 다양한 섬들을 탐험하는 항해 시스템 등 블록버스터 스케일을 자랑한다. 초보 이용자가 쉽게 즐길 수 있는 전투 시스템도 로스트아크의 특징이다.

로스트아크의 흥행으로 PC온라인게



넷마블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 타이틀 이미지.



스마일게이트 PC게임 ‘로스트아크’ 이미지. /각사

임이 장기 흥행할지도 관심을 끌고 있다. PC게임의 경우 변화가 빠른 모바일 게임과 달리 엔씨소프트의 ‘리니지’와 라이엇 게임즈의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이 장기 흥행작이 대다수다. 때문에 신작의 흥행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크다.

스마일게이트 관계자는 “최근 PC게임 시장에 MMORPG 신작이 드문 상황에서 로스트아크가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로스트아크는 개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의 CBT와 FGT를 진행하며 개발과 서비스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스마일게이트 뿐 아니라 대형사도 연말을 앞두고 신작 출시를 코앞에 두고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신작은 6일 출시되는 넷마블의 모바일 MMORPG ‘블레이드&소울 레볼루션’이다. 블소 레볼루션은 인기 PC 온라인게임 ‘블레이드&소울’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해 원작의 세계관과 콘텐츠를 모바일로 재해석했다.

엔리얼엔진4로 제작된 풀3D 그래픽을 바탕으로 시네마틱 연출과 메인 시나리오에 충실한 스토리, 경공 시스템, 대전 게임급 전투액션 등 원작 감성을 담았다. 이에 더해 세력 간 경쟁을 기반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오픈 필드

세력전’, 계층을 기반으로 갈등, 협동, 경쟁이 발생하는 ‘커뮤니티’ 등을 통해 차별화 한다는 방침이다.

넷마블이 이미 엔씨소프트의 PC 온라인 게임 ‘리니지’의 IP를 활용한 모바일 게임 ‘리니지2레볼루션’으로 글로벌 성과를 거둔 경험이 있는 만큼 블소 레볼루션 역시 글로벌 성과를 얻지 않겠냐는 기대감이 있다.

넷마블은 리니지2레볼루션으로 쌓은 글로벌 시장 노하우를 블소 레볼루션에도 접목하겠다는 계획이다.

넥슨 역시 PC 온라인 게임 ‘아스텔리아’의 공개 베타 서비스를 오는 13일 시작한다. 아스텔리아는 정통 MMORPG를 표방하고 있으며, 판타지 세계관을 바탕으로 전술의 핵심인 30종 이상의 아스텔을 활용한 전략적 전투와 성장·협력 플레이를 한다. 컴퓨터 또한 모바일 역할수행 게임(RPG)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의 출시를 앞두고 있다. 스카이랜더스 링 오브 히어로즈는 모바일 버전 실시간 턴제 RPG로, ‘스카이랜더스’ IP를 표방했다. 시범 테스트도 참여 이용자 국가 중 60%가 북미와 유럽인 것으로 나타난 만큼 서구권 시장을 중심으로 공략할 예정이다.

/김나인 기자 silkni@



동종 분양업계  
최대 화제

# 전주, 한옥마을 오피스텔 전격 분양

## 베스트 웨스턴 전주호텔 분양 완료

## 오피스텔 마감 임박

역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 안전한  
수익이 보장되죠!

**마감임박**

실투자금  
2천만원대  
선착순 분양!

분양권  
전매가능

1가구  
2주택  
해당 無

종부세  
합산배제

비조정지역  
대출규제  
無

### 전세계가 주목하는 관광도시 전주, 최종심 입지에서 누리는 프리미엄급 실제의 가치!

- 전주 최종심 입지에서 누리는 호텔형 오피스텔의 가치!
- 전주 1, 2 산업단지, 친환경 복합단지 등 약 5,400여명 근로자 수요
- 전주시청, 전북도청 등 전북혁신도시 공기업 및 공공기관 이전 수요
-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등 대학 수요
- 탄소특화단지 효성, GS칼텍스, 현대자동차 입주 예정

- 전북도내 최대 도시 전주! 공실 걱정 없는 풍부한 수요!
- 오피스텔과 호텔의 커뮤니티를 공유하는 최고급 편의시설
- 명불허전! 걸어서 누리는 세계의 관광자원 전주한옥마을 옆
- 1, 2인 가구 트렌드에 맞는 희소성 있는 강소(強小) 평형
- 공실과 수익률걱정이 없는 전문임대관리 업체의 직접관리계약

전주한옥마을 그 중심에 호텔형 오피스텔 최초 분양!

분양문의

# 1811-1972

시행 KAIT 한국자산신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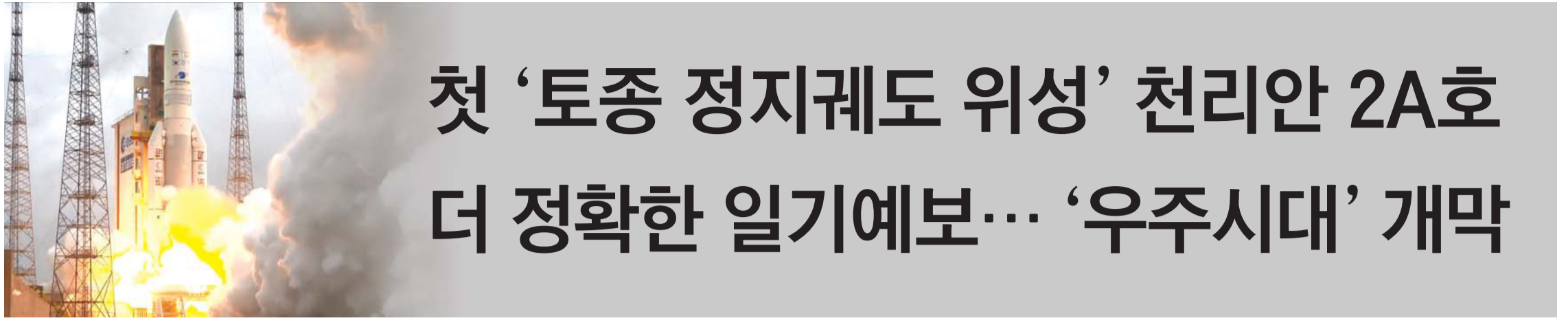
시공 이랜드건설 E-LAND CONSTRUCTION

위탁 MERIT+PLUS DEVELOPMENT & MARKETING

청약계좌안내	은행 국민은행	계좌번호 349401-04-274501	예금주 한국자산신탁(주)
--------	---------	-----------------------	---------------

\* 상기 CG 및 이미지, 일러스트 등에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으나 반드시 홍보물에 병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프리미엄 혜택은 시행사 및 운영사에서 제공하며, 자금관리 및 신탁사인 한국자산신탁(주)과는 무관합니다.  
\* 전주 성벽 및 전라감영 복원사업, 현장 주변 교통시설과 주변 현황은 인·허가 및 정부시책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시행 및 시공하는 이와 무관합니다.  
\* 베스트웨스턴 플러스 전주 호텔과 베스트웨스턴 인터내셔널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 첫 '토종 정지궤도 위성' 천리안 2A호 더 정확한 일기예보... '우주시대' 개막

설계부터 시험까지 순수 국내기술  
에비조립까지 합쳐 총 3년 걸려  
아리안-5ECA 발사체 도움받아  
2주 후 고도 3만6000km 접근 예정

천리안2A호는 2010년 쏘아 올린 위성 천리안 1호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기상과 우주 관측 역할을 맡았다. 천리안2A호는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들어진 최초의 토종 정지궤도 위성이다. 순수 국내 기술로 본체 설계부터 조립, 시험까지 완성했다. 천리안 1호는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 아스트리움(현 에어버스)과 공동개발한 바 있다. 정지궤도 위성 기술은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과 일본, 유럽 등 세계 8개 국가만이 보유하고 있다.

사업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상청 등에서 30252억원을 지원받았다. 쌍둥이 위성인 천리안2B 개발비용까지 합치면 720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자됐다. '정지궤도복합위성 개발사업'은 2011년 7월부터 진행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주관하에 2012년 3월부터 각 부처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위성 시스템 설계를 시작했다. 2014년 2월에는 경희대와 개발 계약을 체결했다. 우주기상 탑재체를 국내 기술로 만들기 위함이다. 기상 탑재체는 세계 최고 수준을 추구



하기 위해 미국 해리스사 제품을 사용키로 했다. 위성 발사는 2015년 2월 아리안 스페이스에 도움을 받기로 결정했다. 천리안2A호는 2016년 4월부터 조립되기 시작했다. 에비조립까지 합치면 총 조립까지 3년여가 걸렸다는 전언이다. 올해 들어서는 발사환경 시험과 열진공 시험, 전자파시험 등 혹독한 테스트를 완료했다. 10월에는 발사 장소인 남미 프랑스령 기아나 우주센터로 위성을 운송했다. 발

사장에서 약 50일에 걸쳐 기능시험을 이어갔다. 준비를 마친 천리안2A호는 11월 말부터 발사 점검을 위한 리허설을 수행했다. 4일에는 아리안-5 ECA 발사체를 타고 발사대로 이송됐다. 최종 카운트다운은 4일 오후 6시 14분 경부터 시작됐고, 5일 오전 12시 59분경에는 발사체에 추진제가 주입됐다. 발사 시간은 5일 오전 5시 37분이다. 현지 시간으로는 4일 오후 5시 37분이었다.

발사체는 3분후 위성을 보호하는 덮개인 페어링을 분리했고, 25분 뒤에는 전이 궤도에 진입했다. 이어서 34분 후에는 고도 약 2340km에 도달했다. 천리안2A호는 발사체에서 분리돼 목표궤도로 진입했다. 6시 16분 호주 동가라 지상국과 교신을 통해 양호한 상태로 확인됐다. 앞으로는 2주 가량 자체 추력기를 5차례에 걸쳐 분사해 고도 3만6000km 정지궤도로 접근할 예정이다.



발사일 오전 브리핑 모습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발사장에 대기 중인 천리안 위성 2A.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최종 성공 판정까지는 6개월여가 걸릴 전망이다. 각종 시험을 거쳐 정상 작동을 검증받아야 한다. 최종 확인이 끝나면 내년 7월께에는 기상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쌍둥이인 천리안 2B호는 내년 발사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천리안2A호와는 달리 해양·대기 관측을 수행할 예정이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최순실 측근과 공모·건설사업 사기 '헌인마을' 비리 브로커 2심도 실형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측근과 공모해 정부 건설사업 청탁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3억원을 챙긴 사업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한모(37)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1억5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한씨가 물품을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고 알선수재로 수수한 3억원도 거액이라고 지적했다. 한씨는 2016년 최씨 측근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서울 서초구 헌인마을이 국토교통부 뉴스테이 사업지구로 지정받도록 해주겠다고 개발업자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착수금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대통령은 같은해 4월 안중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을 통해 국토부에 사업지구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고, 국토부가 지정이 어렵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보고하자 검토 중단 지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씨는 또한 데이비드 윤씨와 공모해 이탈리아 가방 브랜드의 한국지사를 세운 것처럼 속여 해당 제품을 수입·유통하



서울 법원종합청사.

려는 업체에서 4억8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한씨를 윤씨 범행의 공범으로 판단하고, 그가 범행을 단순 방조했다거나 1심 형이 너무 무겁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가 데이비드 윤과 실행행위를 분담하고 기능적 행위지배를 했기 때문에 방조범이 아닌 공모공동정범 책임이 있다는 원심 판단을 따랐다. 공동정범은 공동의 의사와 그에 따른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할 때 성립한다. 공모자가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담당해 실행하지 않았어도, 범죄에 본질적으로 기여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된다. 검찰은 현재 윤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이범중 기자 joker@

## 文 대통령 “특감반 비위 문제 정면돌파”

조국 민정수석 거취는 변동 없어  
청와대 안팎 공직기강 확립 강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문제와 관련한 야당의 조국 민정수석 책임론 공세에 대해 조수석의 거취에 변동이 없으리라는 점을 사실상 공식화하며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나이가 최근 논란이 된 청와대 공직기강 문제를 민정수석실을 중심으로 바로 잡도록 하는 등 조수석에 대한 강한 신뢰를 내비쳤다. 체코·아르헨티나·뉴질랜드 순방을 마치고 전날 저녁 늦게 귀국한 문 대통령은 곧바로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수석으로부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보고를 받았다. 그만큼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생각했다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순방 도중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다. 믿어주시기 바란다”며 특감반 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문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뒤 조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5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와 관련한 지시사항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라고 지시했다. 일부에서는 문 대통령이 비서진 쇄신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됐지만, 오히려 민정수석실이 기강을 제대로 잡을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지시를 내놓은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지시는 조수석이 사실상 유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면 되느냐”는 질문에는 “조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답변했다. 이런 지시의 배경에는 이번 사안의 본질은 수사관들의 일탈 행동이며, 조수석을 비롯한 민정수석실의 대처에는 큰 문

제가 없었다는 문 대통령의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김 대변인은 임 실장과 조수석이 특감반 전원교체라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서는 문 대통령에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서도,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 대처가 제대로 잘 됐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는 “그렇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했는데, 사건의 실제적 진실이 드러날 경우 민정수석실의 대처가 잘못되지 않았다는 점을 국민도 알 것이라는 자신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청와대 인사들 사이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검찰 수사관들의 일탈을 민정수석실이 엄정하게 징계할 것이 본질”이라며 조수석의 거취와 연결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조수석은 민정수석이지만 사안에 관해서 아무런 연계가 있지 않다”고 밝히며, 사퇴요구에 대해 “야당의 정치적 행위”라고 일축한 것과도 비슷한 맥락이다. /김승호 기자 bada@





구진열 국세청 정세법무국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세청에서 2018년 고액·상습체납자를 공개하며 체납자들이 은닉한 재산을 징수한 사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전두환 등 고액체납자 7157명 명단 공개

국세청, 체납액 총 5조원 달해

재산을 공매 처분·추징당한 전두환 전 대통령과 100억원의 부당 수입료를 쟁기 최유정 변호사가 고액체납자로 실명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7157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와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은 5021명, 법인은 2136개다.

명단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의 국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개인이나 법인이다. 공개대상 기준 금액과 체납 기간은 점차 확대·강화되는 추세다.

올해 공개된 체납자가 내지 않은 세금은 5조2440억원이다. 개인 최고액은 250억원(정평룡·부가가치세), 법인 최고액은 299억원(화성금융·부가가치세)이었다. 올해 처음 명단이 공개된 인원과 체납액은 지난해보다 각각 1만4245명, 6조2257억원 줄었다.

지난해 공개 기준 체납액이 3억원에서 2억원으로 확대되면서 공개대상 인원이 대폭 늘어난 영향으로 올해 감소 폭이 컸다.

지금까지 고액의 세금을 내지 않아 명단이 공개 중인 고액·상습체납자는 올해 처음 이름이 공개된 인원을 포함해 총 5만2000여명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세포·유전자 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 ‘첨단바이오법’ 법제화 또 불발

이달 중 주요쟁점 공청회 개최  
내년 2월 법안소위서 논의  
계약업계, 법안 조속통과 촉구

일명 ‘첨단바이오법’인 국회 첨단재생의료법의 통과가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졌다. 패스트트랙 등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지원법들도 연내 통과는 어려울 전망이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 법안은 국회 복지위 소속 전해숙·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첨단재생의료법’과 정준숙 의원이 발의한 ‘첨단바이오의약품법’이 병합된 법안이다. 세포치료, 유전자치료, 조직공학치료 등 재생의료 분야의 임상연구에서 제품화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첨단 바이오의약품 제품화를 지원해 희귀, 난치 질환자 치료기회를 확대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이번 상임위에서는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법안은 물론, 제외진단의료기기법안과 의료기기산업 육성 및 혁신의료기기 지원법안 등의 논의를 내년으로 미뤘다.

전해숙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과 관련한 업계와 학계, 시민단체 등 찬성과 반대 입장이 첨예할 것을 우려해 12월 중 먼저 공청회를 열고 주요 쟁점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며 “의견이 어느정도 수렴되는 내년 2월 열리는 법안소위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복지위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일명 ‘패스트트랙’ 법안 역시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기동민 의원은 지난 9월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과 혁신신약 개발지원법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약산업 육성법 개정안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개발하는 신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신속하게 허가·심사 절차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약품 및 혁신신약 개발지원법 개정안은 감염병과 생화학 무기, 핵물질로 인한 질병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약품과 신약 개발을 촉진시켜 국민건강권을 강화하려는 배경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하지만 이번 소위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계약업계는 정부가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제약산업육성법’ 만으로는 부족하다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지난 달 23일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을 인공지능을 활용한 신약개발 지원과 약가 우대, 혁신형 제약기업 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하며 향후 법 개정에 따라 ‘제약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에 ‘인공지능을 이용한 신약개발 지원계획’이 포함될 예정이다.

제약바이오협회 관계자는 “최근 한·미 FTA 개정협상에 따른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개정으로 정부의 지원 의지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제약산업 육성법 통과를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켰다는 의미가 있다”며 “국내 제약사들의 신약개발 의지를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추가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tlee@metroseoul.co.kr

## ‘여의도 116배’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국방부, 상생 군사시설 조성 일환

국방개혁 2.0의 과제 중 하나인 ‘지역과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해 여의도 면적에 116배에 해당하는 3억 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다.

또 2470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개발 등에 관한 군 협의업무가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고, 민통선 출입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반도체집 인식시스템(RFID)이 설치된다.

국방부는 “11월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2007년 군사기지법이 통합 제정된 이후 최대 규모로 보호구역 3억 3699만㎡ 해제를 결정했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분야별 세부추진 내용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완화 및 위탁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 (RFID

설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이하 군사기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등이다.

국방부 심의 이전에 개최된 합참 심의 위원회에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2470만㎡에서의 개발 등 군 협의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위탁하기로 의결됐다..

군사기지법 제14조에 따르면 협의업무 위탁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도시지역, 농공단지지역 등에서 (군)과 협의업무를 일정 건축높이 이하에 한해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을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돼,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의 128만㎡의 면적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신규 지정됐다.

/문형철 기자 captinm@

## ‘수출효자’ 딸기, 생육환경 등 기술개발 성과

농진청, 작년 수출량 4298만 달러  
난방비·선별·포장이 문제 등 해결

농촌진흥청은 증가세에 있는 딸기 수출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 에너지 절감, 수출용 딸기 선별·포장기술 등을 개발했다고 5일 밝혔다.

농진청에 따르면 국내 딸기 수출량은 지난해 4298만 달러로 10년 전인 2007년 423만 달러보다 10배 뛰었다. 주요 수출국은 홍콩·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이며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수출도 늘고 있다.

다 익었을 때 따는 내수용 딸기와 달리 수출용 딸기는 봄철에 50~70%, 겨울철에는 80~90% 익었을 때 수확한다. 이렇게 수확한 딸기는 유통과정에서 색은 빨갛게 변하지만, 당도는 낮아져 대책이 필요했다.

이에 농진청은 생육 환경 제어, 겨울철 난방비 절감, 딸기 선별 기계화, 수출용 딸기 물러짐과 곰팡이 발생 감소 등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다.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은 각종 센서와



국립농업과학원 이승기 농업공부장이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딸기 수출을 위해 생육환경 최적화 기술·수출용 딸기 선별·포장 기술 등을 적용해 생산한 수출용 딸기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장치를 활용해 수출용 딸기가 자라는 데 알맞은 빛과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양액 공급 등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농진청은 이와 더불어 소비자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수출용 딸기 생산 이력과 농산물 이동 경로를 기록하는 시스템도 개발했다.

난방 기술의 경우, 온실 전체를 난방하지 않고 딸기가 온도를 민감하게 느

끼는 관부에만 배관을 설치해 20℃의 온수를 흘려보내는 부분 난방 기술이 제시됐다.

이 기술을 적용한 결과, 온실 온도를 8℃에서 4℃로 낮출 수 있게 돼 연료 사용이 30% 줄어든 반면 생산량은 3% 늘었다고 농진청은 밝혔다.

수출용 딸기 선별기는 딸기의 모양과 색상을 분석해 수출에 알맞은 딸기만 골라내는 장치다. 이 기계를 쓰면 시간당 1만 8000개를 정확도 90% 이상으로 선별할 수 있어 노동력 부담을 50% 이상 덜 수 있다는 설명이다.

농진청은 이 밖에도 수출용 딸기가 60도 이상 고온에 노출되면 색이 변하는 스티커를 개발했다. 수출 도중 공황할주로에서 제트엔진에 노출돼 열 손상이 생기는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다.

농진청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딸기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이룬 성과”라며 “다른 농산물의 수출에도 적용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딸기는 올해 초 평창동계올림픽 기간 일본 여자 컬링대표팀 선수가 한국딸기 맛에 감탄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화제가 됐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법무부, 교정공무원 근무복 18년만에 교체

교정공무원 근무복이 18년만에 개선돼 내년까지 전면 교체된다.

이날 법무부는 “교정공무원의 업무 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 등을 목적으로 교정공무원의 근무복을 형태면에서는 18년, 색상면에서는 9년 만에 개선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 16개국과 국내 경찰·소방 복장 등을 비교·연구하여 근무복 개선을 도출했다. 또한 모든 의사결정 단계에서 일선 현장 직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우선 색상은 기존 연하늘색(화이트 블루)이 민간 경비업무에 주로 채택되고



법무부가 교정공무원 근무복을 기존 연하늘색에서 진감청색으로 바꿨다고 5일 전했다. /법무부

는 점을 감안해 차별성을 부여하고, 푸른색 수형복과 한눈에 구별되도록 진감청색(네이비 블루)으로 변경했다.

처음으로 보통형과 몸에 딱 맞는 모양 두가지(테일러·슬림 핏)를 도입해 착용자 중심의 디자인을 적용했다. 넥타이 없이도 어울리는 디자인을 채택하고, 소매 부분에 태극 문양을 자수로 부착했다.

소재는 상의의 경우 최첨단 기능성 소재를 사용해 착용감과 활동성을 높이고 보온성과 통기성을 향상시켰다. 하의는 폴리에스터와 폴리우레탄 섬유를 혼용해 신축성을 보완했다.

/이범종 기자 joker@

## ‘직원 폭행’ 양진호, ‘갑질’ 추가 확인

노동부, 취업방해 등 총 46건 적발

회사 전·현직 직원에 대한 폭언 및 폭력 행위로 검찰의 구속 수사를 받는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사진)의 직장 내 ‘갑질’이 추가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양 회장이 실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인터넷기술원 그룹 계열사 5곳(한국인터넷기술원, 한국미래기술, 이지원인터넷서비스, 선한아이디, 블루브릿지)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노동부는 지난 10월 양 회장이 과거 사무실에서 전직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자 지난 달 5~30일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특별근로감독 결과, 폭행, 취업 방해, 임금 체불을 포함한 4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양 회장은 2015년 4월 개별 연봉 협상 과정에서 임금을 올려달라고 요구한 직원에게 플라가든 유리컵을 집어 던진 것



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남성으로, 유리컵에 맞지는 않았으나 이후 퇴사했다.

양 회장은 같은 해 12월에는 다른 직원이 퇴사해 동종 업계 다른 회사에 취업하자 그 직원에 관한 부정적인 말을 그 회사 측에 했다.

이 때문에 회사를 옮긴 직원은 새 직장에서도 퇴사했다. 이는 매우 죄질이 나쁜 취업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노동부는 보고 있다. /세종·최신용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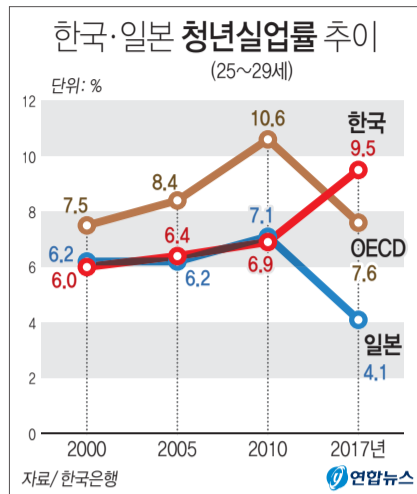
# 日보다 2배 높은 韓 '20대 실업률' 大-中企 임금격차가 주요 원인

한은, BOK경제연구

양질의 일자리 부족·고령화 등 작용

우리나라의 청년실업이 증가하는 것은 고령화, 파트타임 근로자 비중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과 같은 구조적 요인에 양질의 일자리 부족, 일자리 간 근로조건 격차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한국과 일본의 청년실업 비교분석 및 시사점' 보고서(박상준 와세다대 교수, 김남주·장근호 한은 거시경제연구실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2000~2017년)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한 결과 전체 실업률, 고령화율, 파트타임근로자 비중 등은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 반면 청년 인구 비중, 임금근로자 비중,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청년실업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실업률이 높아지면 청년실업률도 높아지고, 고령화율(고령 인구 비중)이 늘면 총수요가 줄어들면서 청년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이 높으면 일자리 자체는 늘어날 수 있으나 그만큼 안정적인 일자리는 부족할 수 있으므로 청

년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청년 인구 비중이 높아지면 노동시장에서 청년구직자 간 경쟁 심화로 실업이 증가할 수 있지만 경제활동 증진으로 인한 일자리 증가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면 청년실업률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또 임금근로자 비중이 높아지면 청년들이 일자리를 얻을 기회가 늘어나면서 청년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보고서는 국내 청년실업률이 높아진 것은 경제성장률 하락, 고령화 진전, 파트타임근로자 비중의 상승, 낮은 임금근로자 비중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음을 시사한다고 풀이했다. 또 청년실업률 결정요인 외에 한국이 일본보다 청년실업률이 크게 높은 것은 일본보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데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가 큰 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했다.

/김희주 기자 hj89@metroseoul.co.kr

# '감각마케팅' 10년치 논문 총정리 '화제'

**캠퍼스 인물**  
박혜린 단국대 경영학부 4학년



감각 및 다감각까지로 시각과 청각, 후각, 미각, 촉각, 동적감각, 다감각 등 7가지 감각별 논문 결과물 요약·정리해 최신 감각마케팅 연구 흐름의 이해를 돕는다.

대학 경영학도가 최근 10년간 '감각마케팅'과 관련한 논문을 총정리하고 대안을 제시한 논문을 발표해 화제다. 기업 경영인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논문으로 평가된다.

감각마케팅이란 소비자 감각을 자극해 상품구매에 영향을 주는 마케팅 전략을 뜻한다. 시각 등 오감을 활용한 제품 판매를 증진시키거나 고객들이 매장을 자주 찾도록 특화시키는 전략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5일 단국대에 따르면 경영학부 4학년 박혜린 씨(사진)는 2007년~2018년까지 10년간 발표된 감각마케팅 분야 해외 선행 논문 120여편을 고찰하고 각 논문의 결과를 종합 정리한 논문을 한국경영학회 저널 '경영학연구' 12월호에 주저자로 게재했다.

경영학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이 선정한 우수등재학술지(2017년)로 학부생이 주저자로 논문을 게재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박 씨 논문 제목은 '감각마케팅에 대한 최근 연구의 종합적 고찰:오감에서 동적

다. 마케팅을 시도하는 개인이나 기업이 각 감각에 호소하는 광고 전략을 펼쳤을 경우 예상되는 시행착오를 미래 보여주는 셈이다.

박 씨는 "배달앱의 경우 음식 조리과정의 영상과 소리만으로 광고를 제작했고, 매출이 전년 대비 55%나 성장했다"며 "각각기간간 연상이나 상호작용 등 다감각을 활용한 감각마케팅이 중요해졌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어떤 향이 매장에 단기간적으로 긍정 영향을 주지만 향의 세기가 일정 이상이 되면 소비자는 역감정을 느끼고 자극이 오랜 시간 노출되면 감각 지각이 둔화되는 경향도 있다"며 "감각 자극 정도에 따른 연구와 오감이 융합되는 다감각의 감각 척도 연구도 앞으로 새롭게 연구가 필요한 분야"라고 강조했다.

/한용수 기자

# 불수능 최대 피해는 '중하위권'... 경쟁 치열

수능 점수 발표...정시지원 전략은

수능 점수 '상후하박' 구조  
불수능 최상위권 변별력 ↑  
영역별·대학별 등 셈법 필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성적표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뉴스

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수험생들에게 전달됨에 따라 대학 정시 모집 경쟁이 본격 시작됐다. 올해 수능이 고난도 문항 출제로 최상위권 위주로 변별력이 높아져 소신지원이 가능하지만, 투터운 중의 중위권 수험생 위주로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각 입시업체가 발표하는 예상 합격선은 지원자 수 등 변수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맹신하지 말고 참고만 하는게 좋다.

◆성적별 지원 전략 달리 해야  
올해 수능은 표준점수 최고점과 1등급 구분점수(등급컷)가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상승했다. 특히 국어 31번 문항 등 고난도 문항 출제로 '상후하박(上厚下薄)' 구조가 더 명확해졌다. 상위권 수험생 간 점수차는 커져 지원의 폭은 넓어진 반면, 중하위권 성적은 좁혀져 지원 폭이 좁아졌다.

특히 가장 어렵게 출제된 국어 영역 성적은 인문계 수험생은 물론 자연계 수험생에게도 합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국어의 표준점수 최고점은 주로 자연계 수험생이 치른 수학가형보다 17점이나 높다. 수학나형과도 11점 차이이다. 국어 영향력이 인문계보다 자연계 학생에게 더 커진 셈이다.

같은 영역에서 같은 등급을 받았어도 표준점수 차이는 더 커 변별력은 벌어진다. 1등급 구분 표준점수(등급컷) 차이는 국어가 7점으로 가장 컸고, 수학가형·나형은 3점씩이었다. 상위권 수험생 간 점수 변별력이 국어, 수학 순으로 높고 같은 등급을 받았어도 표준점수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탐구영역도 상위권에서 변별력이 높다. 과학탐구와 사회탐구 모두 과목별 표준점수 최고점 차이는 6점이었고, 과목별 1등급컷 차이는 과탐의 경우 2~3점,

1등급 비율이 5% 이상이고, 탐구영역에서도 생명과학 I 과 생명과학 II를 제외하고 모두 5%대를 넘는 등 난이도 조절에 실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중상위권 수험생들의 눈치작전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지원가능 추정 점수, 자연계 위주로 ↑  
종로학원하늘교육과 메가스터디교육, 이투스 등에 따르면, 올해 수도권 주요 대학들의 지원 가능한 수능 국어·수학·탐구 표준점수(600점 만점 기준) 추정치는 지난해보다 10점 내외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연계 최상위권이 지원하는 의예과 추정 점수가 전년보다 크게 높아졌다.

서울대의 경우 의예(409~410점) 지원 가능 점수가 경영대(406~408점)보다 최대 4점이나 높을 것으로 예상됐고, 정치외교(405점), 국어교육(401~404점), 화학생물공학(399~400점) 순이다. 연세대도 의예(408~410점)가 경영학(401~406점)을 크게 앞질렀고, 치의예(401~403점), 정치외교(395~403점), 영어영문(394~401점) 순이다. 고려대 역시 의과대(405~408점)가 경영대(401~406점)보다 높고 경제(402점), 영어영문(399점), 사이버국방(394~400점), 행정(395점), 국어국문(394점) 등으로 예상됐다.

경희대는 의예(403~405점), 한의예(395점), 경영(389점), 서강대는 경영(392~396점), 인문(389~391점), 화학생명공학(387점), 성균관대 의예(407~408점), 글로벌경영(394~398점), 사회과학(390~395점), 반도체시스템공학(388~392점), 한양대 의예(403~405점), 정책(396점), 경영(389~393점), 미래자동차공학(390~392점), 파이낸스경영(392점), 중앙대 의학(402~405점), 경영경제(387~396점), 한국외대 LD학부(389~394점), 동국대 경찰행정학과(387~389점) 등으로 추정됐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상위권에서는 변별력이 생겨 소신지원이 가능하고, 중위권부터는 대학의 과목별 가중치 영향력이 커져 이를 확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한용수 기자



한국장학재단 이정우 이사장(왼쪽)과 김태오 DGB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이 5일 사회배려계층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장학재단

#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맞손

한국장학재단-DGB사회공헌재단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은 5일 재단 본사에서 DGB사회공헌재단(이사장 김태오)과 대구·경북지역 사회배려계층 대학생에 대한 생활비 지원 사업(가칭 위드유)에 적극 협력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대구·경북지역 사회배려계층 대학생에 대

한 생활비 지원 ▲공동사업과 관련한 보유자료 제공에 대한 상호 협력 ▲학업의 지가 있는 학생들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20명의 지역 대학생에게 1인당 240만 원씩, 연간 5000만 원의 생활비 장학금이 지원된다. 생활비 마련이 힘들어 학업을 중단하거나 취업 준비에 집중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용수 기자

# 한양사이버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BIM 경진대회 '2관왕'

한양사이버대학교(총장 이영무)는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재학생 2팀이 지난 1일 열린 '2018 한국 BIM학회 대학(원)생 경진대회'에서 우수상과 장려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 BIM학회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무형융합건축사무소가 후원·협찬한 이 대회는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의 활용이 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는 시점에서 모델링을 기반으로 다양한 시설물의 정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가능성을 주제로 진행됐다.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학과 경쟁력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 총 2팀을 구성하여 대회에 참가하였고 2팀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에서 개설한 '첨단건축도시 구축을 위한 BIM 전문가 과



지난 1일 열린 '2018 한국 BIM학회 대학(원)생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한 한양사이버대 시공팀(왼쪽부터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 황주현, 박도영, 김동하, 정건수) /한양사이버대

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학생들로 지난 7월 중순부터 11월 말까지 한주도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학교에 나와서 팀별로 열심히 준비한 결과 좋은 성적을 거뒀다.

국내 최초로 건축공학과 도시공학의 융합학과로 지난 2017년도에 개설된 디지털건축도시공학과는 매년 입시 때마다 최고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큰 주목을 받아 왔다. /한용수 기자



김미숙의 건강관리 비법?!

# 저는 **차가버섯**으로 걱정 없어요

VitaminHouse 1588-8529 <http://www.vhmall.net>

내 몸을 지키는 건강한 습관,  
시베리안 차가버섯







**두산그룹, 전방부대에 '사랑의 차' 전달**  
두산그룹이 4일 강원도 양구군 소재 백두산 부대(육군 21사단)에서 '사랑의 차(茶) 나누기' 행사를 갖고, 커피믹스 8000 상자 and 금일봉을 전달했다. 동현수(취두산 부회장(앞줄 왼쪽에서 세 번째))과 임직원들이 강원도 양구 백두산 부대를 방문해 '사랑의 차'를 전달하고, 박철규 21사단 부사단장(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등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그룹



**롯데하이마트 임직원, '아이스버킷 챌린지' 참여**  
롯데하이마트는 5일 롯데하이마트 본사 사옥에서 롯데그룹 창립 51주년을 맞아 이동우 대표이사(오른쪽에서 두 번째)를 포함한 임직원 51명이 함께 루게릭병(근위축성측삭경화증) 환우를 돕기 위한 릴레이 캠페인 '아이스버킷 챌린지'에 참여했다. /롯데하이마트



**스타필드 '별마당도서관', 홍콩 DFA어워더서 '대상'**  
쇼핑테마파크 스타필드 코엑스몰의 '별마당 도서관'이 홍콩 디자인센터(HKDC)가 주관하는 '디자인 포 아시아 어워드(Design For Asia Awards, 이하 DFA 어워드) 2018'에서 환경 디자인 분야 대상을 수상했다. 별마당 도서관은 디자인뿐만 아니라 환경적 지속가능성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아 환경 디자인 부문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신세계백화점



**대상 '청정원 나눔수룩 맛있는 2018개의 행복' 나눔행사**  
대상은 5일 서울 광화문 북광장에서 '청정원 나눔수룩 맛있는 2018개의 행복'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행사에는 대상 임정배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직원, 청정원 주부봉사단, 대학생봉사단 등 약 25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일일 산타로 변신했다.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왼쪽부터), 배우 김성령, 권용석 대상 상무, 진성준 서울시정무부시장(오른쪽부터), 정연보 서울시사회복지협의회장, 한명숙 청정원 주부봉사단장, 대학생봉사단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대상

## 카카오벤처스, 벨류업파트너 팀 신설

정욱 넵툰대표, 조재우 스팀증인 선임

카카오벤처스가 벨류업파트너팀을 신설하고 게임 부문에 정욱 넵툰대표, 블록체인 부문에 조재우 스팀 증인을 선임했다고 5일 밝혔다.

게임 부문에는 정욱 넵툰대표가 '게임체인저'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 카카오벤처스는 2012년 넵툰에 5억원을 투자 후 두 차례에 걸쳐 65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블록체인 부문에는 스팀 증인인 조재우 증인이 '벨류 마이너'라는 명칭으로 활동한다. 스팀 증인은 블록체인의 기반 콘



정욱 넵툰 대표

조재우 스팀 증인

텐트 플랫폼인 스팀(Steem)의 블록체인 합의 매커니즘 설계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전 세계에서 20명이 활동 중이다. 국내에선 조 증인이 유일하다.

/구서준 기자 yuni2514@

## 센터링

(Centering)



진성오 소장의

심리학

자신이 좋아하는 오빠에게 사랑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 학생을 상담하고 있다. 누군가를 좋아하면 속 빠져드는 순진한 마음 때문인 듯 오빠 마음에 들기 위해 노심조사다. 심지어 필자에게 카톡을 다 보여주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묻는다.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결과는 짐작할 수 있다. 여학생이 그 오빠를 사귀게 되면 사귀지 않게 되던 결국은 여학생은 매력 없는 여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본질적인 하나가 채워지지 않으면 항상 매력 없는 여자로 남게 될 것이다.

쇠똥구리 한 마리가 있었다. 그 쇠똥구리는 쇠똥을 둥글게 만들어 굴리는 일을 했다. 그런데 다른 곤충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냄새가 나고 더러우니 꺼지라며 쇠똥구리를 놀렸다. 쇠똥구리를 슬퍼했다. 다른 곤충들에게 인정받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날 쇠똥구리는 다른 곤충들이 나비의 아름다움을 이야기 하고 나비를 칭송하고 나비와 친해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쇠똥구리는 자신도 나

비와 같이 다른 곤충들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 위해 여러 꽃들의 즙으로 자신을 화장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곤충들은 박장대소를 하면서 모두 쇠똥구리를 더 심하게 놀렸다. 당황한 쇠똥구리는 황급히 피해서 산 깊은 곳에 숨듯 도망가서 어느 바위틈에서 영영 울었다. 정신을 놓고 영영 울다가 쇠똥구리는 잠이 들었다. 쇠똥구리는 아주 예뻐진 모습의 자신이 모든 곤충들이 칭찬하고 좋아하고 사귀고 싶어 하는 꿈을 꾸었다. 그렇게 행복한 꿈을 꾸다가 깨었을 때 깊은 밤이 된 것을 알게 되었다. 킁킁한 숲 바위틈에서 쇠똥구리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들어 별들이 초롱초롱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하늘에서는 무수한 별들이 각자의 빛깔과 색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한 순간 쇠똥구리의 두 눈에는 방금 전 영영 울었을 때의 눈물과는 뭔가 다른 따뜻한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 마음에서 나오는 눈물인 듯 했다.

다음날 다시 곤충들이 있는 곳으로 온 쇠똥구리는 아침 일찍부터 소가 싼 똥을 가지고 더 둥글고 아주 예뻐 보이도록 둥글게 열심히 쇠똥을 굴리기 시작했다. 다른 곤충들이 역시 쇠똥구리를 놀렸다. 그러나 쇠똥구리는 그다지 마음 아파하지 않은 듯 하였다. 별 관심을 두지 않고 열심히

히 열심히 자신이 만들 수 있는 둥근 예쁜 쇠똥을 만들었다. 쇠똥구리는 더는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다.

언더그라운드 심리학에는 'Centering'이라는 개념이 있다. 심리학에서 말하는 센터링은 자신이 자신의 중심에 와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신이 자신 마음의 중심에 도달하게 되면 그 사람은 우주의 중심에 도달한 것이다. 중심에 도달하면 모든 것들은 변방이 되는 것이다. 자기가 자신이 된 순간 그냥 자기 자신으로 거짓 없이 살아가게 된다. 누구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 애쓰지 않고 자기 자신을 화장하고 눈에 띄게 하기 위해 거짓된 자기를 만들지 않는다. 자신이 되고 싶은 자신과 비교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슬프고 비난하고 상처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여학생이 바로 이것을 아는 지점에 도달한다면 오빠로부터 사랑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이다. 그것은 그 오빠와 사귀는지 사귀지 않는지와는 상관 없는 종류의 것이다. 왜냐하면, 누굴 사귀든 혹은 사귀지 못하던 바로 그 사람이 자기 자신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쇠똥구리는 자신의 마음에 중심에 '센터링'될 때 진짜 쇠똥구리가 되는 것이다.

/당신의 마음 연구 소장

## 신동빈 회장, 베트남 총리와 투자확대·협력 논의

(롯데그룹)

### 경영복귀 후 첫 해외 일정 대규모 복합단지 사업 챙겨

롯데는 신동빈 회장은 지난 4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응웬 쉰 푹 베트남 총리를 만나 투자 확대 및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고 5일 밝혔다.

신 회장은 베트남 총리를 만나 롯데의 사업 현황을 설명하고, 추진중인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양국의 관계 강화를 위한 상호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경영복귀 후 첫 해외 일정에서 나선 신동빈 회장은 지난 3일 베트남에 도착해 현지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3일에는 하노이시 인민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현재 롯데는 베트남에서 대규모 복합

단지 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호치민시가 경제허브로 개발 중인 투티엠 지구에 백화점, 쇼핑몰, 호텔, 오피스 및 주거 시설 등으로 구성된 '에코스마트시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하노이에는 '롯데몰 하노이'를 건설할 계획이다.

롯데는 1990년대 베트남에 첫 진출하여 식품·외식·유통·서비스·건설 등 다양한 부문에서 활발하게 사업을 펼치고 있다. 롯데제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롯데지알에스, 롯데자산개발, 롯데호텔, 롯데면세점 등이 진출해 있으며 약 1만5000명의 임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롯데는 베트남의 성장 잠재력이 높고 평가해 지속적인 투자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또한 양국의 교역 확대에도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인용 기자 parku7854@metroseoul.co.kr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응웬 쉰 푹 베트남 총리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지주

## KT&G, '상상나침반캠프' 4기 모집

1월 6일까지 홈페이지서 접수

KT&G가 대학생들에게 다양한 직무 탐색 기회를 제공하는 '상상나침반캠프' 4기 참가자를 오는 1월 6일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상상나침반캠프'는 진로 선택으로 고민하는 대학생들을 위해 KT&G가 개발한 진로 설정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



은 2박 3일간의 합숙기간 동안 역량 진단과 직무 분석, 진로 로드맵 수립 등의 커리큘럼을 통해 향후 진로 방향 설정에 도움을 받고, 구체적인 취업 목표를 세울 수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직무 강의 확대로 산업 및 직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하며, 개인별 자기계발계획서에 대한 전문가 피드백도 받을 수 있다. 또한 합숙기간 동안 개별 전담 멘토가 배정되어 더욱 세밀한 상담이 가능하다.

대학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KT&G 상상유니브 홈페이지에 지원서를 작성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심사를 거쳐 최종 100여명이 선발되며, 캠프는 내년 1월 23일부터 25일까지 KT&G 인재개발원에서 진행된다.

/박인용 기자

### 인사

- ◆ **환경부** ◇ 국장 승진 △국립생물자원관 생물자원활용부장 서흥원 ◇ 국장급 전보 △상하수도정책관 황계영
- ◆ **아시아투데이** 보임 △산업부장 송강섭 △4차산업부장 홍성울

- ◆ **동원그룹** ◇ 테크팩솔루션 신임 △대표이사 서범일 ◇ 동원팜스 △대표이사 정준오

### 부음

- ▲ 김수윤씨 별세, 김준환(더본병원 대표원장)·부미(서울보증보험 화성대리점 대표)·지영(더본병원 총무과장)·지선(튼튼은누리약국 대표약사)씨

부친상, 이해영씨 시부상, 이성태(KT 부장)·정용웅(광원엔지니어링 대표)씨 장인상 = 5일 오전 0시, 광주 그린장례식장 신관 2층 VIP실, 발인 7일 오전 9시.

▲ 이창복씨 별세, 이성원(전 KT)씨 부친상, 이현수(전자신문 기자)·준수 씨 조부상 = 5일, 청주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7일, 010-4369-1009.



# 외식업계, 스테이크로 즐기는 화려한 만찬의 향연

**빽스 '그랑 파티 에디션' 콘셉트 만찬 아웃백 '블랙 라벨 셰프 에디션' 선봬 매드포갈릭 겨울 시즌 테마 7종 구성 도미노피자 랍스터와 스테이크의 만남**

외식업계가 연말을 맞아 '스테이크'를 활용한 화려한 만찬 메뉴를 선보이고 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우수한 마블링과 뛰어난 육질을 자랑하는 최상급 품종 스테이크에 랍스터, 크렌베리 등 특별한 가니쉬를 더하거나 특제 소스를 더해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만찬 형태의 메뉴를 내놓고 있다.

빽스가 본격 연말 시즌을 맞아 샐러드 바부터 스테이크, 디저트까지 가치를 높인 다채로운 신메뉴를 출시하고 '그랑 파티 에디션'(GRAND PARTY EDITIO



350 티본 스테이크(왼쪽),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



/매드포갈릭·도미노피자

N)'이라는 콘셉트로 완벽한 연말 만찬을 선보인다. 새우 신메뉴 3종과 연어 베스트 메뉴 4종으로 샐러드 바를 풍성하게 채웠고, 대표적인 메뉴로는 해산물 스투 '슈림프 부야베스'와 '슈림프볼 크림 그라탕' 등이 있다. 특히, 겨울 시즌 한정 스테이크로 채끝 등심 스테이크와 랍스터 구이, 키조개 껍질에 올린 씨푸드 그라탕을 한꺼번에 즐길 수 있는 '그랑 파티 스테이크'와 두툽한 립아이 스테이크에 크렌베리를 둘러 제공하는 '메리 베리 스테이크' 등 2종도 선

빽스 그랑 파티 스테이크. /CJ푸드빌

보인다. 아웃백 스테이크하우스가 아웃백의 수석 셰프가 겨울에 어울리는 식재료를 엄선한 메뉴로 구성된 '블랙 라벨 셰프 에디션'을 내놓았다. '블랙 라벨 셰프 에디션'은 아웃백 블랙 라벨 스테이크에 뉴질랜드산 램 스테이크 또는 캐나다산 그릴드 랍스터 테일이 더해지는 2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램 스테이크는 6개월 이하 뉴질랜드 청정지역에서 자란 어린 양을 엄선해 아웃백만의 시즈닝을 더하여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며, 그릴드 랍스터 테일은 갓 잡은 캐나다산 랍스터를 급속 냉동해 탱글탱글하고 짭짤 속살이 두툽한

스테이크의 맛을 더욱 풍성하게 한다. 매드포갈릭은 겨울을 맞아 신메뉴를 출시했다. 이번 신메뉴는 '눈꽃설레임'으로 그대와 마주하다'라는 시즌 테마를 바탕으로 윈터 스테이크 4종과 리조토, 파스타 3종 등 총 7종으로 구성됐다. 중 프리미엄 스테이크 라인인 티본 스테이크와 본인립아이 스테이크는 합리적인 가격과 더불어 이와 최적의 조화를 이루는 매드포갈릭 대표 메뉴가 함께 제공된다. 매드포갈릭의 티본 스테이크는 T자모양의 뼈를 중심으로 안심과 채끝 등심을 동시에 맛볼 수 있는 부위로, 함께 제공되는 갈릭 버터 포테이토와 환상의 조합을

이룬다. 또한 500g의 두툽한 두께를 자랑하는 본인립아이 스테이크는 갈비살과 등심, 새우살로 구성돼 다양한 식감을 맛볼 수 있는 부위로 스테이크 본연의 깊은 풍미를 선사한다.

도미노피자는 겨울 신제품으로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를 출시했다. 이번에 선보인 겨울 신제품 '블랙앵거스 스테이크 피자'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상급 스테이크 '블랙앵거스 스테이크'에 부드러운 랍스터 살(랍스터 두홍부 살)만 다져 감칠맛을 극대화 한 '랍스터 볼', 거기에 모차렐라, 페타크림, 리코타 등 3가지 치즈 블렌딩을 올린 프리미엄 스테이크 피자다. 특히 우수한 마블링의 블랙앵거스 스테이크는 뛰어난 육질과 풍미로 고급스러운 맛을 선사하고 랍스터 볼이 감칠맛을 더하며 연말을 맞이한 가족의 따뜻한 겨울 만찬을 완성한다.

업계 관계자는 "외식업계가 연말을 맞아 스테이크를 찾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맛과 형태의 만찬을 제공하고 있다"며 "특히 우수한 품질의 스테이크는 물론 랍스터 등 특별한 가니쉬와의 조합이 많은 사랑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인용 기자 parkiu7854@metro.co.kr



## '홍삼담은 석류스틱' 中 대륙을 사로잡다

**KGC인삼공사 굿베이스**

**면세점 론칭 후 입소문 타고 매출 ↑**

KGC인삼공사 굿베이스의 '홍삼담은 석류스틱'이 중국인 고객들 사이에 큰 인기를 끌고 있다.

5일 KGC인삼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정관장 6년근 홍삼과 여성에게 좋은 '석류과즙농축액'을 함께 담아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홍삼담은 석류스틱'을 선보였다. 제품의 장점을 살려 지난해 8월 면세점 채널에 본격 론칭했다.

면세점 론칭 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특히 중국인 고객들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해 월평균

약 51%씩 판매량이 성장했고, 올해 3분기에는 전분기대비 약 420%의 매출성장을 보였다. 일부 매장에서는 중국인들의 다량 구매에 품절사태를 보이기도 했다.

KGC인삼공사에서는 중국인 고객들이 '석류'를 여성건강 위한 소재로 많이 찾는다는 점에 착안해 '홍삼담은 석류스틱'을 면세점에 런칭 시켰다. 이와 더불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고객들이 제품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한국 여행 플랫폼과의 제휴마케팅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한 것도 주효했다.

송상욱 KGC인삼공사 브랜드실 부장은 "중국인 고

객들의 석류 제품에 대한 선호도와 더불어 믿을 수 있는 한국제품, 특히 정관장에 대한 신뢰도가 합쳐지면서 높은 구매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홍삼과 더불어 새로운 건강소재들에 대한 끊임없는 개발을 이어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박인용 기자



## "벌써 설날 준비?" 롯데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품목 축소·인기 세트 구성 늘려 가격 전년수준 동결·추가 인하**

명절 선물세트 사전예약 매출 비중이 점차 늘어나며, 롯데마트가 역대 최장 50일 간의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다가오는 설을 맞아 지난해 설보다 1주일 가량 앞당겨진(D-day 기준/D-63일) 오는 6일부터 내년 1월 24일까지 50일간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사전예약 판매 기간 중에 최대 40%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구입할 수 있어 법인 등 대량구매 고객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 역시 이 기간 선물세트를 구입하는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롯데마트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매출 비중은 25%를 차지했으며, 올해 설의 경우 이보다 높은 27%,



추석은 지난해 설 대비 10%p 높은 35%를 기록하는 등 지속 매출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이번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품목 수는 지난 추석 때 대비 100여 종을 줄여 200여 종을 선보이는 대신, 고객 선호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물량은 20% 가량 늘리고 할인 혜택을 강화하는데 주력했다.

신선식품 선물세트를 중심으로 사전 물량 계획을 통해 가격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거나 추가로 가격을 인하했으며, 롯데, 비씨, 신한, KB국민카드 등 10대 카드(자세한 카드 종류는 매장 내 고지물 참조)로 결제 시 최대 40%의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김영란법 개정안 통과로 농·축·수산물 함량이 50%가 넘는 상품에 한해 상한선이 10만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처음 선보인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배(9인)'와 '천하제일 귀하게 자란 큰 사과(12인)'를 9만9000원에서 추가로 1만원 인하된 각 8만9000원에 선보인다. 또한, '한우 갈비정육세트(한우 냉동 찜갈비/국거리/불고기 각 0.7kg, 양념 소스·사진)'의 경우도 사전예약 판매 기간 동안 지난해 해와 동일한 9만9000원에 구입이 가능하다.

롯데마트는 설 선물세트 사전예약 판매 기간에만 만나볼 수 있는 단독 선물세트도 선보인다. 대표적으로 '천일염 참굴비 세트 1호(10마리/마리당 80g 내외)'와 '건강버섯 특선세트(상황 100g/영지 200g/차가 300g)', '호주산/미국산 냉동 LA 갈비(호주산/미국산 냉동 꽃갈비 1.5kg\* 2입)' 등이 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 SPC그룹, 블렌디드 티 브랜드 '티트라' 론칭

**최상위 품질 원료, 최적의 비율로 섞어**

SPC그룹이 블렌디드 티 브랜드인 '티트라(Teatra)'를 론칭했다고 5일 밝혔다.

티트라는 SPC그룹의 연구소인 이노베이션랩의 연구원들이 약 3년 동안 세계 주요 산지를 돌며 찾아낸 최상위 품질의 차(茶) 원료를 최적의 비율로 섞어 탄생시킨 프리미엄 티다.

브랜드명인 '티(tea)'와 '트라(tra)'는 '차(茶)'와 '여행(travel)'의 합성어로 '차와 함께 하는 여행, 차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의미를 담았으며, 전통적인 차의 이미지에 고유의 서체와 네이밍, 패키지 디자인을 통해 젊고 현대적인 감성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티트라는 티백 제품과 제조음료 2가지 형태로 선보인다. 먼저, 티백 제품은 홍차 3종, 녹차 3종, 허브차 6종 등 12종으로 ▲홍차 계열 제품은 퍼스트브레이크, 비차이, 영 그레이 ▲녹차 계열 제품은 하동 시스터즈, 프루티 하동, 하동 플로리스트 ▲허브차 계열 제품은 셀럽 허비스, 윈터 프루트치, 커즈 마인, 런 마테, 민트 크루, 오렌지 보스 등이다.



SPC그룹이 블렌디드 티 브랜드 '티트라'를 론칭했다. /SPC그룹

홍차 계열 제품은 전통적인 제조법을 고수해 만든 인도 아쌈(Assam), 중국 안후이(安徽) 성의 대표 특산물이자 세계 3대 홍차로 일컬어지는 기문(祁門)홍차에 베르가못(Bergamot, 홍차, 향수 등에 사용되는 감귤의 일종)향 등을 조화시켜 깊은 풍미를 갖췄다.

녹차 계열 제품은 한국의 전통 차 시배지(始培地)인 경남 하동 산(産) 녹차와 발효차에 꽃, 건과일 등을 조화시킨 '가향(加香, Flavored)녹차'이며, 허브차 계열 제품의 경우 기존의 민트, 허비스커스, 루이보스, 마테 등에 꽃, 건과일, 향신료 등을 더해 개성 있는 풍미를 표현해냈다.

각 브랜드마다 차별화한 제조음료도 총 48종을 선보였다. /박인용 기자

### 유통 단신

#### 빙그레

**'글레도르 크림치즈바' 2종**

빙그레는 프랑스 크림치즈 브랜드 까리와 과일시럽을 접목한 글레도르 크림치즈바 신제품 2종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글레도르 크림치즈바 신제품은 까리크림치즈 16% 이상을 함유한 프리미엄 아이스크림으로 치즈와 궁합이 잘 맞는 딸기, 블루베리를 접목해 좀 더 많은 소비자가 부담없이 즐길 수 있도록 구현했다. /박인용 기자

#### 투썸플레이스

**크리스마스 케이크 출시**

투썸플레이스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에 선보이는 대표제품은 크리스마스의 상징인 리스(화환 모양의 장식품)를 감각적으로 표현한 왕관(Tiara) 콘셉트의 '크리스마스 티아라'다. '크리스마스 티아라'는 휘낭시에 위에 헤이즐넛 초콜릿 무스, 만다린 주레, 견과류가 함께 씹히는 케이크다. /박인용 기자





# 허기사회, 먹방으로 달랜다지만... 이리다 초비만國 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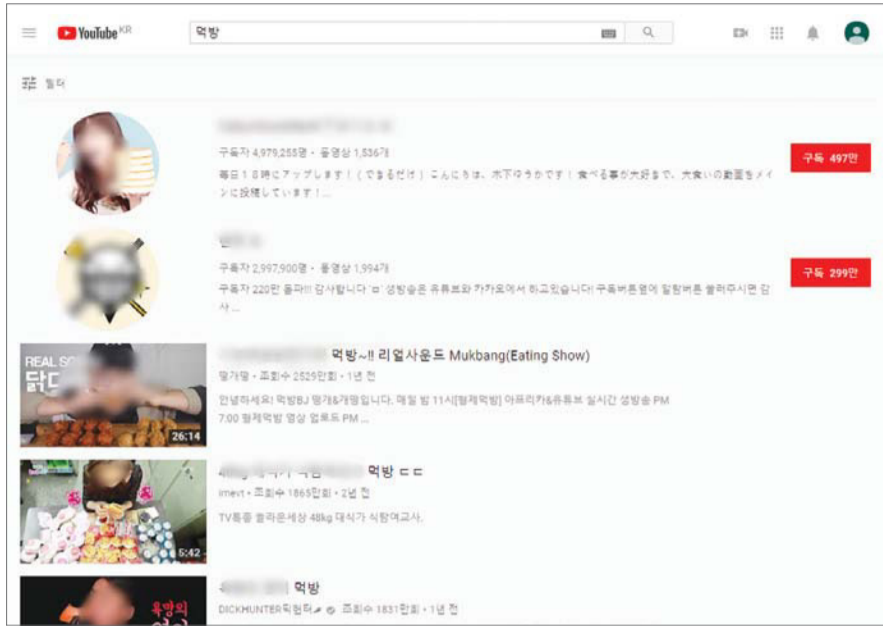
**폭식조장 미디어 가이드라인 개발  
부작용 호소하는 사람 늘어  
규제 필요성 목소리 높아져  
일각서 “지나친 규제”라며 반발도  
건강 식생활 미디어 환경 協 구성**

요즘은 외로움을 ‘먹방(먹는 방송)’으로 달래는 ‘허기사회’다. 먹방은 1인 가구 증가와 함께 폭발적인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7월 ‘국가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하며 “건강한 식품선택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폭식 조장 미디어·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모니터링 체계도를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두고 야당 등 일각에서 “지나친 규제다”, “국가주의적 발상이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가이드라인”이라며 사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최근 먹방으로 인한 부작용(폭식·비만)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다.

먹방이 폭식과 비만을 유발할까. 국민



조회수 순으로 정렬한 먹방 유튜브 영상 모습.

/유튜브 화면 갈무리

건강보험공단이 지난달 공개한 ‘2018년 비만에 대한 인식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먹방이 비만 유발을 조장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61.2%가 ‘그렇다’고 답했다. 사람들은 방송에서 보여주는 화려한 음식이나 과도한 포식 영상이 불필요한 허기나 식욕을 촉진, 비만을 일으킨다는 데 동의했다.

또 설문 참가자 10명 중 6명(60.5%)이

본인의 현재 체형에 대해 ‘매우 살이 찌거나 살이 찼 편이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객관적인 비만 수준이 높을수록 본인의 주관적 비만 수준에 대해 유의하게 높게 평가했다고 공단은 설명했다.

먹방이 언론에 본격적으로 오르내리기 시작한 건 2013년이다. 영화 ‘황해’의 주인공 하정우가 국밥과 김 등을 맛갈나게

먹어치우는 모습이 화제가 됐고, 이후 ‘아빠 어디가’ 등의 TV 프로그램과 유튜브 등에서 ‘먹방’ 열풍이 불었다.

먹방의 인기가 치솟을수록 비판율도 높아져만 갔다. 국내 비판율은 2014년 이후 꾸준히 오름세다. 보건복지부의 통계 자료를 보면, 2014년 30.9%였던 국내 비판율은 2015년 33.2%, 2016년 34.8%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먹방 규제 반대론자들의 “먹방은 대리만족일 뿐 실제 폭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주장과 상반되는 부분이다. 실제 연구 결과도 있다.

대한비만학회 유순집 이사장(가톨릭대 부천성모병원 내분비외과 교수)은 지난 1월 한 기자 간담회에서 “먹방 프로그램이 급증하면서 비정상적인 식욕의 자극이 심해졌다”며 “이로 인해 젊은 층의 비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대 ‘두뇌와 인지 연구실’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며, “음식 사진을 보여주지 전후 뇌의 MRI 사진을 비교해봤더니 욕망과 관련된 부분의 신진대사가 24% 늘어났다”고 했다.

영국 리버풀대 연구진은 SNS 스타의 먹방 영상을 본 아이들은 평균 448칼로리를 섭취했고, 이를 보지 않은 아이들은 평

균 357칼로리를 소비했다고 밝혔다. 칼로리 섭취량에서 26% 차이가 발생했다는 뜻이다.

OECD는 우리나라 고도 비만 인구가 2030년에는 2015년(5.3%)의 약 2배인 9%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도 막대하다. 2006년 4조8000억원에서 2015년 9조2000억원으로 최근 10년간 약 2배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비만을 질병으로 분류하고, 암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영기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과 과장은 “내년 상반기에 먹방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현재 방송국 관계자,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비만·의학 전문가, 시민소비자단체를 주축으로 한 ‘건강 식생활 미디어 환경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부에서 먹방을 규제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식생활을 익힐 수 있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방송을 만들 수 있게 전문가 협의체와 연구용역 결과를 논의해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연말, 따뜻함을 기부합니다” 자선 이벤트 나선 특급호텔

**객실금액 기부·트리 전시 등 행사  
내년 1월까지 나눔행보 적극 동참**

호텔업계가 연말을 맞아 자선 이벤트에 활발히 나서고 있다. 객실 금액의 일부를 기부하거나, 크리스마스 트리 전시를 통해 기부를 받는 등 다양한 자선 행사가 진행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급 호텔들이 내년 1월까지 자선 이벤트를 열고, 나눔행보에 적극 동참한다.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는 연말을 맞이해 지난달 15일부터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Christmas Tree of Hope)’ 자선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 이벤트는 강남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에서 진행하는 ‘2019 따뜻한 겨울나기 사업’ 행사의 일환으로, 모인 기부금은 모두 강남구 저소득층 주민을 위해 쓰일 예정이다. 호텔 로비에 전시된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지난 2003년부터 16년째 매년 연말에 진행되는 특급 호텔 업계 대표 자선행사다.

올해 희망의 크리스마스 트리는 200개의 낙상용 화병으로 특별 제작됐다. 후원사의 로고 또는 후견인이 원하는 ‘사랑의 카드’가 부착된 화병들이 내년 1월 6일까지 호텔 로비에 전시된다. 낙상용 화병의 가격은 작은 사이즈 개당 10만원, 큰 사이즈 개당 100만원이며,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

글래드 호텔도 내년 1월 31일까지 ‘글래드 산타 패키지’를 실시, 기부 행렬에 동참한다. 글래드 호텔의 여의도, 마포, 강남 코엑스센터, 라이브 강남 등 서울 지역 4개 지점이 참여하고, 매종글래드 제 주도 동참했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내년 1월 13일까지 ‘진저브레드 자선 행사’를 진행한다. 이 행사는 매년 연말마다 진행되는



글래드 호텔이 자선이벤트 ‘산타 패키지’를 진행한다.

/글래드 호텔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이 ‘진저브레드 하우스’ 자선 행사를 선보인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나눔 프로젝트로 올해로 9년째다.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은 개인 및 기업 고객으로부터 기부금을 전달 받아 해당 고객의 사진과 메시지 등을 진저브레드에 새겨준다. 기부금의 최소 금액은 개인과 기업 각각 10만원, 20만원부터다. 기부금 전액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후원회와 한국다문화센터의 후원금으로 전달된다. 기부 접수는 오는 27일까지다.

힐튼 부산은 이색 기부 트리를 마련했다. 프렌치 파티쉐의 손길을 거쳐 완성된 마카롱을 활용해 대형 트리를 만든 것. 약 30cm 높이의 마카롱 트리를 5층 계단 형식으로 쌓아올리고, 화사한 불빛을 더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살렸다.

힐튼 부산은 10만원 이상 기부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대형 마카롱 트리에 이름 또는 회사명을 각인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부금은 부산 기장지역의 아동복지센터 ‘드림 스타트’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생고뱅, 삼성 납품 위해 송도에 공장 설립

(프랑스 기업)

**연면적 1만3000㎡ 규모로 건립  
바이오횰약품 160여종 확대 공급**

프랑스 기업 ‘생고뱅’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하기 위해 인천 송도에 공장을 세운다. 이 공장은 인천 송도에 연면적 1만3000제곱미터(㎡) 규모로 건립되며 오는 2020년 완공될 예정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프랑스 소재 글로벌 회사인 생고뱅(Saint-Gobain)과 싱글유즈(Single-Use) 원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싱글유즈 원부자재는 바이오의약품 생산 및 개발에 사용되는 1회성 플라스틱 부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번 계약에 따라 생고뱅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튜빙, 필터, 호스 등 바이오의약품 싱글유즈 원부자재를 최대 160여종까지 확대 공급할 수 있게 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사장(왼쪽)과 생고뱅 로흐기용 CEO가 4일 송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에서 싱글유즈 원부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소량 생산하는 제품들은 싱글유즈 원부자재를 사용해 생산하는데, 그동안 원부자재를 해외 공장에서 공급받다 보니 수입 및 통관을 거쳐

느라 시간이 오래 소요되었다. 하지만 이번 계약을 통해 싱글유즈 원부자재 국내 공급이 가능해져 조달 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게 되었다.

생고뱅은 매출 408억유로, 임직원 17만 9000명인 프랑스의 대표 기업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올해 4월 전략적 파트너십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지난 9월 인천경제청과 송도에 연면적 1만 3000㎡ 규모의 하이테크 바이오프로세스 제품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으며 2020년 공장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인천 송도를 중심으로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는 동시에 국내 기업을 육성해 원부자재 조달을 안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적극적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이세경 기자 seel@

## 설화수, 피부케어 ‘여온오일’ 5종 출시

설화수가 피부를 맑고 윤기나게 케어하는 ‘여온오일’ 5종(사진)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여온오일은 자에서 추출한 해송자유와 귀한 한방 성분이 피부에 풍부한 수분과 영양을 공급해 건강한 윤기와 맑은 피부를 선사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빛, 나무, 꽃, 열매, 뿌리 등 자연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한 다섯 가지의 섬세하고 아름다운 향은 내면의 감성을 일깨운다. 푸른 숲길의 청량함을 담은 청야지향, 대화의 꽃잎에서 전해지는 은은한 봄을 표현한 백화지향, 빛의 고귀함과 온화함을 전하는 윤조지향, 붉은 열매의 싱그러움을 담은 흥서지향, 땅속 뿌리가 내뿜는 심연의 에너지를 담은 흑여지



향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청야지향, 백화지향, 윤조지향은 산뜻한 라이트 타입으로, 흥서지향과 흑여지향은 리치 타입으로 출시됐다. 바르는 순간 끈적임 없이 유연하고 부드럽게 흡수되면서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찾아준다.

/김민서 기자

## SK바이오팜

### 美 뇌전증학회 참가

SK바이오팜이 미국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2018 미국뇌전증학회 연례회의(AES Annual Meeting 2018)’에 참가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72회째를 맞는 이 행사는 뇌전증과 신경 생리학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질환을 연구하고 새로운 치료법을 논의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학회로, SK바이오팜은 미국 시장 진출의 첫 단계로 지난해부터 단독 부스를 마련해 본격적인 글로벌 홍보를 시작했다.

SK바이오팜은 지난 1~3일 포스터 발표 세션에서 전문가들에게 뇌전증 치료제 신약 후보물질 세노바메이트의 대규모 3상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이세경 기자



# 삼성 임직원 15년째 '쪽방 밀집촌' 온정 나누기

## 5700여 가구 찾아 생필품 전달

삼성은 5일 연말을 맞아 주요 계열사 임직원들이 주요 도시의 쪽방 밀집촌을 직접 찾아 봉사활동을 벌였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삼성SDI,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의 임직원 270여명은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인천 등 5개 도시의 쪽방촌 10곳에 있는 5700여 가구를 찾았다.

이들은 주민들에게 쌀, 장조림 캔, 곰탕 파우치 등 장기 보관이 가능한 부식류로 구성된 생필품을 전달했다.

삼성의 연말 쪽방 봉사활동은 지난 2004년 시작돼 올해로 15년째를 맞았다. 매년 약 3억 원 규모로 지원해 올해까지 총 50억원 상당의 생필품을 9만5000여 가구에 전달했다.

이인용 삼성전자 사회봉사단장은 "앞으로



삼성 임직원들이 쪽방 밀집촌을 찾아 온정을 나누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삼성전자

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데 계열사 대표이사과 임직원들

이 정성과 마음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용 기자 juk@metroseoul.co.kr

# '등고자비' 수소차 확보 정책

(登高自卑)



기지수첩

정연우 (산업부)

불경(佛經)을 보면 어느 부자가 다른 사람이 지은 삼층 정자를 보고 목수를 불러 똑같이 정자를 짓게 했는데 일층과 이층은 짓지 말고 아름다운 삼층만 지으라고 했다는 일화가 있다.

기초부터 쌓을 생각은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화려함부터 찾는다는 이야기다.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 아래서부터 시작하지 않고서는 정상에 도달할 수 없다.

정부의 수소자동차 확보 정책을 보면 '등고자비(登高自卑)'가 떠오른다. 정부는 수소차 확대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그 하부구조라고 할 수 있는 수소차 충전소의 숫자는 현재 터무니없이 적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책정한 2019년도 수소차 보급 예산에 따르면 1237억원으로 올해보다 8배 이상 급증했다. 수소차 한 대당 22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모두 5500대의 수소차를 소비자들이 사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 6년간 보급된 수소차가 570대 정도였다는 것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

급된 모든 수소차보다 9배 이상 더 많아지는 셈이다.

그러나 전국에 있는 수소차 충전소는 경기도가 3곳, 서울 2곳, 부산 1곳으로 대전과 세종시, 충북, 전북, 전남은 한 곳도 없다.

정부는 내년에 30곳의 충전소를 더 짓기로 결정했지만 완공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이 걸리는 상황이다.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수소충전소의 국산화 정도다. 설치비용을 내리는데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수소충전소의 국산화율은 40% 정도로 수소충전소의 부품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장비 확보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 환경부가 50%를 지원하는 수소충전소 1기 설치비용은 30억원이다.

관련 민원이 발목을 잡는다는 의견도 있다.

이처럼 정부는 혁신성장을 위해 수소차를 8대 선도산업의 하나로 내세우고 있지만 그 사업적 기반은 너무나 약해 보인다.

속전속결이 능사는 아니다. 작은 걸음이라도 한 걸음씩 가면 멀리 갈 수 있다. 그러나 그 작은 걸음을 경시하고 속성으로 일을 처리한다면 허점이 드러나게 마련이다. /ywj964@metroseoul.co.kr

# 애경산업 보육원 아동과 '힐링&여행 문화체험'

애경산업은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5~6일 양일간 보육원 아동을 위한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을 지원하는 행사를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애경산업은 연말을 맞아 소외된 아동들이 생활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아동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고 그들에게 소중한 추억을 심어주기 위해 이와 같은 행사를 마련했다.

애경산업은 '힐링 & 여행 문화체험'에 필요한 교통, 숙식 등의 경비를 전액 지원한다. 대상으로 선정된 충남 부여 소재 삼신보육원

의 아동 40여 명은 1박 2일 동안 레고 체험과 영화관람 및 광명동굴, 아쿠아리움, 놀이공원 등을 견학한다.

애경산업의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은 사랑(愛)과 존경(敬)이라는 기업이념과 나눔경영을 실천하고 소중한 추억을 선물하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은 지난 9월 미혼한부모 가정을 위한 '2박3일 독도탐방 힐링 캠프'를 시작으로, 11월에는 전남 장성 소재의 상록원 아동을 위한 '1박 2일 서울근교 힐링캠프' 등을 진행했다.



애경산업은 사단법인 희망을나누는사람들과 함께 1박 2일간 보육원 아동을 위한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을 지원한다.

/애경산업

애경산업 관계자는 "힐링 & 여행 문화체험"을 통해 다양한 지역의 소외 이웃들이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민서 기자 min0812@

## 오늘의 운세 12월 6일 (음 10월 29일) http://www.saju4000.com

- 쥐** 48년생 좋은 말로 속삭이는 이를 경계. 60년생 불행은 입 밖으로 내뱉는 순간 걸잡을 수 없이 커진다. 72년생 말따위의 거래를 잘 살펴야 한다. 84년생 동분서주(東奔西走)하나 결과는 오후에 좋을 것.
- 소** 49년생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는 가지 않는 법. 61년생 뜻하지 않는 행운에 기분이 좋은 날이다. 73년생 무더위가 가면 그늘 덕은 잊어버리니 마음을 접어라. 85년생 최선의 해결책은 양보와 타협이다.
- 호랑이** 50년생 어제의 친구가 오늘은 적이 되어오니 주의. 62년생 자손에게 좋은 소식이 오니 기쁘다. 74년생 기다린다고 기회는 오지 않으니 스스로 노력. 86년생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
- 토끼** 51년생 입이 경솔하면 될 일도 안 된다. 63년생 남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주관을 갖고 행동하라. 75년생 가족 간에도 공과 사는 분명히. 87년생 회로에 락을 함부로 얼굴에 나타내면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 말** 52년생 깊은 물에 고기가 모이는 법이니 야량을 베풀자. 64년생 금전 문제로 가족 간의 불화가 예상. 76년생 원하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도 들어온다. 88년생 내키지 않아도 웃어야 하니 서글프다.
- 뱀** 53년생 고목에 꽃이 피니 좋은 일이 있겠다. 65년생 강을 건넌어도 배는 소중히 보관해야 한다. 77년생 자신을 이기지 않고는 한 발자국의 진보도 없다. 89년생 좋은 것이 좋은 것을 부르니 생각을 바르게.

- 말** 54년생 행복은 가정의 화목에서 비롯된다. 66년생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은 경계해야 한다. 78년생 재물로 인한 갈등이 생겨도 나에게 유리한 날. 90년생 눈앞의 실수를 챙기다 보면 큰 것을 놓친다.
- 양** 55년생 한번을 참으면 열흘이 편하다. 67년생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망설이다가 놓칠 수 있으니 결단이 필요. 79년생 게으른 예술가가 만든 명작은 없다. 91년생 남의 말은 사흘을 가지 않으니 신경 쓰지 마라.
- 원숭이** 56년생 서두르지 말고 한발 물러서서 생각. 68년생 고집을 부리면 부모도 외면한다. 80년생 위대한 것을 위해 좋은 것을 포기하는 것을 두려워 마라. 92년생 걱정이 해소되고 마음이 편안한 하루.
- 닭** 57년생 성공의 기미가 보이니 적극적으로 행동. 69년생 일이 지체되면 오늘 밤부터 잠자는 방향을 바꿔보라. 81년생 아직은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라. 93년생 남에게 존심치는 내게로 돌아온다.
- 개** 58년생 병이 왔으나 약도 주여지지 실망은 금물. 70년생 비빌 언덕이 필요한 하루이다. 82년생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니 알아서 판단. 94년생 지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후회하지 않는다.
- 돼지** 59년생 보라색 옷이 행운을 불러오니 기분전환이 된다. 71년생 가뭄에 비오듯이 모든 일이 순식간에 해결. 83년생 낙수물에 바위가 뿔리는 법이니 꾸준한 노력이 필요. 95년생 원하는 일은 언제나 멀리 있다.

# SUDOKU

##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 듬뿍! 아이큐 쑥쑥!

-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 가로·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2	7	8					9
	6			4		1		5
	4			6				3
		3	4					
			5			7	2	
		2		7	8			6
1	3		7		4			2
		4				3	1	7
		5						

					6	4	3	
					8			1
		4	2	5	1	7		
	3		8	6	9			1
	6				2			8
	8							4
		6					1	
8	5		3	1	4		7	9
	1							5

스도쿠 정답								
6	7	8	2	1	5	4	9	3
4	1	5	8	9	7	6	2	8
2	9	5	7	6	4	8	1	3
9	5	7	8	4	2	1	6	3
1	2	4	6	1	5	9	8	7
1	8	6	9	2	7	5	4	3
8	1	2	4	9	6	1	7	5
5	2	1	5	7	2	6	9	8
7	6	9	1	5	8	4	2	3
7	5	8	4	2	9	1	6	3
6	4	9	7	1	5	2	8	3
1	2	4	8	6	5	9	7	3
9	7	6	5	2	4	1	8	3
4	8	1	2	7	1	6	9	5
2	1	5	6	9	8	4	2	7
8	9	4	1	5	2	7	6	3
1	6	2	1	8	7	5	4	9
5	1	7	9	4	6	8	2	1

문제 제공= 보누스

# 김상회의四季



## 작은 영웅들의 보시

역사가 시작된 이래 어느 시대에나 영웅이 있었다. 나라들 사이에 침탈이 일상이던 시대에는 나라를 구한 사람이 영웅의 자리에 올랐다. 현대에는 주로 의로운 일을 한 사람들 즉 의인들이 영웅이라 불린다. 최근에 홍콩의 영화배우인 주윤발이 거액의 기부로 칭송을 받았다. 얼마전 8000억 원에 달하는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했으니 그럴 만도 했다. '영웅본색'이라는 영화에 주연으로 출연하면서 스타의 자리에 올랐던 그는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길거리에서 과일가게를 하며 모은 재산 400억을 대학교에 쾌척한 노부부가 있었다.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노부부는 자기들의 돈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이다. 생활을 유지하게 해주고 풍족하게 만들어 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이 많은 운세를 타고 나기 바란다. 누구나 바라는 일이고 인지상정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주윤발은 조금 다르게 이야기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재물이 다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재물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인생을 평화롭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한다. 매일매일의 생활에 허덕이는 일반 사람들은 재물을 도외시할 수 없다. 재물을 쌓고자 하는 마음은 당연한 것이다. 필자는 그 마음에 더불어서 선한 마음도 함께 쌓자고 말하고 싶다. 현대의 영웅들처럼 거액을 기부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지만 작은 기부는 그리 어렵지 않다. 석가모니도 보시를 항상 강조하셨고 무주상보시가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다. 무주상보시는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보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다. 무주상보시가 어려우면 복을 바라고 보시를 해도 좋다. 보상을 바라도 좋은 것이 보시를 하지 않는 것보다는 나은 것이다. 재물을 열심히 쌓으면서 사회를 위해 이웃을 위해 조금씩이라도 보시를 해보라. 그것들이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복이 쌓인다. 결국은 나에게 복으로 돌아온다. 우리가 모두 큰 영웅은 되지 못한다. 그러나 작은 영웅은 될 수 있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창규
인쇄인	중앙일보(주) 김교준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4095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0199호



# 21조 체코원전 수주 총력전 정재훈 “동유럽 교두보 확보”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체코 방문 등 수주 구슬땀  
산업부와 UAE 운영 점검

한국수력원자력이 내년 초 입찰이 진행되는 체코의 신규 원전 프로젝트 수주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는 동시에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지키기에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현재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 등과 바라카 원전 계약 점검차 UAE를 방문 중이다. 최근 UAE 바라카 원전 운영사인 나와(Nawah)가 한수원의 최대 경쟁사인 프랑스 EDF와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수원의 독점 운영권에 차질이 생기지는 않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어 정 사장의 행보가 업계의 주목을 끈다.

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수력원자력은 약 21조원에 달하는 체코의 원자력 발전 사업권을 확보하는데 집중하고 있다. 체코는 2035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원전 건설을 계획 중이다. 두코바니와 테밀렌에 각각 1000MW급 원전 1~2기를 구축할 예정이며 건설은 오는 2025년부터 시작한다. 체코는 올해 말까지 신규 원전 프로젝트 재원 조달 모델을 선정하고 내년 초 국제 입찰을 진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수원은 체코 원전 사업을 위한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힌다. 정재훈 사장은 이번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지난 8월, 9월, 11월 잇따라 체코를 방문하며 강한 수주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가운데)이 체코 폴젠에 위치한 터빈 제작사인 스코다파워와 신규원전사업 개발 및 R&D분야 협력 MOU를 체결한 후 스코다파워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정재훈 사장은 “체코는 한수원이 동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여기는 시장”이라며 “쉽지 않은 도전이지만 지난 40여년간 축적한 원전건설 경험과 긴밀하게 구축된 공급망 등 한수원이 갖고 있는 역량을 결집해 체코 원전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권에서도 체코 원전 수주에 적극적으로 지원 사격을 하고 있다. 지난달 문재인 대통령이 체코에 들르면서 체코 정부와 원전 협력에 우호적인 뜻을 주고 받으며 수주 성공 가능성을 더 높였다는 분석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달에 체코의 원전 사업모델이 확정되고 내년 상반기에 입찰 안내서가 발급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정 사장은 현재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지원실장, 임현승 한국전력공사 부사장, 김범년 한전KPS 사장 등과 함께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 머물고 있다. 원자력공사 경영진들과 만나 바라카 원전 장기정비계약(LTMA)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수원이 바라카 원전의 장기 운영권을 독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바라카 원전 운영사가 프랑스 EDF와 장기서비스계약(LTSA)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수원의 독점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논란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재훈 사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EDF와 UAE간 장기서비스계약(LTSA)은 예상대로 원전 직접 운영과는 관련이 없는 기술적 건설팀 분야의 소규모(5년·총 1000만불) 자문계약”이라며 최근 불거진 원전 독점 운영권 논란을 일축했다.

바라카 원전 운영과 관련된 계약은 크게 운영지원계약(OSSA)과 장기정비계약(LTMA)으로 나뉜다. 한수원은 Nawah와 10년 단위의 운영지원계약(OSSA)만 체결한 상태며 장기정비계약(LTMA)은 UAE 측이 내년 상반기 국제 경쟁 입찰을 실시할 계획이다. 한수원이 장기정비계약까지 따내면 완전하게 독점 운영권을 갖게 된다. /김유진 기자 ujin6326@metroseoul.co.kr

# 에몬스가구가 제안하는 ‘2019 가구 트렌드’는? ‘친환경’에 ICT 접목

에몬스 내년 창립 40주년  
자연친화·고품질 정조준  
60여 가지 신제품 선보여  
“내년 매출 10% 성장 목표”

내년 상반기 가구 트렌드는 ‘친환경’이 될 전망이다.

올해 일부회사의 ‘라돈침대’ 공포로 가구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가구 선택이 더욱 간간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똑똑한 가구’도 대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에몬스는 5일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본사에서 가구대리점주 등을 대상으로 ‘2019 봄 시즌 가구 트렌드 및 신제품 품평회’를 갖고 60여 개 제품을 새로 선보였다.

내년 창립 40주년을 맞는 에몬스는 1994년부터 신상품 품평회를 매년 열고 있다. 2000년부터는 사세가 확장됨에 따라 1년에 두 차례씩 품평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경수 에몬스 회장은 “에몬스는 국내 직접제조를 기반으로 명품 품질, 서비스, 디자인 정책을 유지해왔다”면서 “친환경 소재를 바탕으로 소비자 가치를 높이는 디자인과 정교한 기술력으로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편안한 가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에몬스는 유해물질 없이 안전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사용한 가구로 내년 소비자들의 마음을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마케팅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실제 이날 에몬스가 선보인 친환경 매트리스 ‘노블앙’은 천연라텍스, 천연 양모, 모달, 텐셀 등 자연친화적 소재를 사용해 위생적이고 건강한 수면 공간을 제공한다. 에몬스는 앞서 공인시험기관



에몬스 김경수 회장이 인천 남동공단에 위치한 본사 쇼룸에서 대리점주 등에게 신제품을 설명하고 있다. /에몬스

을 통해 기존에 판매한 매트리스 전 제품에 대한 안전성도 확인받은 바 있다.

또 사계절이 있는 국내 환경에 최적화된 매트리스 ‘컴퍼릭스S2’는 2레이어 커버를 적용해 겨울엔 따뜻하게, 여름에는 시원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

에몬스 관계자는 “라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없애기 위해 위해성이 낮은 천연소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인증 절차도 다 거쳤다”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에몬스에 따르면 올해 자사의 매트리스 판매량은 전년보다 23% 가량 늘었다.

에몬스가 이날 첫 선을 보인 ‘아르페’, ‘파르테논S’, ‘모디스E’, ‘몬테스’, ‘헬렌’ 식탁에 세라믹을 사용한 것도 유해물질 없이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다.

김 회장은 “라돈포비아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올해 더욱 커지면서 안전한 가구를 찾게 되는 심리가 많아졌다”면서 “친환경 가구를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 파는데 전념한 것이 소비자들에게 많은 믿음을 줬고, 이때문에 어려운 시기에서도 에몬스가 올해 주

가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지난해 1800억원 가량의 매출을 올린 에몬스는 올해 ‘2000억 매출’을 돌파했다. 내년엔 2200억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에몬스는 ICT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수면 솔루션을 제공하는 ‘이모션 매트리스’와 전동 리클라이너 소파 ‘릴렉시온’도 선보였다.

이모션 매트리스는 수면 상태를 모니터링해 사용자에게 적합한 최적의 수면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 제품은 공인된 인증기관을 통해 내구성 반복테스트, 하중 롤러 테스트를 비롯해 라돈 테스트, 전기 인증까지 끝냈다.

특히 ‘웰 슬립센서’를 이용해 잠을 자는 동안 호흡, 심박, 뒤척임, 무호흡, 코골이 등 5가지 건강 측면을 측정해 깊은잠, 얇은잠, 깨어남 등 수면상태를 일, 주, 월, 단위로 데이터화한다. 이를 통해 분석한 데이터는 모션을 작동시켜 최상의 수면 상태를 유지해준다.

릴렉시온 소파는 휴대폰 앱을 통해 원하는 모션을 작동시킬 수 있으며, 메모리기능도 갖추고 있어 매년 모션을 맞춰야 하는 번거로움도 없었다.

/인천=김승호 기자·배한님 수습기자bada@

## aT 식품산업 취준생 역량강화 나서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청년일자리 창출에 발맞춰 청년의 농식품 분야 일자리 네트워크 강화 및 취업지원을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2018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식품기업 입사를 희망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교육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170여명의 전국 식품분야 전공 대학생 및 취준생 등이



aT '2018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

참석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해태제과, 아워홈, 동원 F&B, 샘표식품 등 국내 대표 식품기업 인사담당자의 채용설명회와 토크콘서트를 통한 최신 채용트렌드 공유,

전문 컨설턴트의 면접·자소서 코칭, 인적성·NCS 직업기초능력 테스트 등 식품기업 입사에 필수적인 교육들이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김현승 학생은 “식품기업 취업을 준비하며 평소 관심있었던 기업의 인사담당자를 직접 만나 소통하며, 최신 채용정보를 들을 수 있어서 좋았다”고 밝혔다.

신현곤 aT 식품수출이사는 “식품산업 청년 취업역량강화 워크숍을 통해 청년에게는 식품기업 취업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기업에는 우수인력을 육성하여 매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세종=최신용 기자 grandtrust@

## 한국고용정보원 ‘고용서비스 발전’ 국제 워크숍 진행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달 5일부터 6일까지 서울 코트야드 메리어트 타임스퀘어에서 ‘포용적 성

장을 위한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 국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일자리 관련 국내외 전문가와 정책담당자들이 참석해 주요 국가들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지역고용정책 사례, 온

-오프라인 고용서비스 현황 및 성과 등을 공유하고 토론한다.

해외 전문가 9명은 각국의 일자리정책 사례 및 경험 발표와 토론을 통해 한국의 일자리사업과 고용서비스 발전 방안을 함께 모색할 예정이다.

/세종=최신용 기자

## LG하우시스가 제안하는 ‘2019 인테리어 트렌드’는?

# 동물패턴·가을색·대칭 공간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 키워드 ‘Better\_조금 더 나은’

LG하우시스가 내년도 인테리어 디자인 트렌드 키워드를 ‘Better\_조금 더 나은’으로 제시했다.

LG하우시스는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임피리얼 팰리스 서울 호텔에서 ‘LG하우시스 2019/20 디자인 트렌드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제안했다고 5일 밝혔다.

올해로 19회 짝인 LG하우시스의 ‘디자인트렌드세미나’는 국내외 사회 이슈와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디자인 산업 흐름을 기반으로 앞으로의 인테리어와 디자인 트렌드를 전망하는 자리다. 이날 LG하우시스가 제안한 ‘B



세미나 참석자들이 LG하우시스가 제안한 내년 디자인 트렌드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etter\_조금 더 나은’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냉소보다는 삶에 대한 긍정적 의지를 바탕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환경 문제가 소비, 여가, 공간 등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면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일상 속 작은 습관부터 바뀌어 가는 ‘의식 있는 소비자’들이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LG하우시스는 ‘Better\_조금 더 나은’을 기반으로 한 3가지 디자인 테마 ▲동물을 모티브로 동화적 상상력을 담은 공간 ‘슬기로운 생활. 페이블(Fable)’ ▲몸, 마음, 정신이 모두 건강한 토탈웰빙 공간 ‘즐거움 생활. 트리트(Treat)’ ▲미래에 대한 낙관적 시선과 호기심을 담은 공간 ‘탐구 생활. 오브(Orb)’도 함께 제안했다.

LG하우시스는 이들 트렌드 테마에 따라 친근하고 익살스러운 동물 패턴, 브라운, 골드 등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가을 느낌의 색상, 대칭 구조를 활용한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공간 디자인 등이 내년에 주목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김승호 기자





무자비한 힘이  
나타났다!

통다리살 치킨버거

# T-REX

티렉스 ₩3,500

*New*



※상기 이미지는 실제 제품과 다를 수 있습니다. / 일부 점포 판매 제외





### 신안군, 재해 취약계층 주거불안 해소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 실시

신안군은 집중호우 및 태풍 등 예상치 못한 재난으로 주거가 불안정한 거동불편 단독세대,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 계층에 대해 이동식 건축물 임대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3일 관련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신안군 재난 구호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회 심의를 완료했다.

5일 신안군 관계자에 따르면 지원사업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중 1~3급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가장, 65세 이상 독거노인 등이 임대주택 지원사업의 혜택을 볼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군은 안좌면, 팔금면 등 중부권에 26㎡(8평) 규모의 재해임대주택 5동을 1

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우선 공급키로 하고 지난 8~9월에 발생한 태풍 솔릭, 콩레이 등 피해주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군은 군민의 10% 이상이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재해 취약계층으로 재난 상황 발생 시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도서로 이루어진 군의 특성상 태풍 및 집중호우, 화재 등 재난상황 대응에 상대적으로 열악한 여건속에 본 사업 추진으로 군민의 기본적인 삶의 공간인 주거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신안"을 위해 사회서비스 구매능력이 부족한 어르신과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행정을 우선적으로 펼쳐 희망이 샘솟는 신안을 만드는 데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전남 신안=김원유 기자 wonyoo9700@

### 태양광비리 발목에

# 전남 청렴도 또 '최하위'

종합청렴도 광역자치단체 4등급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 높아

전남도가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벗어 나지 못했다.

5일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전국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에 따르면 전남도는 종합청렴도(2017년 7월1일~2018년 6월 30일)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4등급을 기록했다.

지난해 세종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가운데 13위(4등급)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청렴도가 여전히 바닥권을 면치 못했다.

분야별로는 내부청렴도는 지난해와 같은 3등급이나 외부청렴도는 3등급에서 1등급 낮아진 4등급, 정책고객평가는 2등급에서 1등급 낮아진 3등급을 각각 받았다.

지난 2016년 태양광발전사업 비리에 연루돼 관련 직원이 파면된 부패사건으



전남도청 전경.

로 감점이 광역평균보다 높아 청렴도 상승의 발목을 잡았다.

전남도 관계자는 "외부청렴도 점수가 낮아진 주요 요인으로는 금품·향응·편의 경험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부 직원들의 부패행위가 완전하게 근절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 2011년 15위, 2012년 14위, 2013년 13위, 2014년 13위, 2015년 16위, 2016년 꼴찌에 이어, 4년만에 13위로 재진입한바 있다.

김장오 전남도 청렴지원관은 "앞으로

투명한 공직사회를 토대로 도민이 행복한 청렴전남 실현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부패 취약분야에 대해 중점관리 등 청렴시책들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지난 6월 당선자 시절 도정 주요 현안 보고회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평가에서 13위를 한 것을 비롯해 도의 청렴도가 몇 년째 하위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보고에 놀랐다"면서 "도가 보고한 올해 청렴도 목표가 9위이고, 다음해가 3위인데, 그러지 말고 단번에 3위로 가고 그 다음해엔 1위로 하자"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의 청렴도 등급이 지난해보다 하락했으며 전남도교육청은 중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의 종합청렴도는 5등급으로 지난해보다 1등급 하락했다. 업무처리 경험이 있는 국민들이 평가한 외부청렴도는 5등급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 무안=양수년 기자 ysn6313@metroseoul.co.kr

### 완도군, 오늘 '장보고 대사 추모 다례제' 개최

추모·도전정신 계승 마음 담아

완도군과 장보고연구회가 오는 6일 완도문화예술의 전당에서 '해상왕 장보고 대사 제1177주기 추모 다례제'를 개최한다.

장보고 대사는 1200년 전 완도에 청해진을 설치하고 '바다를 지배하는 자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정신으로 동북아 해상 무역을 펼쳤다.

다례제는 이러한 장보고 대사를 추모하면서 21세기 신 해양시대를 맞아 그의 꿈과 도전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봉행하는 제례 의식이다.

행사는 기관 단체장들이 헌화와 차를 올리고, 시 낭송가 박영자 님의 헌시 낭독, 무용가 박일자 님의 지전무로 대사의 넋을 달래는 시간을 갖는다.

완도군과 장보고연구회 관계자는 "이번 다례제는 전통 공연, 시낭송 등 예술과



문화가 어우러지게 준비된 만큼 일반 주민, 학생들도 많이 참여하여 장보고 대사의 도전 정신을 우리 세대가 본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그동안 장보고 기념관 및 동상 건립, 장보고 공원 등 장보고 대사 선양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장보고 대사의 도전과 개척 정신이 담긴 역사적 장소인 사적 308호인 청해진 유적을 보존하고자 경관 개선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제진 기자 wando1106@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지역 유관기관 실무협의회 개최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5일 2019년도 청소년 해양체험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유관기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목포시, 해양환경공단목포지부, 전남요트아카데미, 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무안생태갯벌사업소 등 총 5개 기관에서 참석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이날 해양문화 확산을 위한 해양수산부 정책을 설명하였으며, 참석자들은 '18년도 청소년해양 체험 사업추진 성과 및 '19년도 계획에 대



해 함께 논의했다.

특히, 체험 관련 시설을 확대하기 위한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으며, 각 기관은 요트승선(목포시·전남요트아카데미), 해양

환경교육 및 방제시설견학(해양환경공단 목포지부), 카누·카약체험(한국해양소년단전남서부연맹) 해양안전교육(전남요트 아카데미), 갯벌체험(무안생태갯벌센터) 등에 대해 협력하기로 했다.

목포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청소년 해양체험프로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 유관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은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해양문화체험을 제공하기 위해 매년 4월초부터 10월까지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3,090명(35개 학교)이 프로그램에 참가하였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목포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 실태조사.

### 목포시, 식품 및 공중위생관리업소 실태조사

목포시가 오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위생업소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2차 희망근로 일자리 사업을 통해 선발된 조사원 30명을 통해 진행되며 위생업소 4,667개소(일반음식점 4,036, 식품자동판매기업 306, 숙박업 325)를 대상으로 한다.

시는 내년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힘입어 관광객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종합정책을 수립하

고,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인허가 및 무단 폐업 확인 ▲음식 주메뉴 ▲수용인원 ▲업소내 장애인 편의시설 ▲외지 관광객 이용 실태 ▲목포만의 음식 메뉴 개발 ▲가격할인 음식점 참여 ▲숙박업소 운영실태 ▲객실요금 및 숙박 형태 ▲객실내부 및 편의시설 등에 대해 조사원이 직접 위생업소를 방문해 설문·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전남 목포=김원유 기자

### 인천시

### 동절기 가스시설 안전점검

인천시는 가스사용이 증가하는 겨울철을 맞아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주요 가스 시설 808개소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 군·구 및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5일부터 2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가스사고의 33%가 동절기에 일어나고 있어 취약시설에 대해 사전 안전점검과 시설관리자는 물론 범시민적 관심 유도를 위한 사고 예방적 차원에서 실시한다.

시는 LPG충전소, 고압가스 제조·저장·판매시설, 도시가스 정압기 시설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며, 법적 시설기준 준수여부, 가스공급자 의무사항 준수여부, 노후시설 방치 여부 등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사고 위험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즉시 개선조치를 지시할 예정이다.

박영길 에너지정책과장은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급증하는 동절기를 맞아 취약시설에 대해 체계적이고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시민 모두가 가스사고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2 | 해질 / 17:13

12월

6일 (목)

음력 : 10월 29일

수도권 날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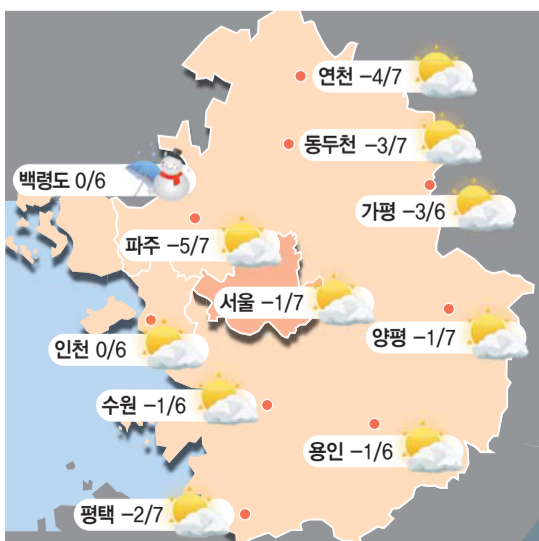
-1 ~ 7°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산업] LS산전 북미 최대 에너지저장사 인수 05



[산업] 이보다 더 쌀순 없다 조기구매 할인 등 차량 구매 최적기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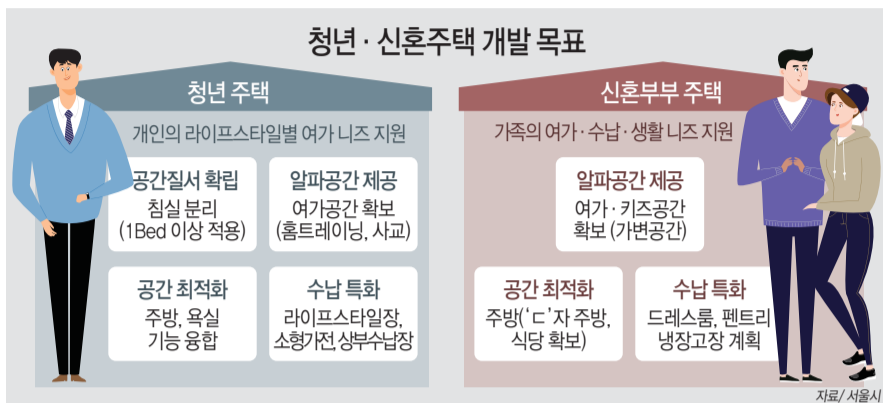
#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정릉에 첫 공급

##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 출범 주방가구 선택·육아·취미공간 등 라이프스타일에 맞춰 공간 활용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브랜드 '청신호'를 출범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호 청신호 주택인 '정릉동 행복주택' 166세대를 내년 7월 완공해 공급할 계획이다.

청신호는 '청년'과 '신혼부부', '호(戶)'에서 한 글자씩 따 이름 지었다. 주거, 육아, 취업난으로 고통받는 청년들의 내집 마련에 청신호를 권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시는 서울 거주 청년과 신혼부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청신호 주택을 설계했다.

맞춤형 설계는 ▲공간질서 확립 ▲알파공간 제공 ▲공간 최적화 ▲수납특화 등의 네 가지에 주안점을 뒀다. '나만의 한 평(3.3㎡)'을 제공해 SH공사의 기존 표준평면보다 면적을 확대하고(원룸형 17㎡→20㎡, 투룸형 36㎡→39㎡) 수납,

배치 등 공간 활용을 극대화해 같은 공간이지만 다양한 라이프스타일에 맞는 생활이 가능하도록 했다.

청년들을 위한 주택은 ▲청년노마드형(원룸형) ▲워크&라이프형(거실-침실 분리) ▲소셜다이닝형(거실 확장형)의 3가지 유형을 선보인다. 청년들이 맘만 들

어오면 살 수 있게 빌트인 가구가 완비된 일체형으로 공급한다. 요리를 하지 않는 생활 양식을 고려, 주방가구 규모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욕실도 건식·습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은 육아 중심으로 기획된 기존 주택과 달리 자녀가 없는 부부까지 고려해 가변형으로 지었다. 아이가 태어나면 자녀 양육 공간으로 활용하고 부부만 생활할 때는 게임, 음악감상 등의 용도로 활용하는 전용공간 '알콩달콩 β룸'을 배치했다.

외부 현관문 근처에도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단지 곳곳에는 지역의 공간복지 역할을 할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신혼부부 단지에는 어린이집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세먼지 걱정 없는 실내놀이터와 키즈카페 등을 설치한다. 청년주택은

약기연주, 공동작업 등 집에서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을 제공한다.

시는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매입형 임대주택 중 2500세대를 청신호 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이제 임대주택도 시민들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해 맞춤형으로 공급하는 시대를 열겠다. 청년과 신혼부부 전용 공공 임대주택으로 본격 출범하는 '청신호'가 모범적인 모델이 될 것이다"며 "같은 공간이라도 실제 사는 사람에 따라 다양한 생활방식을 실현할 수 있도록 공간 활용을 극대화한 주거모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임대주택의 품질과 이미지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 이재명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전격 추진

## 2020년부터 공공주택 대상 적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기로 했다"라며 공공분야 '후분양제' 전격 도입 의사를 밝혔다.

이 지사는 지난 3일 페이스북을 통해 "후분양제는 건설사가 수분양자로부터 건설자금을 확보해 리스크 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로 모델하우스만 보고 구입 여부를 결정하다보니 부실시공 및 품질저하 문제가 발생한다"며 "후분양제로 바꾸면 소비자는 완공된 주택을 보고 구매를 결정하게 되기 때문에 선택권이 강화되고 시공품질에 대한 사후 분쟁 여지가 줄어드는 것은 물론 분양권 전매 차단으로 인한 투기 수요 억제 및 건설업체 경쟁력 강화 등의 장점이 있다"며 '후분양제'의 장점을 설명했다.

이 지사는 "우선 경기도시공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경기도시공사가 공급하는 택지에 민간건설사가 짓는 경우에 한해 후분양제를 적용하는 한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후분양제의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겠다"고 덧붙였다.

우선, 도는 오는 2020년부터 경기도시공사가 착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시공사가 화성 동탄2 신도시 A94 블록에 조성하는 1,227세대



경기도시공사 시행 공공분양주택 후분양제 추진 토론회. /경기도

공공분양아파트와 수원 광고신도시 A17 블록에 조성하는 549세대 아파트에서부터 '후분양제'가 적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도는 2021년 이후 경기도사가 직접 착공하는 화성 동탄, 광명, 안양, 고양 일대 7개 블록 5,000여 세대의 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을 추진하는 한편 경기도시공사가 택지를 공급하는 민간주택에 대해서도 '후분양제' 적용을 적극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다만, 도는 소비자들에게 배란다, 마감재 등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완공률 60%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후분양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완공률 60% 이상, 완공률 80% 이상, 완공률 100% 등 완공 단계별로 후분양을 진행한 뒤 가장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후분양제' 적용 단계를 찾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논의는 이날 진행된 '주택 후분양제 관련 라이브 토론회'에서 진행됐다.

이 지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봉인식 경기연구원 공공도시연구실장, 이준표 도시주택실장, 이재영 공공택지과장, 정일현 주택사업처 처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도입을 추진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공공택지에 조성되는 민간분양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적용에 대해서도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만, 참석자들은 후분양제 적용 시점에 대해서는 각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kimsy@

# 북한군 묘지 '평화의 공간'으로 재탄생

## 관리주체 국방부서 경기도로 이관

북한군 묘지 시설의 관리주체가 국방부에서 경기도로 이관된다.

도는 지난 3일 경기도 서울사무소에서 국방부와 함께 '북한군 묘지시설 이관관련 실무협의 회의'를 갖고 국방부의 시설 관리 및 운영권 이전 요청을 평화인도적

차원에서 전격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와 국방부는 북한군 유해 824구가 안장된 파주시 적성면 일대 5,900여㎡ 규모의 북한군 묘지시설을 경기도가 관리할 수 있도록 권한 이관 및 조성 비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는 한편 묘역 관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도는 이관된 북한군 묘역을 민족분단

의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평화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평화의 공간'으로 조성해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로 이관되는 북한군 묘역은 국방부가 제내비협약(적군의 사체중증)에 따라 지난 96년부터 조성해 관리해왔다.

이재명 지사는 "북한군 묘역을 전쟁의 아픔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재탄생시키고 나아가 한반도 평화가 견고해지도록 경기도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김승열 기자

# 옥수수유 섞은 가짜 들기름 판매 일당 적발

## 서울시, 식품제조업자 2명 형사입건

값싼 옥수수유를 섞은 가짜 들기름을 만들어 판매해 온 일당들이 적발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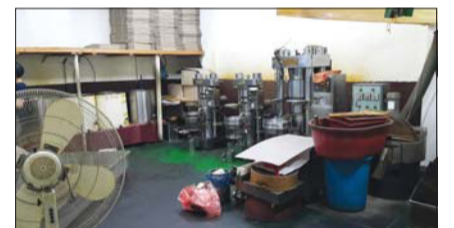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짜 들기름을 제조·유통한 식품제조업자 2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가짜 들기름은 진짜의 10~20% 수준에 불과한 가격으로 폭리를 취할 수 있으나 눈으로 구별하기가 어려워 소비자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A업체는 들기름에 옥수수유 60~70%를 섞은 기름을 100%로 표시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2013년부터 1만리터, 5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A업체 대표 J(73) 씨는 거래처에서 요구하는 저가의 가격으로는 들기름 100%를 사용한 들기름을 생산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거래처를 잃지 않기 위해 옥수수유를 혼합했다고 진술했다.

B업체는 수입산 들기름에 옥수수유 20% 상당을 혼합한 가짜 들기름을 생산



A업체 공장 내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한 뒤 원재료 들기름 100%로 표시해 판매했다. 2017년부터 6400리터, 4500만원 상당의 제품을 팔았다.

이들은 또 여러 식용유지를 혼합한 향미유를 생산하면서 원재료를 거짓으로 표시해 식자재 도·소매업소에 판매한 혐의도 있다.

가짜 들기름을 제조·판매하거나 원재료 등 제품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경우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민사단은 이들 업체에 대한 검찰 송치와 관할 행정기관에 식품위생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김현정 기자 hjk1@

# 세계 16개 도시 '노동분야 국제기구' 만든다

## 서울 등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

서울시와 뉴욕, 빈, 밀라노 등 세계 16개 도시가 '좋은 일자리 도시협의체' 창립을 추진한다. 협의체는 일자리·노동 분야 최초의 도시정부 국제기구로 국내 도시로는 서울시와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가 참여한다.

서울시는 11~12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2018년 좋은 일자리 도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포럼은 전 세계적인 화두로 떠오른 소득·일터 불평등의 해법을 모색하고 협의체 창립에 뜻을 모으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포럼에는 국내·외 16개 도시가 참여해 각 도시의 노동정책을 공유한다. 런던생활 임금재단, 캐나다미디어걸드(CMG), 독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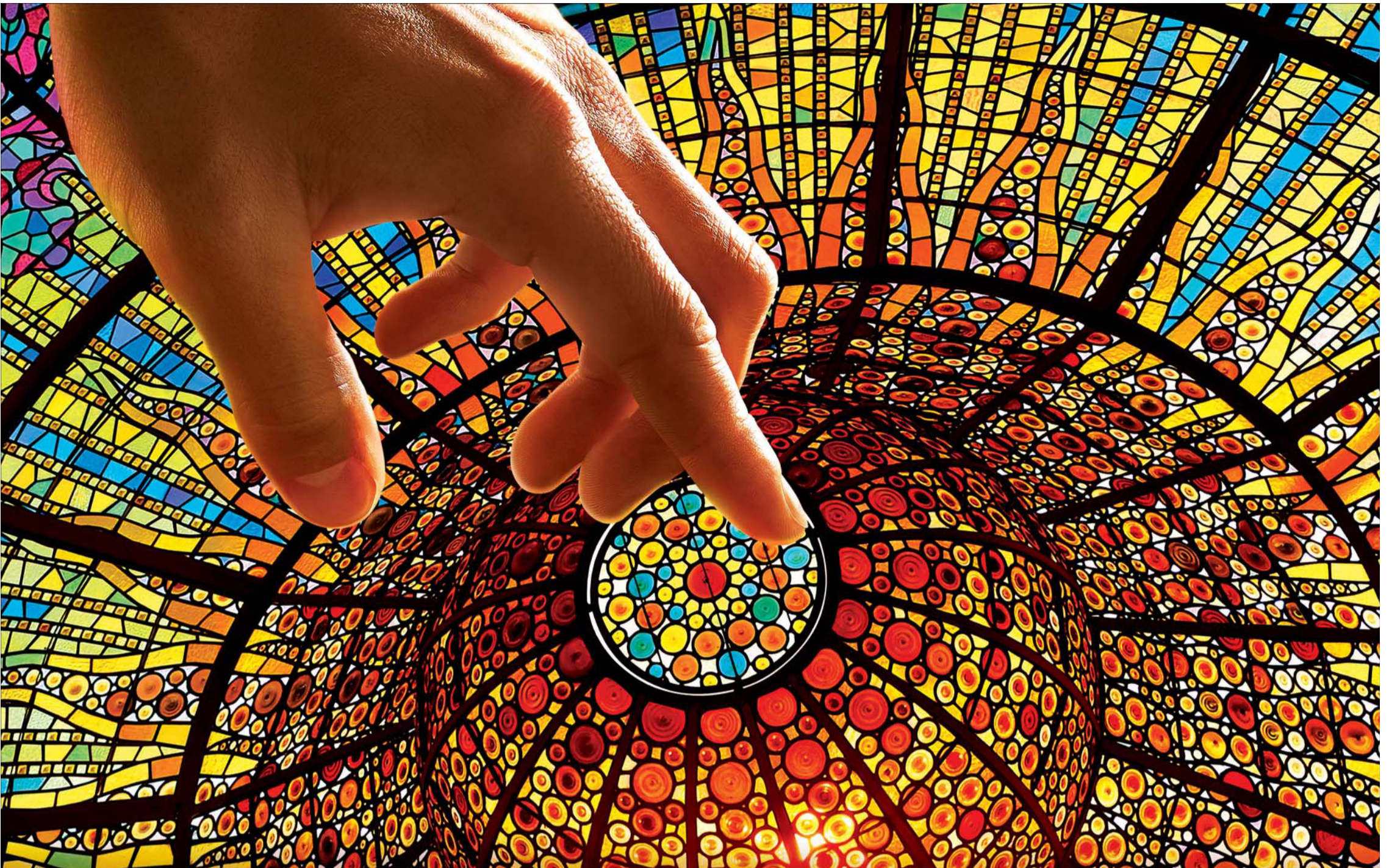
노총(DGB), 남아공최저임금위원회 등 노동 관련 전문가와 학자들이 노동현장이 당면한 과제와 해결 방안을 함께 찾는다.

포럼 주제는 '일의 불평등과 유니온 시티'다. 유니온 시티는 도시정부가 노동환경, 노동시장과 임금 등의 기준을 설정해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장하는 도시를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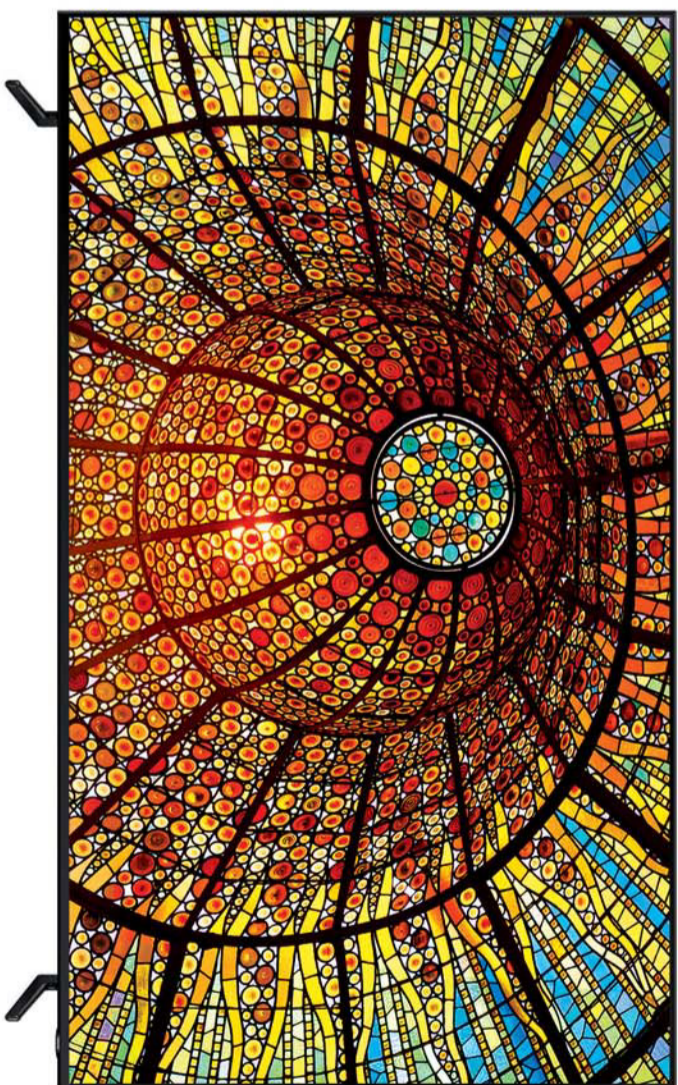
미국 오바마 정부의 노동정책설계자였던 경제학자 데이비드 와이(David Weil)가 '유니온시티'를 통한 불평등과 균일일터 해결'을 주제로 기조연설 한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프리랜서'와 '플랫폼노동자'에 대한 노동권 보호방안과 도시의 정책사례가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김현정 기자





컬러속 미세한채이  
초고화질로 살아나다



SAMSUNG

TV를 넘어 새로운 비전이 되다

Quantum **QLED 8K**

**컬러볼륨 100%** | 눈 앞에서 살아나는 컬러속 미세한채이 |

다른 TV로는 볼 수 없었던 같은 컬러 속의 미세한채이도 QLED의 100% 컬러볼륨으로 하나 하나 살아납니다. 장면 속에 존재하는 컬러의 모든 디테일을 3,300만개의 픽셀로 경험하는 순간, 영상의 깊음은 100%가 될 것입니다.

\* 특정 100% 컬러볼륨 테스트 결과 기준, 2018년 9월

**8K 초고화질** | 미처 눈 앞에 실제 존재하는 것 같은 깊이감 |

원조하는 최고화질 UHD 4K의 세 배 무려 3,300만개의 픽셀이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깊이 있는 현실감을 선사합니다. TV의 화면이 아무리 커져도 번지지 않는 선명함으로 초대형 TV를 보는 즐거움이 더 커집니다.

\* 4K보다 4배 많은 대당 픽셀 수를 기반으로 한 명암비 개선

**퀀텀 프로세서 8K<sup>AI</sup>** | 어떤 화질, 어떤 시음으로도 8K로 자동 최적화 |

수백만 개의 영상을 머신러닝으로 학습한 인공지능이 해상도가 낮은 영상도 앞에서 8K급 화질로 보여주고, 음악, 액션, 스포츠 등 영상에 맞게 최적화된 사운드를 출력합니다. 이제 QLED 8K TV로 다양한 콘텐츠를 8K급으로 즐기 보세요.

\* 4K 이상 영상에 한해

\* 삼성 시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옮기 위해 연출된 이미지입니다.